

간극은 있다

The Gap Fact

간극은 있다

The Gap Fact

Perry Demopoulos 지음

김 용 묵 옮김

KJ 도서출판 **킹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간극은 있다

(THE GAP FACT)

루시퍼의 죄로 인해 야기된 홍수에 대한 성경적 해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딤후2:15)

Perry Demopoulos

(1992년부터 구소련 및 우크라이나 선교 사역 중)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Perry Demopoulos: Th.D

Note: 본서에서 인용된 모든 성경 구절은 1611년도 권위역 킹 제임스 성경을 한국어로 옮긴 성경인 킹제임스 흠정역이다. 번역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영어 단어가 우리말에서 동일하게 대응하지 않을 때는 필요에 따라 영어 단어를 병기하였다.

본서의 모든 논리는 국제어인 영어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1611) 외에 그 어떤 자료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전개되었다. 이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전문으로 공부한 교수·학자들에게는 유감스러운 면모일 것이다. 또한 성경의 근본 교리를 믿는다면 근본주의자와 신복음주의자를 자처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전통이나 철학(골2:8), 사전,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어휘집 따위를 믿는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에게도 본서의 내용은 몹시 불편하게 비칠 수 있다.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 께서 이 라오디게아(“시민의 권리”) 교회 시대를 향해 말씀해 주실 것을 소망한다. 온전히 보존된 거룩한 말씀인 권위역 킹 제임스 성경(1611)의 절대적인 권위 하에서 말이다.

간극은 있다

The Gap Fact

©2015 by King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초판발행 | 2015. 11. 1

지 은 이 | Perry Demopoulos

옮 긴 이 | 김용묵

디자인·편집 | 김화영

표지사진 | 안성식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 7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b.com

■ ISBN 978-89-89741-81-7

■ 정가 15,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추천인 글	15
머리말	16
제1장	27
간극 반대자들의 거짓 고소	
요약	
제2장	37
분쟁의 핵심인 롬5:12이라는 걸림돌	
간극 반대자가 설명하는 창조 과정	
“모든 것”과 노아의 홍수에 대한 성경적 계시	
“물고기” 및 “바다”와 간극과의 관계	
제3장	49
문제의 근원	
파멸에 대한 암시	
제4장	61
이브의 죄	
이브는 속임수에 속았다	
“속음”과 “악”	
“속음”과 “교만”	
이브는 농락을 당했다	
이브가 지은 누락의 죄	
죄와 사망의 “가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제5장	87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전부터 죄는 존재했다	
“악”(evil)	
어둠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다	
왜 이렇게 온갖 관련 구절들을 복잡하게 찾아 보는가?	
제6장	107
사탄의 타락	
아담 이전에 있었던 에덴	
루시퍼의 타락 시기	
하나님의 산	
“불” “한가운데”	
죄는 언제 최초로 생겼는가	
하나님은 언제 지옥을 만드셨을까	
파멸에 대한 암시	
제7장	123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성경적인 해석 방식이 인간의 설명과 다른 점	
문맥이 큰 차이를 만든다	
제8장	135
계속되는 간극의 증거들 “And”(창1:2) 속에 담긴 간극	
성경의 간극들을 바르게 나누기	
“And”(그리고)	
“was”는 “became”이라는 뜻이다	
“형태가 없고”에서의 “형태”	
“공허함”(void)	

“어둠”
 “깊은 어둠”에 대한 최초 언급의 법칙
 “어둠”은 가림막 또는 방어막 역할을 함
 “어둠”과 십자가 심판
 “어둠”과 “악(화, 재앙)”
 “어둠”과 사망
 “어둠”과 “심판”
 “어둠”, “사망”과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구부러짐”
 사도 바울은 “어둠”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가?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제9장 199

“깊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같지 않은 사례

제10장 211

아담의 창조와 타락
 종족 대표(federal headship) 교리
 사망, 심판과 “그 후”

제11장 229

아담 이전의 종족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최초로 “신들”이 된 시기 vs 땅의 기초가
 놓인 시기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시기별 정리

제12장 245

“Replenish”(다시 채우라)

제13장	257
계속해서 발견되는 차이 “하늘”과 “하늘들”	
“세대들”	
세대란 시작과 계보를 뜻한다	
제14장	267
베드로후서 3장	
두 홍수 사이의 차이	
역사는 반복된다	
수에 대한 성경적 원리	
13이라는 숫자	
요한계시록 21장의 “처음 땅” -- 하나님의 독특한 계산법	
세상 권력들의 승계 -- 제1기	
제2기	
제3기	
적용	
모든 말들을 확증하기	
마귀의 줄	
제15장	303
리워야단의 정체는 무엇인가	
리워야단이 사는 곳	
리워야단의 생김새	
리워야단은 일반 수중 생물을 가리킬 때도 있음	
리워야단에게 주어진 칭호	
“깊음의 표면(face of the deep)”과 “지면(face of the ground)”의 차이	

제16장	329
“깊음들” -- 성경적 우주론에 관한 연구	
우주의 전체 그림	
깊음에 대한 더 깊은 고찰	
제17장	349
“그 구부러진 뱀”	
제18장	359
성경 해석에 관한 2와 3의 법칙	
“길에서 제거됨(taken out of the way)”	
“북쪽의 옆면들”	
제19장	365
이 주제가 어려운 이유	
대단원	369
결 론	373
부 록	377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추천인 글

우크라이나 선교사 페리 데모플로스(Perry Demopoulos) 형제님의 책 Gap Fact를 발간하며 독자들에게 몇 마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관해 창1:1-3절까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어왔습니다. 그 중 6일창조설(창조과학회를 비롯한 일부 그리스도인의 주장)과 간극론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간극론과 진화론은 아무런 상관 없이 있는데도 이를 연관시켜 비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심히 안타깝습니다.

간극론의 경우 John Gill, Pember, Larkin, Scofield, John Phillips, David Reagan, Jamex Knox, Peter Ruckman Samul Gipp 및 Watchman Nee등과 같이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소개되고 알려져 왔습니다.

이번 책은 저자의 확신에 따라 간극이 이론(Gap Theory)이 아니고 간극이 사실(Gap Fact)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다른 어떤 자료들이 아닌 오직 성경을 성경으로(고전2:13) 비교함으로써 명백한 진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편견과 사심 없이 읽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주안에서 진리침례교회

김영균올림

머리말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본서는 ‘유신론적 진화’를 설파하는 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긴 하셨지만(창 1:1) 그 뒤에 수백만 년 동안 만물이 진화해 왔다는 설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시간의 흐름(process)’과 함께 등장하는 것들은 자기 의(창4:3), 죽음(창 38:12; 출2:23), 전쟁(삿11:4), 질병과 죽음(대하21:19) 따위이다. 성경에 진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진화”의 산물 같은 것도 성경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날의 창조론자들이 바른 성경 신자들의 성경 해석(혹은 바른 성경적 관점)을 유신론적 진화라고 치부하는 것은 오해이며 겨우 롬5:12를 근거로 창1:2가 말하는 간극을 부인하는 허술한 논리의 산물일 뿐이다. 성경대로 믿는 바른 관점을 진화론과 연관시키면서 성경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거짓 고소요 허위 진술이며 건전한 교리를 대적하는 공격이다(딤후4:3). 게다가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를 은폐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획”(행20:27)을 가르치지 않는 죄를 범함으로써, 자신들의 선교 사역을 스스로 거스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간극”이란 창1:2에 등장하는 성경적인 교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1절과 3절 사이에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다. 그 문맥에서 “간극”(gap)이라는 단어 자체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간극이란 창1:1의 첫 창조와 3절에서 시작되는 엿새간의 재창조 사이에 벌어졌던 심판을 내포하는 단어이다.

“간극”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심판이 없어지지는 않으며, ‘역사적 또는 예언적 연결고리가 있는 두 사건 사이의 간극’에 대한 성경 용례가 송두리째 부정되지도 않는다. 이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경 교리가 부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단일 구절에 통째로 완전히 설명해 놓아야 할 의무가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을성 있게 “연구하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지” 그들을 시험해 보실 것이다.

고전15나 살전4:16-18에서 “휴거”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엄연히 가르치는 “들려 올라감”이라는 교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런 것처럼 성경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창1:2에서 홍수가 있었음이 밝혀질 것이다.

ICR(미국 창조과학회; Institute for Christian Research)의 헨리 모리스, Creation Science Evangelism의 켄트 호빈트, 켄 함, M.H. 탭 등 간극을 반대하는 창조론자들에 의해 많은 자료들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학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무지로 인해 성경의 여러 구절과 단어들에서 잘못을 범했다. 켄트 호빈트는 간극을 아예 “불신”이라고 정죄하면서 이것이 “공산주의, 인본주의, 나치즘”의 근간이 되었다고까지 비난을 늘어놓았다.

이 사람들은 성경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유신론적 진화만을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평이한 진리도 대적인 채, 편협하고 주관적이며 결국 진화론과 별 다를 바 없는 가설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자기 중심적일 뿐 성경적이지 않다. 한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정확하게 이런 형태이다.

이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성경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역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과학”이라는 분야를 다룬다면 더욱 그러하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남겼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네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딤후2:20)

우리는 본서에서 사탄의 계략(딤후2:11)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이 설 것이다.”(잠19:21. ‘계략’ 과 ‘계획’ 은 모두 영어로 device임)

창조 ‘과학’이라는 것은 보수적인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탄의 또 다른 계략이다. 진화론과 공산주의라는 흥측한 사상이 대두된 이래로 성경 신자들은 그것들을 반대하는 설교를 해왔다. 그런데 간극 반대자들은 자신을 “창조론자”라고 부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진화론과 타협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들이 착각하는 것도 자유이다.

간극 반대자들은 창조를 옹호하는 반면 간극은 “이론, 학설”일 뿐이라고 치부하며 부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끊어진 연결고리”(missing links)들을 만들어 낸 주범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와 진화론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었듯이, 저 “창조론자”들은 고의이든 부지중이든 성경 해석에서 수많은 연결고리들을 끊고 빈틈을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전통적인 성경 신자들을 기독교계의 “주류”에서 교묘하게 밀어내는 데 어쩌면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오류를 전에도 다룬 적이 있다. 오순절 교회 사람들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최초의 증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 그들은 크리스천이라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오순절 때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하며 방언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그저 “영적 허세”일 뿐이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딤후2:15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 연구하라”라는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영적인 활동을 하고자 했으나 영락없이 육신의 방향으로 빠지게 됐다.

오순절과 은사주의 운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방언과 기적, “거룩한 웃음” 등을 행하게 했다. 그들은 “성령님”과 성령의 선물에 대해 알고자 했으나 실제로는 성령에 대해서 극도로 가장 모르는 가련한 크리스천으로 전락했다. 이 나약한 크리스천들은 기독교계 내부에서 벌어진 세계 최대 규모 운동의 주역이 되었다. 그들은 성경을 나눌 줄을 몰랐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거룩’을 추구하는 다른 무리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거룩함

과 “성결함”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자기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고(요일3:9) 합리화하는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뿐이었다. 이것도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이었을까? 그들 역시 성경을 나누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다(딤후2:15).

다음으로는 근본주의자라고 불리는 진영이 등장하여 오로지 복음 전도만이 교회의 존재 목적의 전부인 것처럼 행세했다. 주일학교가 커지면 교회도 덩치가 커진다. 큰 교회는 존재감이 큰 이름을 세상에 남기며(계3:1) 어떤 일을 벌여도 대규모로 할 수 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교계에서 정통을 표방하고 교회들의 롤모델이 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입으로만 신자 행세를 하는 세속적이고 배교한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영적으로 위태로운 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 인디애나 주의 해먼드에 있는 제일 침례 교회의 전직 목사인 잭 스카프는 장인인 잭 하일스 목사가 남겨 준 작은 구멍을 활용하여 장인의 이단 교리를 온통 만연시켜 놓았다. 하일스는 훗날 권위역 성경의 최종 권위를 인정하는 증언을 뒤늦게 남기긴 했지만 이것이 스카프에게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일스의 동역자 중 한 명은 성경을 뜯어고치던 사람인 존 R. 라이스였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복음 전도를 성경(시138:2와는 대조적으로)보다도 더 중요한 1순위 목표라고 생각했다. 스카프는 하일스가 나중에 고백한 성경관에 결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먼 과거에 ‘원어’ ‘원문’ 형태로만 존재했을 뿐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로써 그는 딤후3:16이 현재형 시제로 말하는 “거룩한 성경

기록”에 관한 교리를 부정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는 제대로 된 근본주의와는 어울릴 수 없는 ‘신복음주의’ 성향이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분리” 교리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바리새인들의 모습 정도에 불과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했다(막7:13). 그들은 근본주의를 초월했다면서 “경륜”, “바르게 나눔” 같은 성경 용어들을 복음 전도와 목사의 권위 유지 등의 명목으로 모조리 저버렸다. 성경이 말하는 침례의 진짜 의미나 구원의 목적 같은 것도 안중에 없다. 그러고도 이를 회개하고 이런 관행을 근절하려는 의지를 일명 ‘초근본주의’ 진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 그들은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였다.”(막7:13)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복음 전도를 1순위 목표로 두느라 성경을 바르게 나누는 일에 게을렀다는 점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재림, 성경의 무오성 같은 일부 “근본주의 교리”를 믿는다고 스스로 자랑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조차 모르는 상태이다(사 66:2; 딤후2:15; 사28; 고전 2:13).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성경의 무오성이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 오류가 정말로 없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간한 “초근본주의의 위험성”이라는 책도 참고할 것.]

하나님은 자신의 영감이 담긴 영원한 말씀들을 국제어인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1611)이라는 “번역본”(히11:5)에 고스란히 보존해 놓으셨다. 근본주의 신앙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신다고 믿는 것이다(시12:6-7; 138:2).

다시 본론으로 돌아온다.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자기 주장을 뒷받침

하는 빈 칸을 채우고, 반대로 공산주의와 진화론에 존재하는 빠진 고리들을 찾아내려 노력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바른 방향으로 사역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실제로는 빈 칸과 빠진 고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만들어 내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 규모는 독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 본서에서는 앞으로 ‘젊은 지구’라는 말을 빼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창조론자라고 줄여서 일컫겠다.

창조론자들은 자신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딤펴6:20) 창조를 증명하고 진화를 부정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성경 밖에서 가져와 활용할 때는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태도는 대단히 비과학적이다 못해 심지어 그들이 반대하는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바뀐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사전을 사용하여 킹 제임스 성경의 어휘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학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으려는 시도가 횡행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본서에서는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해석의 최종 권위로 결코 두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1장의 첫 몇 구절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와 관련된 자료는 이미 충분히 구할 수 있다. 히브리어 본문을 참조하면서 간극을 입증하는 주석 성경 역시 대단히 많다. 하지만 그런 자료들은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거의 언제나 킹 제임스 성경을 개정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으로 끝난다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러운 점이다. 자신의 원어 실력에 도취하는 바람에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모든 면모에서 절대적인 최종 권위로 믿지 못하게 되고, 이로써 성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도 덩달아 놓치게 된다. 그들도 그걸

선뜻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학자들의 진영”에 침투해 있는 거짓말하는 영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바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으로 성경을 뒤집어엮는 것이다. 그에 반해 실은 원어 원문이 성경과 모순되는 경우, 성경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성령님의 판결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너무 단순한 나머지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마11:25)에게서는 감춰져 버렸다. 행12:4에 있는 “이스터”가 배교자들의 행적을 뒤엎어 버리듯, “옮겨짐”(translation, 삼하3:10; 골1:13; 히11:5)이라는 단어도 동일한 작용을 한다. 이것이 1611년 이래로 번역본이 “원문”보다 더 나올 수 있음을 현대인에게 입증해 보이는 표식이다.

Arthur C. Custance (1910-1985)는 히브리어 본문을 이용하여 간극 교리를 증명하는 “형태가 없고 빈 땅”이라는 방대한 저서를 남겼다. 비록 그도 종교 개혁 본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오류를 답습하긴 했지만, 그는 창1:2에 “간극”이 존재한다고 믿은 사람들이 신약 교회의 역사상 꾸준히 있어 왔다는 점을 잘 논증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인 사역을 하고 구호를 외쳐서 생겨난 소수의 사건이 아니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불확실한 이야기기도 아니며, 당연한 진리를 담은 교리로 오랫동안 통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니 간극 교리가 비교적 근래에 새롭게 고안된 견해라는 말은 중상모략일 뿐이다.

또한 우리는 아주 단순명료한 성경의 해석을 두고 꼭 창조론자 켄트 호빈트가 하는 것처럼 웨스터 사전의 정의를 참고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성경을 펴서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직접 말씀하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응당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분께 약간의 시간과 인내를 투자하면 그분은 킹 제임스 성경의 “평이한” 단어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소통의 장을 여실 것이다.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는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plain)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르도다.”(잠8:8-9)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궁극적인 해설자이며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이다(창40:8; 단2:27-30; 눅24:44-45; 요16:13; 벧후2:19-21). 명철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하게 믿는 마음과 자원하는 영(왕하22:18-19; 시119:18; 요7:14-17) 엠1:18; 살전2:13)이다. 부정직한 학자들은 자신의 편견과 취향에 맞게 성경의 말씀을 뜯어고친다(렘42:1-20; 겔14:1-9; 롬1:25; 고후2:17). 진화론자,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학자, 배교한 근본주의자, 라오디게아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다 이런 식으로 권위역 킹 제임스 성경의 말씀들을 잘못 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내용만 원하고 부정적인 내용은 거부하는, 쉽게 말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는 잘못을 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검이며 진리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모두 갖고 있다(합2:1; 히4:12; 약4:12). 그리고 부정적인 진리가 긍정적인 진리보다 먼저 나온다(렘1:9,10; 학1:13; 딤후3:16,17; 4:2-4).

우리는 성구사전(성경 용어 색인)을 동원하여 다수의 성경 구절들을 탐

구하고 연구할 것이다(요5:39). 고전2:13에 의거하여 성경의 각 부분을 맨 첫 장부터 면밀히 ‘비교’ 할 것이며, 사28:10, 13에 따라 이 작업을 ‘반복’ 할 것이다.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그리고 딤후2:15에 따라 ‘분할’ 을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도록 만들 것이다.

‘창조론자’ 에 속하는 형제들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요5:39)라는 말씀의 적용 대상에서 창세기의 첫 두 장은 제외하라고 얘기하는 듯하다. 특히 1장의 첫 세 절은 자가해설을 해 줄 그 어떤 관련 구절도 절대로 찾지 말고 그대로 무조건 고립시키고 봉인이라도 해 놓기를 원하는 것 같다. 우리는 생략이라는 그들의 “조언” 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여기서 이브 이야기가 떠오른다. (창3:2)]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을 빠짐없이 송두리째 “탐구” 할 것이다. “성경 기록” 들은 진리를 구성하는 몸체이며 “깨뜨려질 수 없다.”(요10:35) 성령님 자신이 거듭 계시해 주시는 단어와 절들을 갈라 놓고 고립시키는 행위는 그저 도둑질일 뿐이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제1장

간극 반대자들의 거짓 고소

거짓 고소는 마지막 날에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 내부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당당히 예고된 일이다(딤후3:3). 거짓 고소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기본적인 요령을 아직 잘 모르는 많은 사람의 입을 이용하여 사탄이 구사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리고 간극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경의 맨 첫 장에 등장하는 분할의 원칙과 간단한 과학 법칙을 무시함으로써 창1:2에 등장하는 간극과 대격변, 그리고 부정적인 사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M.H. Tabb가 저술한 히브리서 주석과 “간극 이론”이라는 책자를 보면, 성경이 스스로 명시하는 곳에서 성경적인 분할을 못 한 무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서에서는 간극에 대해 논하면서 Tabb의 책자를 인용할 것이다.

대다수의 간극 반대자들은 간극을 믿는 사람들이 죄다 하나같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거나 “과학적 진화”라는 미명 하에 진화를 성경과 절충하고 타협시키려 하는 줄 안다. 그러나 머리말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간극 반대자들은 오로지 유신론적 진화론만을 부정하기 위해 성경이 말하는 평이한 진리를 대적하며, 편협하고 주관적이고 결국 진화론과 별 다를 바 없는 가설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 사탄이 성경에서 일부 구절만 뽑아내어 거짓말을 잘하긴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그저 자기 중심적일 뿐 애초에 성경적이지 않다. 한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진리를 왜곡하거나 남을 거짓 고소하고 중상모략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그런데 M.H. Tabb (플로리다 Fort Walton Beach의 목사)이 저술한 책자가 정확하게 이런 부류에 해당한다.

본서에서는 Tabb이 늘어놓은 거짓 고소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모든 간극 지지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수백만 년이 되었다고 절충해서 주장하며, 이로써 진화론을 수용한다.” (〈간극 이론〉, p. 6)

아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최소한 필자가 아는 간극 지지자들은 진화론을 결코 수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유신론적 진화론의 지지자가 아니다. 단지 Tabb이 유신론적 진화론과 건전한 성경 교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의 주장의 정반대가 맞다. 성경은 딤후2:15에 명시된 대로 분할을 언급하지만 간극 반대자들은 이를 따르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맨 첫 장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성경을 성경으로 서로 비교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창1:1-1:3까지 포함하여 성경을 성경으로 비

교해야 한다. 필자는 성경 신자이며 성경은 진화에 대해서는 그 비슷한 것조차도 지지하지 않는다. 모세, 다윗, 이사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 등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창조를 믿고 오로지 창조에 대해 기록을 했지 진화는 전혀 믿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본서에서 다룰 분할의 원칙과 더불어 간극을 믿었다. 진화론을 명백하게 부정하는 성경 신자들을 죄다 “성경을 과학 가르침과 절충·조화시킨다”고 누명을 씌우는 일은 성경이 말하는 거짓 고소(딤후3:3)에 해당한다. 이것은 사탄적인 일이다. 사탄이 바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계12:10)이기 때문이다.

M.H. Tabb의 다른 거짓 고소들은 다음과 같다.

거짓 고소 #2

“그러므로 간극 이론의 목적은 성경을 현재 수용되는 과학 가르침과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필자는 간극을 믿는 성경 신자들 중에 ‘현 세상에 속하는 지금 이 지구’의 나이가 7-8000년, 최대한으로 잡아도 1만 년보다 더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거짓 고소 #3

간극 반대자들은 자기 논리를 방어하는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에는 수십억 년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긴 기간에 대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구와 우주가 수십억 년 동안 존재했다는 현대 과학의 신념과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 서로 조화

를 이룰 수 있는지를 여전히 궁금해한다.”

“간극 지지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논할 때 수백만 년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한다.”
Dr. M.H. Tabb (<간극 이론>, p. 6)

창조론자들은 누가 간극을 믿는다고 하면 유신론적 진화론자인지 혹은 참된 성경 신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전자는 ‘지금 이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고 주장하지만 후자는 현 세상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한다면 역시 창조론자와 마찬가지로 지구의 나이가 6-9천, 또는 1만 년 남짓이라고 믿는다.

거짓 고소 #4

“간극 이론은 노아의 홍수가 남긴 증거들을 부정한다. 화석이라고 전해지는 것들이 일명 ‘루시퍼의 홍수’ 때 생겼다면 그럼 노아의 홍수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이런 점에서 볼 때 간극 지지자들은 노아의 홍수를 사실상 아무 흔적도 남지 않은 국지적인 사건으로 격하해야만 하게 된다.”

이것도 큰 오해이다. 필자가 아는 참된 성경 신자 중에 노아의 홍수가 평범하고 국지적인 홍수였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온 땅을 뒤덮은 대규모 홍수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매우 단순한 진리이다.

거짓 고소 #5

간극 반대자들은 간극 지지자들이 아담 이전에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았

다고 가르치는 줄로 안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며, 필자는 아담 이전에 이 땅에 다른 인류가 존재했다고 가르치는 성경 신자를 알지 못한다. 창 1:28에서 아담이 등장하기 전에는 아담과 동일한 ‘인간’이라는 인격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인간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인간과 비슷하고 인간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시82:7) 인격체는 있었으며 이들은 아담과 이브보다 먼저 만들어졌음이 명백하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홍수를 내려서 인간들을 모조리 쓸어 버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부터 인류 계보를 재시작하셨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홍수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하나님의 아들”(눅3:38)인 아담에 의해 땅의 역사가 재시작 되었다는 점에서 예표적인 의미가 있다. 킹 제임스 성경(1611)을 펴서 성경을 성경으로 끈기 있게 비교해야만 이런 명확한 계시를 얻을 수 있다.

거짓 고소 #6

간극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근거로 제시한다는 말이 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찰머스(Chalmers 1780-1847)의 주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히브리어 원어에 따르면 킹 제임스 성경의 창1:2에 나오는 “was”는 오역이기 때문에 “became”이 되어야 하며(땅은 형태가 없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간극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찰머스가 이런 주장을 한 의도는 당대의 최신 과학 이론이던 다윈의 진화론을 성경과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이런 논리대로라면 Chalmers 이래로 라킨, 스코필드, 핑크 등 창1:2의 간극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근간부터가 송두리째 잘못된 셈이 된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그 어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도 들먹이지 않고, 라킨이나 스코필드나 핑크 등 그 어느 누구도 인용하지 않고 “이전 세상”(벧후3:6)의 멸망과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얼마든지 입증해 보일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오히려 간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내지 그리스어와 원어 사전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은 내장 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이도 자신의 용어들을 스스로 풀이해 낸다.

현대의 ‘창조론자’들이 ‘간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고소를 일삼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세속 과학과 조화시키는” 자들은 참된 성경 신자(간극을 믿는)가 아님을 보일 것이다. 반대로 간극 반대자들이야말로 이 마지막 날에 “빠진 연결고리”(인본주의적인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용어)를 더 많이 만들어 내고 그리스도의 몸의 내부에 “어둠”과 혼동을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현대의 근본주의자들은 하늘들(복수) “위에” 물들(복수)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한 궁창”(창1:6. 부정관사 a)을 둘째 하늘에다 만드셨으며, “그 궁창”(창1:7. 정관사 the)은 “물들의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첫째 하늘)을 궁창 위에 있는 물들(둘째 하늘)로부터 분할했다. 그보다 더 위에는 8절이 말하는 “하늘”이 있다. 다윗은 이에 대해 기록했으며(시148:4), 욥도 이를 언급했다(욥26:7,13; 38:30). 성령의 영감을 받은 여러 성경 저자들은 아득히 멀리 떨어진 궁창의 위에 물이 있다는 것을 수차례 증언했다. 이것은 인간의 의심의 그림자를 아득히 초월하

는 진술이며, 단순히 지구의 대기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켄트 호빈트, M.H. Tabb 같은 사람들은 성경 교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 부분의 해석에서 지구 대기권 영역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이기는 하지만, “과학”을 표방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경고한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딤후6:20)의 오류에 빠졌다.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정리하면 이러하다. 첫째, 찰머스 진영은 “지금 이 지구”의 나이가 수백만 내지 수십억 년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둘째, 캄캄하고 형태가 없이 텅 비었다는 표현은 지구가 갓 만들어진 최초의 상태에 대한 묘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순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고전2:13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듦에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창1:2를 보니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고 한다.)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땅에는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었다. 단지 그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욥38:4-7)이 있었을 뿐이다.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하도록 하겠다.

거짓 고소 #7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태양이 지구보다 먼저 생겨났다고 믿는다.”

(Tabb, 〈간극 이론〉 p. 74)

먼저 표현을 정정할 것이 있다. 간극은 언제든지 반박될 여지가 있는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굳건한 성경 교리이다. 그리고 Tabb은 이번에도 간극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단일 가설을 지지할 것이라는 편견 속에서 거짓 고소를 하고 있다.

태양은 이 땅보다 먼저 창조되지 않았다. 태양은 “의의 태양”인 예수님의 예표로서 넷째 날에 창조되었다.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넷째 천 년에 해당하는 시기에 이 땅에 오셨듯이 말이다. Tabb은 우리가 다 스코필드처럼 생각하는 걸로 간주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스코필드는 창1:2에서 간극을 짚어 낸 것까지는 옳지만, 창1:16에서는 통찰력이 부족했다.

다음 표는 필자 및 여타 성경 신자들의 견해가 창조론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요약한 것이다. 본서를 읽어보면 성경적인 근거에 따라 여러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구분	창조론자	성경 신자
1	문자적인 24시간짜리 하루와 6일 창조를 믿는다.	역시 문자적인 24시간짜리 하루와 6일 창조를 믿는다.
2	지구의 나이가 젊다고 믿는다.	‘지금 이 지구’(히11:3)의 나이는 젊다고 믿는다.
3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

4	성경을 공부한다고 믿는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함”을 믿는다. 창1:1,2,3을 포함해 계 22:21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이 그 대상이다.
5	성경 구절들을 비교하는데(고전 2:13) 창1:2는 “제외하고” 비교한다.	모든 성경 구절들이 비교 대상이다. 창1:1-2는 특별한 주목 대상이다.
6	6000년쯤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단 하나의 세상만이 있다고 믿는다.	히1:3; 11:3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 ‘세상들’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지금 ‘현 세상’이 약 6000-8000년쯤 됐다.
7	성경이 스스로 분할을 명시하는 곳에서도 성경을 나누지 않는다.	성경이 분할을 명시하는 곳을 그대로 인지하고 따른다.
8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명목상 말은 그렇게 한다.	“모든 말씀(word 단어)”라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이행한다.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 “형태가 없음”, “비어 있음”, “물들”, “깊음의 표면”, “세대” 같은 단어들을 엄밀하게 강론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창조론자”라고 해서 참된 성경 신자일 수는 없다. 하지만 참된 성경 신자라면 반드시 창조론자가 됨을 알 수 있다.

제2장

분쟁의 핵심인 롬5:12이라는 걸림돌

성경을 펴서 간극이라는 분명한 팩트(사실)를 강론하기에 앞서, 우리는 많은 근본주의자들이 창1:2에 나오는 간극을 왜 부인하며 이 땅에서의 6일 재창조도 왜 부정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롬5:12이다. 물론 그들은 계21:1 말씀도 살펴보겠지만, 이미 성경의 다른 여러 말씀들을 부정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21:1은 성경 전체의 조명을 받으면서 롬5:12와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우리는 계21:1에 대해서 14장에서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오늘날의 젊은 지구 ‘창조론자’ 들이 가장 크게 실족하는 걸림돌 중 하나는 롬5:12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는 이 땅에 죄와 사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는 구절이다.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야기된 죄, 사망, 악 따위가 없었다는 얘기이다.

Tabb은 사망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망은 인간에 의해 들어왔다. 사망은 죄의 결과이다. 지구상에 죄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유입되었으며 그의 정체는 아담이다. 그러니 아담 이전에는 사망이 없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간극 이론은 설 자리를 잃지만, 이것 말고도 간극을 부정하는 근거는 여럿 있다.”

(〈간극 이론〉, p. 9)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분명히 동의한다. 그러나 Tabb은 아담보다 먼저 이브가 죄를 지었으며, 이브보다도 먼저 마귀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독자 여러분은 죄와 사망이 아담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는 본서에서 이 주제에 대해 더욱 자세히 다룰 것이다.

간극을 반대하는 형제들의 문제는 그들의 대안이 서로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탄이 타락한 시점을 말해 보라고 하면 일부는 6일 창조 중의 둘째나 셋째 날이라고 말한다. 심지어는 놀랍게도 아담이 타락하기 직전까지 사탄은 타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극단주의자도 있다. 사

탄의 타락 시기에 대한 견해가 일치할 수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1:1부터 시작해서 옛세 동안 단번에 창조하셨으며, 2절에는 아무런 “단절”이나 “간극”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2, 4-8절이 누구라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부정적인 심상으로 가득하다는 것에 무지하다. 성경을 일부러 긍정적으로 몰타기를 해서 보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이 말이다. 마치 사탄의 “참으로(긍정적인 심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냐?”라는 꼬드김처럼, 2절 하나만 봐도 부정적인 심상이 네 군데나 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를 하나씩 분해해 보자.

1. “땅은 형태가 없고” - 부정적이다.
2. “비어 있으며” - 부정적이다.
3. “어둠은” - 부정적이다.
4.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 부정적이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임)

이런 구절을 하나님의 다음 말씀과 도대체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45:18) 창1:2로부터 얻는 심상을 다시 살펴보면,

“땅은 형태가 없고” - 부정적이다.

“비어 있으며” - 부정적이다.

“어둠은” - 부정적이다.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 부정적이다.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 같은 표현과 같은 심상이라고 생각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 둘을 조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중간 과도기 과정’ 인데, 이것은 곧 창조론자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진화’와 개념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그들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리위야단의 정체에 대해서도 또 다른 “빠진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그들은 리위야단이 악어인지 코끼리인지, 고래인지 하마인지 분간을 못 하며, 사탄 자신이 머리 일곱 달린 바다 괴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도 나중에 더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간극 반대자들이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 구절은 롬5:12이다. 그런데 아무라도 자기 신념을 입증하기 위해 성경을 끌어다 쓸 수 있으며 이것을 성경 교리라고 내세울 수 있다. 칼 마르크스는 행2:44와 4:32를 근거로 공산주의를 주창했다. 히틀러는 “신학적인” 명분을 내세워 대략 7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을 학살했다. 구소련의 스탈린은 거의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수용소로 보내어 죽였는데 여기에도 다 “그럴싸한” 구실이 있었다. 피로 물든 음녀인 로마 가톨릭 교회(계 17-18)는 “신학적인” 명분을 내세우면서 세계의 왕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언제나 약간의 진리에다가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무지하고 순진한 크리스천들을 농락해 왔다. 이

단이란 약간만 비틀어 놓은 진리일 뿐이다.

간극 반대자가 설명하는 창조 과정

간극 반대자가 하늘과 땅의 창조에 대해 풀이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창1:1-2는 있는 그대로 단순히 읽으면 된다. 먼 옛날에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은 처음엔 형태가 없고 텅 비었고 어두컴컴한 상태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위에 계셨다.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를 통해 세상은 나머지 옛세 동안 점진적으로 조금씩 형태를 갖추고 채워지기 시작했다. 토기장이가 꽃병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토기장이가 처음으로 하는 일은 재료인 찰흙을 구해 오는 것이다. 찰흙은 재료로서는 좋은 상태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아직 아무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 토기장이는 물레를 돌리며 찰흙을 빚어서 꽃병 모양을 만든다. 찰흙이 형태가 갖춰진 뒤엔 그는 꽃병을 말리고 유약을 칠한 뒤 가마에서 굽는다. 이렇게 완성된 꽃병은 꽃이나 물로 채워질 일만 남았다.

이 모든 과정의 중간에 뭔가 악하거나 나쁜 일이 개입할 여지란 존재하지 않는다. 형태가 없고 채워지지 않은 것은 그저 미완성 상태를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이 형태를 갖추고 채워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좋다는 평을 드디어 받게 되었다.”

(ChristianAnswers.Net 사이트에서 발췌)

“참으로...”(창3:1) 훈훈하고 달콤하고 긍정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성경 본문을 인간의 생각대로 해설한 것일 뿐, 구절과 구절을 비교

함으로써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읽어 낸 게 아니다. 이것은 그저 종교놀이용으로는 적절한 이야기일지 모르나 비교(고전2:13), 나눔(딤후2:15), 그리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반복(사28:10,13)이라는 성경 공부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모세는 분명히 땅은 “**형태가 없고**[부정적임] **비어 있으며**[부정적임] **어둠은**[부정적임] **깊음의 표면 위에**” 있다고 기록했다. [저들은 여러분에게 “깊음의 표면”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무엇이라고 나오는지 알려 주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창1:2를 구성하는 네 개의 명사 및 형용사들은 성경의 다른 곳을 통해 정확한 심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로써 성경을 성경으로 풀이할 수 있다. 고전2:13처럼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면 사람의 사적 해석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풀이를 명백하게 해 주시니 인간의 해설(라오디게아)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할 수 있다.

사45:18을 다시 보자.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주 하나님은 땅을 저런 황폐한 상태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45:18의 “헛되이”와 창1:2의 “형태가 없고”는 히브리어로 동일한 *tohuw*이다(물론 이 주제는 원어까지 가지 않고 킹 제임스 성경의 영어 수준인 *without form and void*만으로도 충분히 논증 가능하지만, 참고만 하라는 차원에서 히브리어를 잠시 언급하였음을 밝힌다). 히브리어로든 영어로든 두 구절을 비교하여 바르게 나눈다면 현재 많은 형제들이 지지하고 있는 ‘젊은 지구 창조론’의 핵심 전제가 설 곳을 잃는다. 창1:2를 사45:18과 같이 비교해 보니 하나님께서 초기에는 지구를 아무 형

태가 없는 진흙투성이로 만들었다가 점차 모양을 내고 치장을 하는 식으로 창조하신 건 아니라는 것이다.

간극을 배제한 위의 창조 시나리오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창1:2에 대한 “깊음”에 대한 언급이 없다. (누락)
2. 창1:2-10에서 네 번 나오는 서로 다른 “물들”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다. (누락)
3. 성경은 다수의 “세상들”(히1:2; 11:3)에 대해 다루는 책인데 “세상”에 대한 구분도 찾아볼 수 없다. (누락)
4. 본문을 보면 “나머지 옛새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다. 글쓴이는 “6일 창조” 시기 이전부터 날 단위의 시간 프레임이 이미 형성돼 있었다는 것을 부지불식중에 인정한 듯하다.
5. 그 다음엔 “토기장이가 처음으로 하는 일은 재료인 찰흙을 구해 오는 것이다. 찰흙은 재료로서는 좋은 상태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아직 아무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하나님은 6일 재창조 기간 동안 언제나 결과물이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 재료(?)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6. “이 모든 과정의 중간에 뭔가 악하거나 나쁜 일이 개입할 여지란 존재하지 않는다.”
글쓴이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찾아 봤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7. “이것이 형태를 갖추고 채워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좋다는 평을 드디어 받게 되었다.”

저 말이야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다. ‘모든 것’ 이라고 하면 차별이 없는 진술이지만, 그렇다고 예외가 전혀 없는 것 역시 아니다(창1:6-9 참조).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창1:31)라는 말씀이 가리키는 대상은 옛새라는 재창조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창조물들이다. 하지만 “옛적부터 있었던 하늘들”(벧후3:5)은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벧후3:7)의 전신으로서 아담의 세상에서도 계속 존재해 왔다. 이 세상의 원조인 아담은 자기보다 먼저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은 이브를 따라 같이 타락했다. 그들보다 더 먼저 영적으로 죽은 신세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것이다.

“모든 것”과 노아의 홍수에 대한 성경적 계시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으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는 “모든 것(every thing)”의 용례를 성구사전을 동원해 찾아보자. 노아의 홍수 부분에서 이 표현이 유난히 반복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죽으리라.”(창 6:17)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살펴 보시라. 뭔가 이상한 낱새가 느껴지지 않

는가? 질문: 홍수 때 실제로 땅의 “모든 것”들이 죽었는가? 예, 그건 그렇다. 하지만 “땅 아래”에 있는 수중 동물들을 생각해 보자. 그것들은 죽었는가? 하나님께서 수중 동물들을 죽이셨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 젊은 지구 창조론자 진영에서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가 답이 나온다. [누락의 원조인 이브는 보고 있나?] 그 홍수와 관련된 성경 문맥에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수중이라는 범위를 포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모든 것”은 창6:17부터 창8:21까지 총 10번 등장하는데, 그 중 “땅 아래”의 동물이나 “바다의 물고기”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다. 다음을 보시라.

6:17 “...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6:19 “너는 모든 육체의 살아 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두 마리씩 ...”

“땅 아래”에 있는 동물이나 “바다의 물고기”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으며, 이는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나머지 구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6:20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두 마리씩 ...”

7:8 “... 날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 중에서”

7:14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날짐승 곧 모든 종류의 모든 새가 그것의 종류대로 들어가고”

7:21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라.”

8:1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

8:17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아가 ...”

8:19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날짐승과 또 땅에서 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

8:21 “...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9:3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

성경의 앞부분에서 등장하던 “바다의 물고기”(창1:26,28)에 대한 언급이 정말로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물고기” 및 “바다”와 간극과의 관계

유감스럽게도 ‘창조론자’ 친구들은 창1:26,28과 창9:2 사이에도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들의 문맥은 각각 아담과 노아가 동물들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으로 받는 상황이다. 이 두 언약의 사이인 창6:17부터 9:3 사이에는 바다의 물고기 같은 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간극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창1:26,28과 9:2)와 “공중의 날짐승”, 그리고 “온 땅”(over all the earth)과 “땅 위”(upon the earth)의 구분을 살펴보시라.

창1:26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창1:28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9:2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 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창1:26,28 (간극) 창9:2

두 언약은 노아의 홍수에 의해 나뉘어졌다.

아담과 노아의 언약 때 모두 그 유명한 단어 “다시 채우다(replenish)”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하도록 하겠다.

그러니 노아의 방주에는 동물이란 동물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들어있었던 것은 아니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지도 않았다. “모든”(every)이라는 단어는 ‘아무 차별 없이’ 라는 뜻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예외도 없이’ 라는 뜻은 아니다. 방주에는 공기로 호흡하고 땅에서 사는 동물, 기어 다니는 것, 날개 달린 새가 들어갔을 뿐이다. 수중 생물(물고기, 고래 등)이나 양서류 같은 것들은 방주 밖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수중 생물은 다섯째 그룹인 사탄(겔 28)의 예표이며 사탄이 어떻게 해서 전 우주적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것들도 노아의

홍수 때는 살아남았으니 말이다. 사탄은 리워야단이라는 수중 괴물인데 이 놈의 정체에 대해서는 15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저 “창조론자”가 창조와 관련된 자기 “신앙”을 고백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자.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를 통해 세상은 나머지 옛새 동안 ‘점진적으로’ 조금씩 형태를 갖추고 채워지기 시작했다.”

“세상이 점진적으로”라는 말부터가 필자에게는 영락없이 진화처럼 들린다. 창조가 과정이라고 그런다.

또한 그는 “나머지 옛새” 동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인즉 그 옛새 이전에 다른 날들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그는 모순에 빠졌다. 그는 창1:3의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대전제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해 버린 것이다. 단지 그는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를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 앞서 말했듯이 간극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창조를 진화와 절충하는” 사람이 아니다. 반대로 “창조론자”들이야말로 혼동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3장

문제의 근원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우리는 간단하고도 본질적인 한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간극”에 대해 견해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많은 형제들이 딤후2:15가 말하는 대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반면 성령님은 분할을 감행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바르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론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이행하는 것에 서툴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의 바로 다음 둘째 구절이 말하는 바를 전적으로 놓쳐 버렸다. 그 구절은 ‘분리(division)’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그 다음 4절에서 성령님이 이에 대해 언급을 하셨다. 이렇게 관점이 틀어져 버린 뒤부터는 이 주제와 아주 간접적으로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성경 구절들은 형제들에게 모조리 걸림돌이 된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켰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
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후4:4)

간극 반대자들은 성경이 명백하게 구분해 놓은 것들을 도로 흐트려 놓
았다. 그들은 벰후3:5-7에 언급된 서로 다른 두 세상을 동일한 세상이라고
제멋대로 합쳐 버렸으며, 그 결과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의 멸망을 동반하는
또 다른 우주적 재앙이라는 문맥을 바르게 해석해 내는 복을 놓치고 말았
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
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
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벰후3:7,10,12,13)

그러므로 간극 반대자와 간극을 믿는 성경 신자가 어디에서 관점 차이
가 발생하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한쪽은 롬5:12를 위해 딤후2:15를
저버린 반면, 다른 한쪽은 롬5:12의 내용과 무관하게 딤후2:15를 창1:2와 관
련 구절들에다 적용했다는 점이다. 만약 오늘날의 어떤 근본주의자가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절대적인 최종 권위로 인정

한다면, 그는 딤후2:15를 실직적으로는 거부함으로써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게” 된다. 그는 자신만의 교리 체계를 만들어 낼 것이다. 한편으로는 창조를 가르치면서(이것 자체는 훌륭한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끊어진 연결고리들을 더 많이 만들어 냄으로써 사실상 진화론을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비록 자기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말이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딤후3:7) “...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벧후3:16)

간극 반대자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한번 창조하셨으므로 (창1:1) 2절에서 무려 4중으로 언급된 부정적인 표현들이 실제로 부정적인 심상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3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엿새 동안의 재창조도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2절을 간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화론에 입각한 학설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구하는 사람들이 매우 흔하게 저지르는 잘못 중의 하나는 오로지 긍정적인 내용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내용은 거부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진리와 긍정적인 진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양 날 달린 검이다. 예를 들어 합2:1 말씀은 다음과 같다.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어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 받을 때에 무어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진리는 대체로 부정적인 책망이 선행한 뒤에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다음과 같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

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잠1:23) “내 책망을 듣기 돌이키라”라는 부정적인 조건이 충족된 뒤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뒤따르는 것이다.

부정적인 책망의 다음에 진리가 뒤따른다는 기초 원리를 다시 확증하기 위해서 딤후3:16을 보겠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으며 먼저 교리에 유익하다는 것을 선언하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단어가 바로 ‘책망’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 어떤 면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더 계시해 주는 구절이 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엡5:11) 이런 부정적인 심상은 창1:2에서 이미 암시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부터 분리하심으로서 어둠을 책망하셔야 했다. (창1:4)

어둠과 부정적인 심상이 한데 연결되었으므로 부정적인 것 뒤에 진리가 뒤따른다는 법칙에 대해서 또 첨언을 계속하겠다. 히4:12가 그 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검과 같아서 목적 역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직하고 겸손한 신자를 구원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를 멸하는 것이다. 이것은 야고보가 말한 것에 의해 뒷받침되기도 한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약4:12)

이것 말고도 성경 전체에는 이 법칙을 입증하는 구절이 얼마든지 있으니 이 주제는 일단은 접어 두고, 나중에 창1:2를 더 심도 있게 연구할 때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다.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렘1:9,10과 학1:13 정도를 더 찾아 보시기 바란다.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을 멸할 예정이시라는 것은 수긍하면서, 같은 논리로 그분께서 과거에 동일한 행동을 하실 수도 있었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창1:2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 성경은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없어질 거라고 말하며 동시에 그런 일이 과거에 이미 한번 있었다고 말한다. 성경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역사(창1:2)는 예언(벧후3:10-13)을 통해 연구 가능하며 미래는 과거를 연구함으로써 학습이 가능하다. 우리는 성경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사건을 통해 과거를 알고, 반대로 과거의 사건을 통해 미래에 있을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이 역사로부터 배우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역사로부터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경은 무궁무진한 책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과거 역사에 이미 예언되었으며 역사는 되풀이

되게 마련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아의 홍수와 땅의 멸망은 역사(과거)인 반면, 주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인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눅17:26)는 예언이다. 그리고 고맙게도 성경은 미래에 ‘하늘들’도 멸망할 거라고 가르치는데, 노아의 홍수 때에는 하늘들이 멸망한 적은 없었다. 그러니 더 과거에 이에 준하는 사건도 역시 있었을 거라고 짐작하는 것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도박이다. 이것은 성령의 영감하에서 솔로몬이 기록한 패턴과도 아주 잘 부합한다(전1:9; 3:15).

성경은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가장 위대한 예언의 책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대환난이 끝날 때)에 이 땅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예표로 노아의 홍수(전1:9)를 제시한다. 그렇다면 베드로후서 3장이 말하는 하늘들(복수형)과 땅의 멸망에 대한 예표는 정녕 무엇이 되겠는가? 일부 근본주의자로부터 선입견이 주입되지 않은 신자라면 아무리 바보라도 솔로몬의 “법칙”(전3:15)에 동의할 것이며 하늘들과 땅의 멸망에 대한 예표는 창1:1-2임을 덩달아 동의할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 하늘들과 땅에 내려진 심판으로, 벧후3:4-13이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벧후3:7)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복수형. 노아의 홍수 때는 변화가 없었음]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벧후3:10)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복수형. 노아의 홍수 때는 “하늘들”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적이 없음]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복수형. 노아의 홍수 부분은 눈에 불을 켜고 읽어 봐도 하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벧후3:12-13)

이 정도만 해도 홍수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 중에는 롬5:12라는 커다란 “갈고리”에 꿰여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번 걸려 넘어져 버린 뒤에는 다시는 제 발로 일어서지 못한다. 많은 근본주의자들에게 롬5:12는 굉장한 걸림돌인데, 이는 마치 행2:38이 가톨릭, 정교도, 그리스도의 교회, 개신교, 장로교 등 물침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믿는 많은 종파들에게 걸림돌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들은 딱 한 구절(행2:38)을 사수하기 위해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을 죄다 무시한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신자들이 행위로 구원받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구약 시대)와 미래(십자가에서부터 계22:21까지)도 모두 구원 방식이 그렇게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아무 행위를 하지 않고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다고 말하는 구절이 성경에 술하게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안중에 없다. (행8:37; 10:44; 13:38,39; 15:9,11; 16:31; 롬 4:4,5; 5:1; 6:23; 10:9,10,13; 11:6; 갈2:16,22; 엡2:8,9 등)

근본주의자들 중 다수는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다른 극단 성향으로 흐른다. 그들은 성경에 다양한 구원 방식이 등장한다는 것을 외면한다(겔

3:20; 18:5,9,19,22,24,26; 마5-7; 행2:38; 히 6:4-6; 계12:17; 14:12; 22:14). 그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라는 명령에 있다.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부정적인 어조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들의 문제가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 시대 전기간 동안에도 죄인들이 신약 시대 전기간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았다고 믿는다. 경륜의 구분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다. 그런 근본주의자들에게 “경륜(dispensation)”이라는 단어는 마치 성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입에 담지 못할 비속어로 여겨졌던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가톨릭과 근본주의라는 양 진영은 교리가 다르지만 문제의 원인은 동일하다.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는 부정적인 명령을 무시한 죄이다. 간극 반대론자들은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세대주의도 반대한다. 왜냐하면 세대주의는 곧 나눔(분리, 분할)을 수반하며, 올바르게 나누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딤후2:15)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구원 방법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성경 자체가 구조적으로 두 종류의 상속 언약으로 나눌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간극을 반대하는 오늘날의 ‘창조론자’들이 처한 문제의 유형은 성경에서 이브도 경험한 적이 있을 정도로 내력이 길다. 이브는 하나님의 경고를 업신여김으로써 속임수에 속았다. 하나님은 “...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반면 그녀는 말씀을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라고 잘못 인용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심판의 수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브는 순진하게 자기 식대로 행동했으며 아담까지 범죄에 끌어들었다.

그리고 보니 부정적인 심판 경고를 무시한다는 점에서는 현대의 ‘창조론자’는 심지어 여호와와 증인파도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창1:2가 언급하고 미래 사건인 렘4:23이 부연 설명까지 해 놓은 부정적인 심판 장면을 간과한다. 렘4:23의 경우 그야말로 과거를 설명하는 계시의 열쇠(눅11:52)인데도 말이다.

파멸에 대한 암시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 세상에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나 그런 설정은 굉장한 모순을 야기한다. 가장 먼저 이브가 지은 죄와 마귀가 지은 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할 수가 없어진다. 여자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틈타게 되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사탄의 행로를 슬며시 은폐하게 된다.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은 욥 41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괴물인 사탄을 그저 “지구”라는 이 자그마한 행성에서 서식하는 평범한 맹수 정도로 왜곡해서 가르치며, 간극 반대자들은 다수가 실제로 이렇게 믿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죄에다 면죄부를 남발하는 나쁜 빌미를 제공한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며, 특히 여자가 죄에 관여했을 때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는 여자가 자기 남편을 부당하게 고소하여 자녀 양육권을 독차지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살인 누명을 씌울 수도 있다(이세벨, 들릴라처럼). 아담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는 바람에(창3:17) 이브의 “양성 평등 운동”을 끌어들이고 말았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라는 말은 이브

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담은 좋게 말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 죽었다”라는 식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프로파간다를 무분별하게 허용해 버리는 죄를 지었다. 이에 남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카리스마 은사 운동, 물론, 크리스천 사이 언스처럼 여자가 새로운 교파를 창시하거나 그런 일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기도 하며, 강단에는 여자 목사가 등장하기까지 했다. 완전히 엉망진창이다.

그들은 이브의 죄와 심판을 간과함으로써 또 다른 존재의 죄까지도 놓쳐 버렸다. 그렇다, 바로 사탄의 죄이다. 그들은 롬5:12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괴물인 리워야단이 실존한다는 사실마저 부인하고 말았다. 둘째 하늘을 두루 지배한다고 욥 41이 말하는 그 괴물 말이다. 리워야단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주님의 도움에 힘입어 간단한 것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아담의 죄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가 온 인류의 “머리”이며 죄를 “온 인류에게 전가시킨”(롬5:12) 주범인 건 틀림없음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근본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아담이 죄라는 걸 창세 이래로 최초로 지은 인격체라면, 그런 해괴망측한 논리는 일명 “창녀” 종교 내지 이단 교리를 창시하게 된다. 이것은 잠30:20에서 솔로몬이 기록한 바와 같다. “간음하는 여자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 자기 입을 씻고는 말하기를, 내가 사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구절의 주어는 간음하는 여자이다. 창녀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 그녀는 누군가와 잘 놀아났을 테니

분명 먹잇감이 있었다. 그렇게 잘 먹은 뒤에는 입 싹 씻고 “내가 사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발뺌하는 것이 그녀의 습성이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이브 쪽에는 죄도 죽음도 심판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수많은 근본주의자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녀가 사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자의 “직무”가 킹 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보다 더 중요하다. 그녀에게는 자기 “고객”들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이름”과 “명성”이 “밥줄”인 반면, 성경은 이와는 다른 관점을 말한다(시138:2 참고).

이런 패턴은 제17:1-6이 가리키는 큰 음녀인 로마 가톨릭 교회에다가도 적용 가능하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최소 수천 명 이상의 참된 크리스천들을 죽이고는 입 싹 씻고 “내가 사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발뺌하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법이며 모든 이단들은 궁극적으로 창녀들의 어머니인 로마에 다다른다. 현대의 근본주의자들은 그때 죄가 없었고(요일3:4) 범법이 없었고(딤후2:14) 유죄 판결과 사망이 없었고(롬6:23), 속임수가 없었고(딤후2:14), 사기 행각도 없었다고(창3:13) 말함으로써 그 창녀들의 어머니를 향해 한 발자국 더 근접하게 되었다. 이브,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먼저 그녀를 속인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다. “땅은 형태가 없고”가 무엇과 연결되는지, “비어 있으며”가 무엇과 연결되는지, “어둠”이 무엇과 연결되는지, “깊음의

표면”이 무엇과 연결되는지, 더 나아가 성경의 첫 두 장에 기록된 단어들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창1:2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알 길이 없다.

간극 반대자들은 이브가 죄를 짓기 전 시점인 창1:2에 대해 성경이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는 진리를 독자들로 하여금 억지로 부인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끊어진 연결고리”는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드러나 보인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잠시 기도하자. 우리는 느긋한 한편으로 확실하게 창1:2에 관한 확실한 결론을 낼 것이다.

우리는 처음에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접근 가능한 여러 세부 주제들을 한데 소개하고 여러분을 하나씩 발만 담그게 할 것이다. 그 뒤에는 각 세부 주제들의 속으로 여러분을 “깊이” 잠수시킬 것이다. 물론 숨을 쉬러 다시 올라올 필요가 없도록 산소는 스쿠버에다 가득 채워 놓고서 말이다.

제4장

이브의 죄

이브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식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아울러 아담보다 먼저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은 이브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그래야만 롬5:12도 제대로 조명을 할 수 있으며 아담 이전에 죄와 사망이 정녕 있었는지를 논의할 수 있다. “지구상에 죄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유입되었으며 그의 정체는 아담이다. 그러니 아담 이전에는 사망이 없었다.”라고 단정을 짓는 Tabb 같은 사람도 있으니 말이다.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계시를 미리 받았음이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시험을 받던 당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 일부 틀리게 인용하긴 했지만 말이다.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창3:3) 그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빛을 받았다. 이것은 “법”으로서 그녀의 마음에 새겨졌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그녀는 시험을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으나 타락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브는 속임수에 속았다(deceived)

가장 먼저 바울이 이브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를 살펴보자. 그는 이브가 속아서 “범법 가운데에” 있었다고 진술한다.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딤후 2:14)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보건대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치고 그 누가 이브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기 사전에 입각한 이단 교리를 전파하거나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이는 가능하지 않다. 죄를 짓고 나서는 자기는 그걸 몰랐다고 변명하지 마시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게 아니라 교회 프로그램이나 책 장사에만 몰두하고 사람이 보기에 그럴 듯하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앞가림만 하는 경우가 오늘날의 근본주의 진영에도 너무 많다. 그들은 겉에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유명해지고 자기 몸집을 키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것은 교리에서든 행실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부패시키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들이 쳐 놓은 그물에 성경 신자들조차 걸려들기도 한다.

“속음”과 “악”

“deceived”라는 영어 단어는 “deceit”, “deceitful”, “deceitfully”, “deceitfulness”, “deceive”, “deceiver”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성경 전체에서 150회 등장하며 우리말로는 “속음”, “속임수”, “속다”, “속이다”, “속이는 자” 등으로 번역되었다. 성구사전을 통해 이 단어들의 모든 용례를 확인해 보면 이들의 심상은 한결같이 부정적이고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deceived”와 관련 단어를 사용하신 형태가 그러하다는 뜻이다.

“속지 말라. 악한 사귀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고전15:33)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브가 동산에서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성도간에 악한 교제가 진행 중이었던 것이다. 이브는 속아서 타락했는데, 고린도에서의 악한 사귀도 사람들이 속임수에 속는 바람에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란다.

“네 입을 악에게 내주고 네 혀로는 속임수를 꾸미며”(시50:19)

바울의 말에 따르면, 사탄이 이브를 유혹하던 당시에 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성경은 “속임수”와 죄는 바늘과 실처럼 따라 다니는 관계라고 말한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의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박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히3:13)

“그건 저것과는 문맥이 다르잖아요”라고 반문하는 독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 오로지 자기가 죄라고 인지하는 것만 죄로 실제로 성립한다는 얘기인가? 잣대가 완전히 제멋대로이다.

죄는 속임수 그 자체이다. 어찌나 교묘한지 겉으로는 정말 부드럽기 그지없다. 그래서 성경에도 쓰여 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라.”(사30:10)

이사야의 시대에 대언자들은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사실,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는 것이 이사야 때가 최초는 아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자기 자신을 속이고(고전3:18) 타락한 사탄이 이 분야의 원조이며, 사탄은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참으로”(창3:1)라는 표현으로 시작해 이브에게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4절)라는 속임수를 대언했다. 사탄은 부드러운 한편으로 교활하기 그지없는 거짓 대언자이다.

그리고 어떤 형제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창1:2를 부드럽게 “물타기”를

시켜 버린다. 롬5:12라는 나무의 뒤에 숨은 채, 원래 구절의 배후에 있는 부정적인 심상을 기어이 부인함으로써 말이다.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계12:9)

그럼 창3:1에 등장하는 뱀에 대해서 성경이 무어라 말하는지를 살펴보자. 그 뱀의 정체는 용이요, 마귀요, 온 세상을 속이는 사탄이다.

“속음”과 “교만”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따르면 속음은 교만과 관계가 있다.

“바위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처소를 둔 자여,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욥1:3)

성경이 참으로 엄청난 책인 이유가 이런 곳에서 드러난다. 위의 짧은 구절에서 마음, 즉 겉으로 알 수 없는 내면의 상태가 두 번이나 언급된다. 사 14:13에서 루시퍼가 빠진 문제도 이것과 동일하며, 문제는 모두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에 따르면 이브는 속임수에 속음으로써 죄를 지었다. 속임수는 악과 관계가 있다. 마귀는 악하며 속이는 자이기도 하다(계20:10).

죄라는 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존재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속임수도 악도 있었고 교만도 존재했다. 아직 이브의 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도 않았지만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운 접근 방식인 것이다.

다음으로 딤펢전2:14는 이브가 “범법 가운데에 있었”다고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딤펢전2:14)

성경에서 “in the transgression”이라는 영어 표현은 디모데전서 말고는 유일하게 잠29:6에서 추가로 등장한다. “악한 자의 범법에는 울무가 있거니와 의로운 자는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잠29:6) “범법”이 “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주목하기 바란다.

성경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독자의 머릿속에는 개념과 개념들의 상호 참조 관계가 나무 모양으로 그려져야 한다. 그 나무의 특성은 이러하다.

- 1) 나무에는 뿌리가 있으며 뿌리에 속하는 개념은 “최초 언급의 법칙”의 적용을 받는다. “최초 언급의 법칙”이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 나갈 때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주체 또는 특별히 “단어”(눅4:4)가 그 문맥을 토대로 자신의 용례를 스스로 규정한다는 뜻이다. 한번 정해

진 용례는 하나님께서 나중에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중요한 패턴이 된다. 일부 문맥에서 예외적으로 특수한 정의가 정립되거나 파생되어 나올 수도 있지만 최초로 등장한 원래의 뜻은 성경 전체에서 변함없이 유효하다.

2) 뿌리에서 즐기가 뻗어 나온다.

3) 즐기로부터 가지들이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분기한다. 그러나 방향은 달라도 이들은 여전히 모두 동일한 뿌리와 즐기에 소속되어 있다.

4) 가지들은 서로 완전히 뒤얽히고 꼬여 있다.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한 곳에서(가령 창1:2) 처음으로 언급하면, 이것을 가리키는 관련 구절을 어딘가 다른 곳에 무작위로 놔 두신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그렇게 완성해 가신다.

다음으로 “범법”이 자신의 뿌리들에 속하는 “악한 자”와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목하라.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유명한 사람이 있다. 예언적 관점에서는 적그리스도이며,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역사적 관점에서 악한 자는 바로 타락한 그룹이다. 이 타락한 그룹이 빛의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이브에게 찾아갔던 것이다.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고후11:14)

성경 전체에서 “범법”이 단독으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출34:7이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삼대와 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범법”이라는 단어는 “죄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브 역시 죄가 있었다. 그녀는 죄를 지었으며 영적으로 죽었다. 이로 인해 육신의 생명도 시한부로 바뀌고 죽음을 향해 서서히 진행하게 되었다.

끝으로 성경이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자.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요일3:4) 이보다 더 명백할 수가 있을까? 이브는 죄를 지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법을 범했다.

범법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transgression(s)”와 이것의 모든 활용 형태 “transgress”, “transgressed”, “transgressest”, “transgresseth”, “transgressing(s)”, “transgressor(s)”들은 성경 전체에서 총 179회 등장한다. 이것들이 무언가 긍정적인 의미와 연결된 적이라고는 단 한 번도 없다. 그런데도 오로지 롬5:12에 집착하여 죄와 사망이라는 게 아담으로부터만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브가 아담보다 먼저 죄를 지었음을 입증하는 거의 500여 군데의 성경 구절들을 무시해야만 한다. 루시퍼가 타락하고 이브를 유혹한 뒤 나중에 아담까지 덩달아 타락한 것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계시를 모조리 외면해야만 한다.

이브는 농락을 당했다(beguiled)

이브가 아담보다 먼저 죄를 지었음을 입증하는 구절은 이 외에도 더 있

다. 일례로 우리는 뱀이 이브를 속였다는 증언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나?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이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창3:13)

만약 이것으로 부족해 보인다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말 하는지도 살펴보면 된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고후11:3)

이 개념의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가 보일 것이다. 그야말로 썩은내가 풀풀 난다. 성경 구절들이 스스로 말해 주고 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브가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뱀의 간교함으로 인해 마음이 부패하게 됨을 추가로 언급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브의 마음도 부패되어 버렸다. 마음이 부패되었으니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도 부패시키고(고후2:17) 잘못 인용한 것이다. 그녀는 인류 최초의 성경 변개자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그녀가 말한 내용을 대조해 보면 이는 명백해진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2:16,17)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등장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 긍정적

- 2) “마음대로” 긍정적
- 3) “먹어도” 긍정적
- 4) 되“나”(but 반전) 부정적
- 5)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부정적
- 6) “먹지 말라” 부정적
- 7)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부정적

하나님은 긍정적인 요소를 세 가지 말씀하신 뒤에 부정적인 요소를 네 가지 말씀하셨다. 요컨대 창2:17에서 하나님은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부정적인 내용도 결코 빠뜨리지 않으신 것이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말을 했는지 보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창3:2,3)

적절한 진행을 위해 이전에 뱀이 무어라 말했는지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창3:1)

사탄이 사람에게 최초로 내뱉은 단어가 “참으로...”(창3:1)라는 긍정적인 단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니 번드르르하고 부드럽고 배도하고 에큐메니컬한 오늘날의 교계에서 “함께 나뉘요”, “웃어요”,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식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설파하는 행위는 예수회 일당이 하는 것보다 성경적으로 나올 게 조금도 없다. 가룟 유다도 주님께 처음에는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Hail, Master)”(마26:49)라고 아주 긍정적인 말을 꺼냈다. 그러나 그런 말의 내면에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구성하는 화합과 단일한 믿음과 단일한 성경을 죽이고 멸하려는 흉계가 가득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님은 창2:17에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한편으로, 부정적인 말씀과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의 경고도 결코 빠뜨리지 않으셨다. 그 반면 사탄은 말씀을 교묘히 모방하여 긍정적인 내용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슬그머니 가린다. 이것은 마피아의 전형적인 전술이다. 사탄은 언제나 사람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행로를 교묘히 가린다.

그 순서는 이러하다.

- 1) “참으로” 먼저 긍정적인 말을 꺼낸다. 마귀는 하나님을 참 잘도 모방한다.
- 2) “하나님께서 ...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는 동시에 이브 앞에서 하나님을 고소한다. 마귀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거짓 고소하기도 한다.
- 3) “너희는 ... 먹지 말라” 이브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만들 빌미를 제공하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4)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 ‘마음대로’ 라는 단어를 생략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삭제한 자이다. 그래서 “그가 내 입에서 말씀들을 빼앗아 갔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막4:15)

“빼앗다”라는 단어는 빼심을 의미하며, 빼다는 것은 ‘다름, 차이’를 암시한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인간의 말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본 적이 있는가? 이브는 아담의 다음에 창조된 인간이며 더 약한 그릇(벧전3:7)이었는데, 마귀는 그녀를 이용하여 그녀의 남편까지 조종했다.

그녀가 한 말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점은 주어가 “우리”라는 복수형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너”라는 단수로 말씀하신 것과는 대조적이다. 창2:16-17의 말씀을 영어로 보면 “...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에 이르기까지 “너/네”(thou)가 네 번 반복해서 등장한다. 이 말씀은 개인 단위로 유효한 명령이었던 것이다.

두려움은 올무를 만든다. 이브는 사탄의 간교한 공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라는 “나무”의 뒤로 바싹 숨었다. 이 시점에서 이브가 취한 태도는 훗날 전세계가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벌이는 정치 운동들의 근간이다. 바로 “우리 인류” 운운하는 것 말이다. “...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사와 탑을 세우고 ...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

리 흠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창11:4) 에큐메니컬 운동은 1인칭 복수형 대명사인 “우리”를 내세우며 끼리끼리 가는 법이다. 부패한 필사본을 옹호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국제어인 영어로 온전히 보전해 주셨다는 믿음을 대적하는 학자들의 집단도 딱 저런 모양이다. 에큐메니컬 운동은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에 담겨 있는 절대적인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움직임일 뿐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것은 다분히 공산주의적인 발언이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도 people을 원래 뜻인 “인민”으로 차마 옮길 수 없으니 “국민”이 대신 쓰인 것이다. 이 “the people”은 성경에서는 “백성”이라고 번역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용하신 문맥은 바빌론에서 벌어졌던 악한 국제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해서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창11:6)

죄인들은 개인 단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언제나 “나” 대신 “우리”를 들먹이는 습성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 죄인이지요.”라고는 말해도,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라고는 선뜻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교회에서 설교자가 회중들을 향해 설교를 하면 성령님은 설교에 담긴 말씀을 통해 각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찔림을 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반면, 죄인들은 그것을 애써 “회피”한다. 이 설교의 적용 대상은 다른 사람

이지 자기 자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책임 회피”의 원조가 이브인 것이다. 이 죄는 나중에 이브가 뱀을 탓하면서 자기 죄를 떠넘기려 하는 장면에서 또 등장한다(창3:13).

이브는 “우리”를 내세워서 자신을 방어하려 한 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대면한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 마귀의 공격에 맞서 양날 달린 검을 정면으로 찔러 넣으셨기 때문이다.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마4:7,10) 예수님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다. 그리고 사탄을 정조준하여 그 말씀을 하셨다. 구소련 사람들이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도 공격을 통해 방어를 하셨다. “너는 ... 하지 말라”라고 아주 직설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이다.

이브가 지은 누락의 죄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부를 빠뜨려서 잘못 인용한 최초의 사람이기도 하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원래 하신 말씀에서 “마음대로”라는 단어를 누락했다. 그녀는 마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답습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감했으니 말이다. 이런 누락은 모든 사람에게 만연한 습성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뭔가를 빠뜨리는 바람에 오랫동안 큰 대가를 치러 왔다. 바티칸 사본 및 시내 사본과 같은 부패한 성경 필사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은 부분을 빼먹었으며 그나마 있는 부분도 잔뜩 변경되었다. 이것들로부터

부패한 성서들이 오랫동안 출간되어 왔다. 성경과 교회사에 등장하는 설교자들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하신 메시지에서 일부를 누락하곤 했다. 출 5:1을 보면 모세는 출4:22,23에 나오는 하나님의 원래 말씀을 누락했다. 이런 누락의 죄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이단 교리와 배교가 발생하곤 했다. 데이비드 호프만 목사(Rensselaer IN.)는 이렇게 말한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모두 전하지 않았다. 파라오의 첫째 아들이 죽는다는 부정적인 말을 파라오 앞에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모세의 타협으로 인해 파라오는 오히려 기세등등해졌고 백성들에게 고난이 더 가중되었을 것이다(출5:14-18).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으려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이는 교회 외부의 불신자가 아니라(행20:26,27; 24:14; 골1:28,29) 교회 내부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문제로 되 돌아온다(출5:20-23).”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일을 누락하여 훗날 지옥에 간다.

대다수의 이단들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는 딤후2:15의 간단한 명령을 누락함으로써 시작된다.

성경에서 이브가 뱀과 대화하는 장면의 배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마음대로”의 누락과 관련지어 생각할 만한 사항이 더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비, 음식, 옷, 햇볕, 자연 등 많은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값없이 주셨고 마

음대로 사용할 자유도 사람에게 주셨지만 오·남용은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그러나 사람은 거기에서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이브가 살던 동산의 풍경이 어떠했을지를 상상해 보자. 주변에는 큰 것부터 작은 것, 통통한 것부터 마른 것에 이르기까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이 가득했을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을 텐데 이브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기 남편에게 주신 그 자유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것보다 더 갖고 싶었고 탐심을 가졌다. 그녀는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고는” 그것이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다.

“너는 탐내지 말라”라는 법이 있다. 이것은 십계명의 열째 계명이며(출 20:17) 바울이 인용(롬7)하기도 한다. 또한 이브의 죄는 첫째 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출20:3)와도 관계가 있다. 신들이 언급되니까 말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창3:5)

이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자유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폭군 독재자가 백성들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수법에 말려들었다. 처음에는 자유를 약속하지만(공정적임)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수동적으로만 반응할 줄밖에 모르게 하고 정부와 부유층의 노예로 만드니까 말이다.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벧후 2:19)

그리고 사탄이 이브에게 한 짓이 이와 동일하다. 그녀에게 고리타분한 일상을 벗어나 “자유”를 선사하겠다고 꼬드겼다. 이브는 딱 하나만 빼고 나머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뭔가 “구속”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큰 규칙은 “모든 나무”이고 예외는 딱 하나였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다수는 “모든 나무”이고 소수는 딱 한 그루의 나무였다.

이브는 이 “다수의 규칙”에서 “싫증”을 느꼈다. 성경 역본으로 비유하자면 진리를 증언하는 다수 사본에 싫증을 느낀 것과 같다. 다수의 규칙이 좁은 길이며, 그녀는 좁은 길에 싫증을 느끼게 되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 (마7:14)

라오디게아 시대엔 무질서가 횡행한다. 딱 한 가지 예외만을 끄집어내어 그걸 일반적인 규칙으로 삼는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한다. 포도즙이건 포도주건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딱 한 군데의 예외적인 구절(딤후5:23)만 끄집어내어, 그걸 반대하는 다수의 보편적인 규칙들을(잠20:1; 23:31; 31:4; 엡5:18) 무시한다. 자칭 “최고의 학자”들의 의견을 들먹이면서 “**왕의 말씀**” (전 8:4)을 정면으로 뒤흔든다. 사전, 어휘집, 주석,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따위를 내세워서 1611년판 영어 권위역 성경을 부정한다. 행2:38 하나만 가져와서 성경의 나머지 법칙들을 뒤흔든다. 그리고 롬5:12 하나만 가져와서 이브의 타락과 심판 내지 사탄의 행로 따위는 죄다 외면한다.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이 “자유”라는 단어를 너무 남용한 나머지, 이제는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지경이 되

었다. 직접 구원 간증이라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의 남녀들과 아무 차이 없이 걷고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이다. (골2:1; 4:13,15,16; 딤후 3; 계3:14-21)

이브는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로 만족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며 그 결과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 “패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 있으나 죽었느니라.” (딤후5:6)

이브가 누락 말고도 하나님의 원래 말씀을 또 어떻게 변개했는지를 살펴보자. 그녀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새로 추가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이브가 이렇게 없는 말을 덧붙인 속내를 살펴보면, 오늘날의 뉴스 매체에서 으레 하고 정치인들이 늘어놓으며 남녀 불문하고 수다를 떨 때 빠짐없이 나오는 “허풍 과장”이란 것이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추적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2:16,17에서 하신 말씀은 영어 기준으로 39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브의 말은 단어가 44개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누락을 한 뒤엔 불필요한 것을 첨가하기까지 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와 주석가들이 동일한 행동을 답습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정적인 내용은 쏙 빼고, 자신의 죄와 사탄의 행로를 은폐하는 역할만 하는 군더더기만을 잔뜩 덧붙이는 것이다. 이브가 추가한 말들은 하나님의 원래 말씀을 더 명료하게 한 게 아니라 반대로 혼란만 야기시켰다.

성경 주석가라고 자처하면서 자신은 정작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1611년도 권위역)을 모든 믿음과 행동에서 최종 권위로 삼는 일에 전혀 안중에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주석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성경을 성경으로 비

교 할수록 주석을 따로 볼 필요는 더욱 없어진다. 오늘날의 배교자들은 이브의 행동을 정확하게 똑같이 반복하기 때문이다.

- 1) “너”라고 직설적으로 지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책임 회피적이고 에큐메니컬한 표현으로 말을 시작했다.
- 2.) 인격적으로 개입하시는 성령님을 묵살하고 개인 단위의 책임감도 텅 달아 회피했다.
- 3)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대로”를 누락했다. 자신의 개인적인 행동이 “성경책”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 4) 자기에게 “마음대로” 주어진 여건들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녀는 근본주의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을 교정하려 드는 사람들의 정확한 예표나 마찬가지로이다.
- 5)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추가했다.
- 6) 아울러, “만지지도 말라”에는 불평과 과장이 섞여 있다.
- 7)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격하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로 바뀌서 부정적인 표현에 몰타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일”을 하려 하지 않았다.

이브의 죄와 죽음 이야기에 종지부를 찍는 말씀이 있다. 야고보는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약1:14-15) 완벽한 확인사살이다.

위의 본문은 절대로 “모든 사람, 단, 이브는 빼고...”라고 되어 있지 않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다. 이것은 칼빈주의자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딤후 2:6)를 읽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칼빈주의자는 “예정된”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너무 박힌 나머지 “모든” 사람도 “모든 예정된” 사람이라고밖에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의 모습이 그림이 그려진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욕심이 잉태하면(심리 현상) 죄를 낳는다. 그 죄가 “완료되면”(끝장!) 사망을 낳는다.

이브는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죽었다. 몸이 그 순간에 즉사하지는 않았지만 육신의 죽음은 서서히 시작되었으며 영적으로는 즉시 죽었다. 이것은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 동일하게 발생한 일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의 ‘더 깊은 곳’ 까지 잠수해 내려갈 때 다루도록 하겠다.

성경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무어라 말하는가? 나무는 “뿌리”에서 “줄기”가 자라나며,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 나간다. 이브의 죄를 다루는 또 다른 “가지”는 죄와 사망의 “가지”이다.

죄와 사망의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2:17)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내 죄를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므로” (출10:17)

죄가 사망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 주는 구절이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롬6:16)

죄는 사망을 야기한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롬6:23)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롬8:2)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고전15:56)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약

1:15)

나무는 “뿌리까지 송두리째 썩어 있다!”

성경의 법칙이 이렇게 명백하며 이브가 죄를 지은 것이 맞다면(아담과 마찬가지로), 그럼 그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왜 즉사하지는 않은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독자가 의문을 품을 만하다.

사망에는 두 유형이 있다. 첫째 유형은 “사망에 이르는 죄”처럼 즉시 당하는 죽음이다. 어떤 사람이 법을 어기고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즉시 죽게 하신 경우가 삼하6:1-7에 있다. “주의 분노가 옷사를 향해 타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를 거기서 치시매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민15:32-36; 레24:10-14)

둘째로는 사람은 죄를 짓고 “범법 가운데에”(딤후2:14) 있음으로 인해 장기적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상태가 된다. 그 유예 기간 도중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다. 여러분은 그 사망을 향해 놓여 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며, 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려진” 상황을 뜻한다.

그러니,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두 가지 일이 벌어졌다.

1. 그녀는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녀의 영이 단절되었다.
2. 그녀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으며, 육체적으로도 비록 목숨이 아직 붙어 있지만 노화와 사망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가 목숨이 끊어져서 완전히 죽는 것은 전적으로 시간 문제에 불과하게 됐다.

“너희 죄(들) 가운데서”

“너희 죄(들) 가운데서”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총 7회 등장한다. 요한복음에서 2회, 고전15:17에서 1회, 골2:14에서 1회, 그리고 겔18:18,24,26에서 각각 1회씩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다.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한번 더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8:24)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다 자기 죄들 가운데서 죽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1. 바리새인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이미 죽어 가는 상태였다. 그들은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2. 그들은 사망을 향해 놓여 있었다. 그것도 “자기 죄들 가운데서” 말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잠시 후 동일한 상황과 문맥에서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요8:44).

에스겔 역시 죄들 가운데서 죽어 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 죄를 향해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경고했다. 그들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때 죄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과 “행위”이다(겔 18:18,24,26). 이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행을 하지 않은 대가가 사망이었던 셈이다.

에스겔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자.

“... 심지어 그가 자기 불법 가운데서(혼과 관련된 영적 속성) 죽으리라(미래에 육체적으로).” (18절)

“... 자기가 지은 죄 가운데서(혼과 관련된 영적 속성) 곧 그것들 가운데서 죽으리라(몸이 육체적으로).” (24절)

“... 그것들 가운데서 죽으면(영적으로) 그는 자기가 행한 불법으로 인하여 죽느니라(육체적으로).” (26절)

그러므로 성경에는 시차를 두고 찾아오는 육체적 사망과, 죄를 한번 지음으로써 즉시 맞이하는 영적 사망이라는 두 종류의 사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영적 사망과 혼의 상실	육체적 사망
불법이 행해졌을 때 언제나 예외 없이 즉시 임함	즉시 임하거나 한참 뒤에 임할 수도 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죽은 자들(영적으로)이	자기들의 죽은 자(육체적으로)들을 장사지내게 하라.” (마8:22)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마3:8)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경에 따르면 아담은 타락 후에도 수백 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육체적으로). 그러나 그의 영적 사망과 혼의 상실은 당일 즉시 일어났으며,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히1:2,3)을 상실했다. 이브도 동일한 일을 당했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기”**(대하25:4) 때문이다.

이브는 죄를 지어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여러 번 잘못 인용하여 **“불법 가운데에”**(딤후2:14)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녀는 약1:13-15의 판결에 따르면 유죄가 됐다. **“... 죄가 완료 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수십 군데에 달하는 말씀들을 파헤친 이유는 롬5:12를 근거로 아담 이전에는 죄도 사망도 없었다는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성경을 성경으로 면밀하게 풀이하고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제대로 구원은 받았는지부터 의심해야 할 것이다. 대하25:4는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도 이브가 아담보다 먼저 죄를 지었다고 맞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라 해도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다 보면 그는 어떤 극단에도 빠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전부터 세상에 죄가 존재했음을 논증해 보이도록 하겠다.

제5장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전부터 죄는 존재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브가 타락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확립했다. 그리고 성경에서 관련 구절을 약간 탐구해 보니(요5:39; 행17:11) 그녀의 죄가 사망을 야기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녀의 죄가 사망을 낳았는데(약1:15), 성경에는 “죄”, “사망”과 병행하는 다른 용어들이 나온다. “어둠”, “비어 있음”, “악”이 그 예이다.

이런 병행 단어들은 동일한 그 썩은 나무에서 유래되었다. 이들은 서로 완전히 연결되고 뒤얽혀서 결코 “깨뜨려질 수 없는”(요10:35) 교리의 “끊어진 연결고리”(눅11:52)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계시해 준다.

“악”(evil)

아담의 죄를 연구하고 롬5:12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기에 앞서 우리는 성경에서 “악”과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 보도록 하겠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2:17)

이 나무는 악한 것이었으며 죽음과 관련이 있었다. 이 나무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땅에서 자라는 문자적인 나무였다.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2:9)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의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창3:22)

어떤 나무가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해 주는 열매를 맺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으로, 땅에서 자라는 다른 어떤 문자적인 나무는 사람을 반드시 죽게 하는 열매를 맺었다. 이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악”이라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성구사전을 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어라 말씀하시는지를 쫓 찾아 보도록 하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창3:5)

여기서 신들이란 영락없이 마귀 이야기이다. 누군가가 이미 “그들의 눈을 열어 놓은 것이다.” 그들은 정체가 무엇이며 어디서 온 것일까?

성경 전체에서 “신들”(복수형 gods)이라는 단어는 총 244회 등장한다. 그리고 “신들”이 등장하는 모든 문맥은 그 신들이 현재형 시제로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성경에서 직접 찾아 보시라. (창31:30,32; 35:2,4; 출12:12; 15:11; 18:11; 20:3,23 등)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신들”은 한 치의 예외 없이 언제나 이미 존재하는 채로 언급된다. 없는 신들을 가정해서 언급되는 경우는 없다는 뜻이다.

마귀가 거론하는 그 신들은 루시퍼와 함께 심판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온 무리들이다. 죄는 언제나 패거리를 원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들 역시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아담이 이브를 위해서 금지된 열매를 제 발로 먹기 전부터 말이다.

아담이 사랑에 눈이 멀어서 한 행동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보면 이렇다. 그는 결혼 후에 자기가 “이브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몇몇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듯이 말이다.

먼저 마귀가 여자에게 속삭였다. “이거 봐, 한 입 좀 먹는다고 안 죽어. 주변의 내 친구들은 잘만 먹고 있다니까? 그러니 너도 먹어 봐.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을 거야.”

어떤 여자가 구제불능 놈팡이에게 “홀딱 반해 버리면,” 그 사람이 결혼 후에는 행실이 좀 나아질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게 된다. 이것은 물론 여자 인생을 망치는 헛된 기대일 뿐이다.

많은 형제들이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배우자가 결혼 후에는 나쁜 습관을 고칠 거라는 생각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다 계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간과하여 복을 놓치고 있다.

이브는 진작부터 “세상으로 가서” “세상 스타일”이 돼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최대한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이브와 하나님의 사이에 아담이 잘 서 있었던가? 그는 자신의 원래 의무를 잘 이행했는가? 그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들은 날에 그것들을 철저히 무효로 만들었는가? (민30:12,13,15)”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으며 그는 오히려 그녀를 따라 같이 “타락했다.” 그리고 남편을 통해 온 가족이 죄에 빠지게 됐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있었던 일은 가히 과학적 사실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브의 죄가 무엇인지가 오늘날까지 관찰을 통해 얼마든지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근본주의 진영의 “창조과학 운동가”들은 이에 대해 무지하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여자에게 반한 남자는 “그녀는 곧 바뀌겠지”라고 생각한다. 많은 크리스천 형제들이 방탕한 여자와

결혼한 뒤 빈털터리로 전락했다. 혹은 남자가 결혼 후에 갓 구원받더라도, 그때에도 여자가 남자를 꼬드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게 가능한 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한없이 되풀이되어 왔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관찰 가능한 과학의 영역에 있다!

이상으로 금지된 열매를 이브가 “따먹기 전” 부터 창2:9,17; 3:5,22가 말하는 “악”이라는 것이 존재했음이 규명되었다. 여담이지만 이 열매의 정체는 사과가 아니라 포도이다.

창3:22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드디어 타락하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악”이 다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창6:5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evil)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 전체에서 총 532회 나온다. 그리고 “악”과 관련된 사실들을 몇 가지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 악은 사망의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 단어 자체가 ‘재앙’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다. “어떤 재앙(evil)이 나를 덮쳐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창19:19) 그러니 성경에 따르면 악이 있는 곳에 사망도 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선사하는 복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 이것은 악에 대해서 성경이 최초로 언급을 한 뒤에 나중에 추가로 등장하는 계시이다. 누군가가 성경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다면, 계속해서 끝까지 읽어야만 하나님께서 예전에 언급하신 특정 단어나 구,

주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성경은 신앙심과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읽고 탐구하고 연구해야 하는 책인 이유가 이 때문이다(롬15:4). 하나님은 이르든지 늦든지 자신의 말씀을 여셔서 자신에 대해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다. 성구사전은 추가적인 계시를 발견하는 것을 도와 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그렇다고 해서 스트롱이나 다른 편찬자의 성구사전에 있는 것처럼 단어가 그리스어 내지 히브리어로 원래 무엇이었는지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

- 2) “악”이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다! (렘4:22,26) 우리는 창 1:2를 다룰 때 이 사실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간극 반대자들과 관점이 대립하는 핵심 부분이기 때문이다.
- 3)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시34:16). 이것은 창1:2에서 “스타워즈” 같은 사건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계시이다.
- 4) 악은 사악한 자를 죽인다(시34:21). 이것은 창1:2에서 사탄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음을 보이는 구절이다. “사악한 자”(the wicked)는 항상 “저 사악한 자”(that Wicked), 즉 살후2:8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 5)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으나...”(잠12:20). 마귀는 이브를 “속였다.” 그러므로 마귀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었다. 그 속임의 발원지가 어디일까? 바로 창1:2이다.
- 6) 궁극적으로 어둠과 악(재앙)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천사든 하나님의 아들들이든 그룹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법에 따라 죄를 어둠으로 심판하신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사45:7)

위의 구절에서 빛이란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실제 물리적인 빛일 수도 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주시며(시119:105),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 물리적인 빛을 공급해 주시기도 한다(창 1:14-16). 아울러,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절대적인 빛도 있다(창 1:3).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신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자. 이 역시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모두 가리킬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둠은 어느 문맥에서든 언제나 부정적인 심상이라는 점이다!

어둠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창조자라는 사실의 배후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다. 불행히도 현대의 많은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어둠을 만드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절대적인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과 악을 창조하시는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굵게 하소서, 하느니라.” (롬11:10)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 어둠이 없는데 도대체 어째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시는 걸까? 우리는 이 의문의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해

답은 바로 주님께서 죄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 내는 창시자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영단어 evil은 악 자체뿐만 아니라 재앙 내지 화를 뜻하기도 하게 된다.

위의 구절에서 눈을 어둡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요12:40을 보면 이 사실이 훨씬 더 명확해진다.

“그분(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자,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를 칠 재앙을 만들고 너희를 칠 계락을 세우나니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선하게 할지어다, 하라.” (렘18:11)

“너희를 칠 계락을 세우나니”라는 대목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죄의 대응책을 창시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의 길이 악하기 때문에 그분은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성품 자체는 결코 악하지 않다. “...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욥34:10) 단지 인간의 악으로 인해 그에 상응하는 재앙이 인간에게 일어나게 하신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재앙이라 불리는 그런 악을 창조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인과응보를 얻는 상황을 창조하는 것에 불과하

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욥34:11)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재앙을 창조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충분히 인지했다.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다.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바로 다음 구절을 보라. “**사람이 자기 죄들의 형벌을 받을진대 살아 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불평하리요?**” (애3:38,39)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이와 동일한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분께서 큰 재앙을 우리 위에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우리의 재판관들을 치시면서 하신 자신의 말씀들을 확증하셨사오니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일어난 적이 없었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불법들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단9:12-13)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재앙을 창조’ 하시지 않으심을 거듭 확증한다. 어둠과 악(재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가 아니다. 그것도 다 동등하게 창조 세계의 일부라는 주장은 젊은 지구를 주장하는 ‘창조론자’들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창1:2에 있는 “간극”을 까맣게 잊었으며, 이것이 진화 과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를 아무런 부정적인 심상 없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나

중간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왜곡이며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하나님께서 원래 절대적인 빛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다. 그런 발상은 렘4:23에 나오는 예시를 무시하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을 무슨 ‘실수’를 저지르는 것으로 거짓 고소하는 것과 같다. 성경에서 어둠은 일관되게 죄와 악,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데 창1:2에서만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겠다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뿌린 것을 고스란히 거두는 상황을 창조하신다. 그리고 굳이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가끔은 신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고 입증해야 하는 상황을 일생 중에 만들기도 하신다(창22:12; 욥2:10).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이 긍정적이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새디스트밖에 없을 것이다. 누군가가 나쁜짓을 저질러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교도소에 갇혔을 때, 혹은 심지어 마귀가 불 호수(계20:10)에 던져질 때 우리는 “거 참 잘됐네”라고 말을 한다.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이 실현된 것이 잘됐다는 뜻이지, 처벌이 집행되는 것 자체가 좋다는 뜻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에 상응하는 재앙을 일으키신다는 점을 입증해 보이는 좋은 예는 열왕기상 22장이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400명이나 되는 대언자들을 한데 모은 뒤, 자신이 라뭇길르앗으로 가서 전투를

치를지 아니면 하지 말지를 물었다(6절). 이때 아합과 같이 있던 여호사밧 왕은 이들 말고도 다른 대언자가 또 있지는 않은지 물었는데(7절), 주의 대언자 미가야가 여기에 속했다. 미가야는 다른 모든 대언자들이 “**한 입으로 왕에게 좋게 고하는**”(13절) 것을 들었다. 그 중 한 사람은 거짓 대언자 시드기야였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해 쇠로 뿔들을 만들고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이것들로 시리아 사람들을 찢어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고 모든 대언자들도 그와 같이 대언하여 이르기를, 라못길르앗으로 올라가 형통하소서.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더라.**” (11,12절)

이것은 긍정적인 주장이 부정적인 주장을 누름으로써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이 초래된 아주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 옛 마귀의 말을 잊지 말자. “**참으로 ...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여호와와의 증인도 마귀와 다를 바 없다.

미가야는 자기가 말할 차례가 되자 처음에는 다른 대언자들과 동일한 요지의 말을 했다(15절). 아합마저 지금 미가야가 자신을 떠보는 중이지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님을 알아챘을 정도였다. 미가야는 “**어리석은 자에게 그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할**”(잠26:5) 정도의 분별력이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정확하게 같은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미가야의 진짜 대언은 “**그들이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였다. 왕은 싸우러 나가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왕은 이런 말이 물론 달갑지 않았다(18절). 다음 19~23절을 보면 주님은 제 발로 함정에 빠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왕을 실제로 그렇게 되게 만들려고 계획을 꾸미신다. 아합

왕은 해서는 안 되는 일(부정적임)이 무엇인지 대언자 미가야를 통해 계시를 이미 받았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강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악”이 뒤따르게 되었다.

“그런즉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 옆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아합을 설득하여 그가 올라가 라못길르앗에서 쓰러지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저런 식으로 말하였는데 한 영이 나아와 주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를 설득하겠고 또 이기리라. 나아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셨나이다.”

보다시피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왕을 장악하고 속이도록 하신 분은 주님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 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23절)

왕은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투를 강행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이렇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매 사이를 쏘니 ... 왕이 저녁때에 죽었고 상처에서 나온 피가 병거의 한가운데로 흘렀더라.” (34,35절)

왕은 불순종의 대가를 자기 목숨으로 치러야 했다. 악을 행함으로써 그

에 상응하는 악을 받았다. 그는 자기가 곧 죽게 되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대언자를 감히 제거하려 했다(26,27절).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임하는 재앙을 고스란히 당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주님이 계셨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 (엡4:18)

이 구절은 사람의 지각이 어떻게 해서 어두워지는지를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한다.

- 1)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
- 2) “그들 마음의 눈먼 것”

그렇다면 성경의 역사에서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최초의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루시퍼이다. 사14:12,13과 겔28:14에 묘사돼 있듯이 이 문제는 “**지각이 어두워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거룩한 성경 기록인 1611년도 권위역에 의하면 “**어둠**”이라는 썩은 나무가 “최초로 언급되는 곳”, 다시 말해 “뿌리”는 창1:2이다.

“어둠”은 명사이고 “어두워지다”는 동사이다. 전자는 무언가를 식별하는 명칭이고 후자는 무언가나 누군가에게 생긴 현상을 나타낸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품사라는 언어적인 역할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다.

다음 성경 구절들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제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는 뜻이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롬1:20)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창1:2)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창1:4)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1:18)

“그들이 주에게 부르짖기에 그가 너희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어둠을 두고 그들 위로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게 하였나니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가 오랫동안 광야에 거하였느니라.” (수 24:7)

이스라엘 민족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는 문자적으로 어둠이 존재했다. 어둠이 그들을 뒤덮었던 것이다. 이것은 창1:2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예표이다. 물리적인 어둠도 있고 영적인 어둠도 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네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사60:2)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 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햇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다.” (욥2:2)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날”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아 있으리라, 하니라.” (마25:30)

바깥 어둠이라 불리는 장소가 물리적으로 존재한다. 그곳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실제로 문자적으로 울며 이를 앓게 되는 곳이다.

창6:5를 보면 “사람이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말이 있다. 악이라는 게 마음과 관계가 있는 문제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이다. 역사상 마음에 문제가 생긴 최초의 존재에 대한 기록은 사14:13에 있다.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다. 영어에는 딱 한 글자만 차이가 나는 두 단어의 쌍이 있다. “악”은 영어로 EVIL이라고 하는데, 그 철자의 앞에다가 D만 덧붙이면 단어는 DEVIL, 즉 “마귀”로 바뀐다. 참 직관적이지 않은가? 마귀는 악하며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벧후3:7)의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이셨고 창1:1이 말하는 창조 사건 때에도 처음부터 계셨음이 분명하다(잠8:22,23). 그런데 창1:1의 시점보다 먼저 존재했던 것이 더 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것의 기초(창1:1)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욥38:6,7)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새벽별들이 먼저 존재하고 “그들이 함께 노래하는 일”이 있는 뒤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영적 존재 역시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이미 있었다. 이들은 창1:2 이전부터 존재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자 영적 세계(골1:16)는 창1:1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행적을 증언해 왔다.

이 시점에서 간극 반대자들은 필자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간극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증명도 안 하고는 간극이 기정사실인 양 왜 슬쩍 넘어가느냐?” 필자도 안다. 간극 반대자들은 롬5:12를 근거로 간극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창1:1부터 창2:25를 전부 단일 사건으로 한데 묶어서 생각하다는 것을 잘 안다. 중요한 말은 아직 하지도 않았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기 바란다.

문제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골1:16)

사도 바울은 왕좌와 통치와 정사와 권능들이 창1:1, 즉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전, 심지어 간극보다도 더 전에 존재했음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그 때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하나는 루시퍼였다. 창조된 영적 존재들에게도 통치권이라는 게 있었음을 주목하라.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악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사14:12)

여기서 “민족들을 악하게” 하는 동작은 물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다. 하지만 사탄이 이미 타락한 창조물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루시퍼는 “아침의 아들”이라고 불렸다. 한편으로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는 “뿔 있는 그룹”이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뿔 있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겔28:14)

사탄은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언급한 그런 권능과 통치를 갖고 있었다. 왕좌의 주변에는 사방으로 그룹이 하나씩 있었는데 이들을 위에서 뿔 있는 제

5의 그룹이 추가로 있었던 것이다. 그는 권력 서열이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으로 2위였으며,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도 권력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골 1:16을 보면 “왕좌”, “통치”, “정사”, “권능”이 모두 복수형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지닌 권능은 이 세상의 정부들을 통해 나타나 있으며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할 것이다(마12:32; 히6:5). 성경은 이에 대해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롬13:1)라고 말한다.

왕좌가 있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한다. 이 땅, 이 세상에 있는 왕국들은 영적 세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묘사이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롬1:19,20)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엡 6:12)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골2:15)

노아의 홍수 이전에 영적 존재와 정사와 권능이 있었으며 그것들이 세

상 정부를 통해 물리적인 형태로 드러났고 홍수 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그것처럼 루시퍼의 타락 이전에도 영적 존재와 정사와 권능이 있었으며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이 주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 1) 기원이 없이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창1:1; 잠8:22; 요1:1-3)
- 2) 그룹들. 특히 “**덮는 그룹**” 포함 (겔28:15)
- 3) “**하나님의 아들들**” (욥38:6,7)
- 4) 왕좌, 통치, 정사, 권능의 창조 (모두 복수형)
- 5) 이것들이 창조된 뒤 하나님은 물리적인 하늘과 땅을 창1:1에서 창조 하셨다.

왜 이렇게 온갖 관련 구절들을 복잡하게 찾아 보는가?

우리는 처음에 이브의 죄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담의 죄에 대해 이해하려다 보니 궁극적으로 이브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죄의 근원을 성경 여러 부분을 통해 파헤치게 되었다. 그렇게 더 나아가니, “**아침의 아들**” (사14:12) 내지 “**덮는 그룹**”이라고 불리던 녀석을 타락하게 한 죄가 무엇인지도 성경을 통해 찾아 낼 수 있었다.

창1:1-2만 봤을 때는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부실하고 빈약해 보인다. 점진적 계시를 바탕으로 특정 주제에 관한 전체 그림을 보려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야 한다(요5:39). 어떤 단어가 성경 한 곳에서 등장했다가 다음에 또 등장할 때 무슨 단어와 연결되고 얹히는지를

살피는 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한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지를 않으면 여러분은 말씀을 못 따라가고 뒤처지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털어 놓아야 할 의무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는 애초에 그걸 한꺼번에 다 부담하고 감당할 능력이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요16:12)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3과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하신 뒤,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요14:31)라고 말씀하시며 14장을 끝냈다. 그분은 언제나 움직이시지만 방향을 분명히 알고 언제쯤 설지 아시며 제자들에게 베푸실 것도 많이 갖추고 계셨다. 그분은 17장에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15장과 16장에서도 대단히 많은 계시를 남겨 주셨다.

이것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지만 모든 내막을 다 설명하지는 않는 것과 비슷하다. 아이가 더 자라고 질문을 하면 할수록 아버지는 전에 생략했던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준다. 그러면 아이는 비로소 그 일에 대한 전체 내막을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갓난아기에게 곧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일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전에 먼저 아기가 자라야 할 것이다. 아멘이지 않은가?

제6장

사탄의 타락

우리는 이브가 아담보다 먼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정립했다. 이로써 아담 이전에 사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창조론자들의 이단 교리를 반박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한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약1:14,15)

욕심은 우리 내부에서 시작된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 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약4:1) 다시 말하지만 욕심, 혹은 정욕은 우리 내부에서 시작된다!

“스타워즈”의 원조는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다. 원조는 따로 있으며 오히려 영화야말로 인류작에 불과하다. 최초의 “스타워즈”는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발생했다. 루시퍼가 자기 마음에 정욕을 품었을 때이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이대로 유혹에 빠졌다. 죄는 패거리를 만드는 걸 좋아하니, 사탄 역시 다른 이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인이 아이를 낳듯이 그 정욕은 잉태를 했다.

잉태란 밖에 있는 무언가가 안에 있는 무언가와 결합함으로써 이뤄진다. 그리고 잉태된 아이는 때가 되면 출산되어 나오는데, 그것처럼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았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루시퍼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14:13)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겔28:15)

하나님은 덮는 그룹을 창조하셨지만 그는 악한 마귀로 자기 자신을 탐바꿈했다. 그는 죄를 지었고 불법이 발견되었다.

아담 이전에 있었던 에덴 (겔28:13)

에스겔서에는 루시퍼의 타락 장면이 과거 시점으로 나온다.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상당수가 이 사건이 아담과 이브가 창조된 6일 이후에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이것이 생긴 때는 아담이 창조된 이후(2:9)라는 점을 간과한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악이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존재는 하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벧후3:7)에 아직 침투해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였을 뿐이다. 그리고 비록 이브가 아담보다 먼저 타락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연합체의 우두머리인 아담에게 지우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본서의 앞부분에서 충분히 다뤘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단순히 악을 가리키는 상징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명백하게 문자적인 실물을 영해로 풀이하는 것은 바른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없다. 에스겔서 28장을 읽다 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두로에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그 어떤 왕도 본문에 나오는 천사처럼 에덴에 있지 않았으며, 이 에덴은 아담이 있던 에덴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나중에 루시퍼 역시 아담이 거니는 에덴에 침입하기도 했지만 말이다(창3; 고후11:3).

성경에 나오는 여러 동산에 대해서 월밍턴의 성경 가이드(틴테일 하우스 출판사)는 885쪽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하나님의 동산 (겔28:11-17)

- a. 사탄이 되기 전 루시퍼의 고향
- b. 불타는 돌들이 있었음
- c.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중심
- d. 죄가 우주에 전파된 발원지

2. 에덴 동산 (창2:8-3:24)

- a. 최초의 인간의 고향
- b. 메소포타미아 동부에 소재
- c. 온갖 아름다운 나무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특수한 나무도 있었음
 - (1) 생명나무
 - (2)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 d. 네 개의 강줄기가 물을 공급함
- e. 죄가 인류에게 전파된 발원지

월명턴은 창2:8-3:24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는 다름을 인지하고 있었다.

루시퍼의 타락 시기

겔28:15를 보자.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엿도다.”

루시퍼에게서 불법이 발견된 시기는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신을 높이려 했을 때이다(사14:14). 그가 부패하고 죄를 짓게 된 시기는 아담의 때

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루시퍼는 아담이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 오던 시점에 이미 먼저 타락해 있던 창조물이기 때문이다(창2:2; 고후11:3). 에스겔서는 사14:12-14의 사건 때에 있었던 일을 더 자세히 풀이해 준다.

하나님의 산 (겔28:16)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겔28:14)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다.” 이 장소는 루시퍼가 이브를 유혹한 곳과 동일한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의 산은 아담 이전에 루시퍼가 왕국과 왕좌를 소유했던 곳이다. 또한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두로 왕의 통치 시기에도 천사가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지는 않았다. 그러니 이 구절이 가리키는 시기는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전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타락 이전에 루시퍼가 지녔던 지위와 타락의 원인에 대한 단서(13-18절)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7회 등장한다(14,16절; 출3:1; 4:27; 18:5; 24:13; 왕상19:8). 참고로 “주의 산”도 7회 등장한다(창22:14; 민10:33; 시24:3; 사2:3; 30:29; 미4:2; 슥8:3).

이들 구절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 1) 이들은 다 ‘동일 장소’에 있는 동일한 산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아담과 이브가 있던 동산의 안에 산이 존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2) 그뿐만이 아니다. 에스겔서에서 루시퍼가 있던 곳과 아담·이브가 있던 곳의 명칭이 비록 동일하게 에덴이었다 할지라도, 루시퍼의 타락이 인간의 창조보다 나중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성경 어디에서도 결코

입증할 수 없다.

- 3) 에스겔서 28장을 꼼꼼히 살펴보자. “네가 창조되던/창조된 날”이라는 문구가 있다. 그러니 사탄의 타락을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 있던 때에 다 끼워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덮는 그룹”(14절)은 아담과 이브보다 훨씬 전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욥38:7을 기억하시는가?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이것은 창 1:1보다 전의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된 건 인류 이전의 세상에 대한 문맥이며 아담과 이브의 창조와는 전혀 관계 없는 별개의 사건이다. 성경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세상과 두 개의 서로 다른 “기간”에 대해 말한다. 이 둘은 “홍수”에 의해 나누어졌다.
- 4) 창1:2는 하나님의 아들들(겔28:14의 “덮는 그룹”)의 창조 사건을 아담과 이브의 창조 사건으로부터 분리한다.
- i. 덮는 그룹이 거닐던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고 “불타는 돌”(14,16절)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있던 동산은 “불타는 돌”은 없고 그저 나무들만 무성하게 있었다.

“불” “한가운데”

성구사전을 펼쳐서 위의 단어(영어로는 “fire”, “the midst”)를 찾아 보면 다음 구절들을 곧 발견할 것이다.

“내가 보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바람과 큰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고 있

는 불이 왔는데 그것의 주변에 광채가 있었으며 그것의 한가운데 곧 그 불의 한가운데로부터 호박색을 띤 것 같은 것이 나오고”(겔1:14)

“불”, “한가운데” 같은 표현은 “북쪽에서” 하늘로부터 나온 것을 가리킨다. 겔1:4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묘사이기도 하다(겔1:28).

그리고 동일 표현이 또 등장하는 곳은 신4:11이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 산 밑에 섰는데 그 산은 하늘 한가운데까지 불이 붙었고 어둠과 구름과 짙은 어둠으로 덮였느니라.”

이 구절에는 “산”에 대한 추가적인 계시가 존재한다.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광경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예표이며, 산은 우주의 형상에 대한 예표이다. 산의 꼭대기에서는 “불”이 마치 화산 폭발처럼 솟아나오며 그 불과 번개와 연기의 한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분은 불과 물로 된 구름에 덮여 계신다.

이 설명이 미심쩍게 느껴진다면 성경에서 “불”이 ‘최초로 언급되는’ 창 19:24를 펼쳐 보시기 바란다.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불”은 “하늘에서 주로부터” 내려온다는 점을 주목하라.

ii. 루시퍼의 타락 사건이 발생한 곳은 “북쪽의 옆면들”(사14:13)이었

다.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던 아담의 “에덴 동산”과는 다른 곳이다.

5) 성경 어디를 봐도 아담과 이브가 있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14절)이 있었다는 말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탄을 쫓아낼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목하라.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16절)

6) 성경에서 어떤 산을 찾아 보더라도 사탄의 타락과 관계가 있는 산은 이 땅 지구에 있는 산이 될 수 없다. 사14:13,14는 사탄이 아담과 이브가 있던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게 절대 아니라고 못을 박는다. 사14:13,14를 다시 읽어 보자.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평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i. 이 그룹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의 목적지는 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 ii. 그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늘은 땅과는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진 다른 장소이다.

iii. 그는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라고 말했다.

이 정도면 완벽한 확인사살이다. 별은 그야말로 땅에서 억만 리 떨어진 곳에 있다. 저 그룹은 아담이 창조된 뒤에 이 땅의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iv. 그는 또한 “내가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말했다.

“산”의 모든 용례를 성구사전을 찾아 확인하면서 성경을 진지하게 인쇄심을 갖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겔28:14는 사14:13의 병행 구절이라는 지당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이는 모든 성경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사항임).

지구상에 아담과 이브 말고 다른 인격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경에 “회중의 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산이 있을 수 있을까? “회중”이라는 건 아담과 이브가 존재하기 전에 다른 인격체들이 이미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욥38:7).

7) 끝으로 “북쪽의 옆면들”이 있다.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우주론과 관계가 있는 용어이다. 이에 대해서 본서에서는 16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북쪽”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북쪽”이란 위쪽을 뜻한다. 지구에서 말 그대로 북극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다.

시48:2를 보자. “시온 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성경 전체에서 사14:13 말고 “북쪽의 옆면들”이 나오는 다른 구절은 이것이 유일하다. 시48:2의 문맥은 이 땅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다. 물리적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에는 “궁궐들”(3절)이 존재하지 않는다. 궁궐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대상29:1). “위대한 왕의 도시”란 히12:22가 말하는 “시온 산”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은 “위에” 있다(갈4:26).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눈치 빠른 독자라면 성경에 시온 산이 두 종류 있고 예루살렘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눈치 챌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딤후2:15) 않는다면 여러분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저 뼈딱선 타는 성경 비평가의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요약하면, 에스겔서 28장의 문맥은 아담과 이브가 있던 동산이 아니며 사탄이 그 시기에 타락한 것도 아니다. 거기서 말하는 동산은 전혀 다른 동산이며, 다루는 시기도 이브와 아담이 타락하기 훨씬 전이다.

악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정립되었으므로 우리는 뿌리들의 뿌리와 관계가 있는 모든 참고 구절들을 한데 늘어놓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번에도 참된 화가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무의 전체 그림을 우리의 눈앞에서 직접 그리시게 할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거대한 썩은 나무 한 그루에 뿌리와 줄기와 가지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얹히고 꼬여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사탄은 사람들을 정욕을 통해 집요하게 유혹하고 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벧후1:4)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엄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벧후2:10)

이 구절들은 사탄이 “그때 있던 세상”(벧후3:6) 시대에 정욕에 빠져서 타락하고 심판을 받았음을 알려 준다.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다시 창조하시고(창1:3-31) 아담과 이브가 창조된 뒤엔 “지금 있는 하늘들(복수형)과 땅”(벧후3:7)이 지속되고 있는데, 바로 이 시대에 뱀이 죄의 씨앗을 이브의 마음에다 심었다. 그는 그녀로 하여금 정욕을 품고 자기 마음에 죄를 잉태하게 했다.

영어에는 “out of this world”라는 구어 표현이 있는데, “주변에서 견줄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이라는 뜻이다. 주님께서 현대의 창조론 운동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불신자·무신론자의 입에 다가가도 절대적인 “진리”를 담아 놓으신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세상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구분을 하지 않았는가!

죄는 언제 최초로 생겼는가

간극 반대자들은 간극을 없애기 위해 사탄의 타락 시기가 6일 창조 중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늘어 놓는다. 어떤 시나리오를 내놓건 창

1:2보다는 시기가 나중이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성경을 꼼꼼히 연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창1:2가 6일 창조의 일부에 속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게으르고 허술한 태도로 성경을 대한 결과일 뿐이다.

Tim LaHaye와 Thomas Ice라는 간극 반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탄과 천사들은 아마(자기 사건일 뿐이다!) 6일 창조 기간 중에 창조된 것으로 보인다. (중략) 사탄은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의 어느 시기에 타락했다. (LaHaye, Tim, Ice, Thomas), <Charting the End Times> (Eugene, Oregon: Harvest House Publishers, 2001)

저런 당연히하고 막연한 추측썰이야 어느 누가 못 하겠는가? “사탄은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의 어느 시기에 타락했다.” 참 정밀하게도 분석해 준 게 고마울 따름이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큰 낭패를 본 전형적인 모습이다. 기원을 논하면서 어떻게 욥38:4-7을 빠뜨릴 수가 있는가? 성경의 계시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성경의 부정적인 명령인 “나누라”를 거부하면 창1:2에 있는 간극을 부인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보다 먼저 창조되었으며, 그들에게도 타락과 심판 사건이 있었다는 것에 철저히 무지하게 된다. 그리고는 그저 롬5:12만 붙들면서 아담 이전에는 죄와 사망과 심판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그 뒤 남는 것은 총체적인 혼돈과 난관뿐이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땅의 기초의 모퉁잇돌이 놓이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창1:2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려면 성경 전체에서 이 절로 통하는 “끊어진 연결고리”들을 죄다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러면 각각의 단어나 구가 어디로 연결되는지가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땅에는 원래 그룹과 천사들이 살았음이 분명하다(겔28:13; 31:9-18). 에덴을 통치하던 루시퍼는 하나님을 맞서 반역했으며(사 14; 겔 28) 이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 그는 영적으로 죽었으며 지구 전체에도 저주와 물리적인 심판이 덩달아 임했다. 이것은 미래에 땅이 또 심판을 받아서 “형태가 없고 비게 될”(렘4:23) 것에 대한 예표이다. 그리고 그 심판이 유예되어 있는 동안 재창조가 있는 것

이다(벧후3:6-13). 과거와 미래의 두 심판의 원인은 모두 동일하게 죄 때문이다. 이 땅은 “거주하도록”(사45:17-18) 창조된 지 수백 내지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주인이 인간으로 바뀌었다. 인간은 전 주인보다 체격이 작았다(히2:7).

인간이 등장할 때쯤엔 루시퍼는 이미 타락하고 몸을 잃은 상태였다(창3:4-5).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속하시지 않은 것처럼 루시퍼도 원래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는 “그때 있던 세상”(벧후3:6)의 소속이다. 루시퍼는 “이 세상의 신”(고후4:4)이며 그에게 속한 천사들은 “신들”(창3:5)이라고 불린다. 그는 하늘로 “오르려는”(사14:13) 교만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심판 받았다(욥41:34).

루시퍼가 타락한 시기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분명하게 단서를 주는 곳은 창1:2밖에 없다. 그에 반해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사탄의 내력에 대해 제대로 알 길이 없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어딘가, 언젠가” 같은 추측뿐이다.

사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를 자신의 빛으로부터 격리하셔야만 했다. 이는 창1:4를 보면 명확해진다.

“창세기 1:2의 시간 배치는 그 당시 사탄의 타락이 주변에 끼친 여파의 규모와 관계가 있다. 사탄은 온 우주에 죄가 들어오게 했을 정도로 막강한 존재였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서로 나누시고 자신을 자신의 창조 세계와 격리하신 이유가 이것으로 설명된다. 간극이라는 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자신으로부터 왜 격리해 놓으셨겠는가? 그분은 죄 없이 완벽한 땅과 우주를 창조하시고는 왜 그것들을 철쭉 같은 암흑천지 속에다가 집어넣으신 걸까? 정답은 그분께

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단절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분의 땅과 물리적인 우주는 더 먼저 창세기 1:2에서 일찌감치 그분과 단절되었다.”

(〈세대주의〉, 데이비드 E. 워커, p. 239)

하나님은 언제 지옥을 만드셨을까

간극 반대자들이 거론하지 않는 또 다른 주제는 바로 지옥이다. 하나님은 언제 지옥을 만드셨을까?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다. 흠잡을 게 없는 완벽한 땅의 동산에 왜 하필 악이 들어있는(창2:9) 나무가 존재한 걸까? “어둠”이라는 단어는 창1:2에서 최초로 등장하며 영적이든 문자적이든 여러 의미와 형태가 성경에서 언급된다. 그러나 이때에도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성경 해석 원칙을 버릴 수는 없다. 벨후2:4와 2:17에 나오는 “어둠”은 지옥의 어둠과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일단 노아의 홍수 시기에 죄를 지은 천사가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옥 자체를 창조하신 시기는 사탄이 타락하던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노아의 홍수 때에 타락한 천사들은 창1:2 때에 있었던 일이 예표하는 대상이다. 두 사건은 모두 “어둠”과 관계가 있으며, 성경에서 “어둠”이 최초로 등장하는 곳은 창1:2이다. 착착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 성경숫자와 관련해서나 성경적으로나(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했을 때), 최초 언급의 법칙을 적용하자면 창1:2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장 부에다 지옥을 창조하신 시기에 대한 가장 성경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이 된

다. 그 시기야 언제이건 그분은 지옥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가둬 놓으실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마25:41). 그리고 이 용례 말고도 “2”(창1:2)는 여러 모로 분리를 나타내는 숫자이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악한 죄인을 구원받은 사람들로부터 분리하시기 때문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로 갈 것이다. 아멘!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해서 “세상들”(복수형, 히11:3)이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아무 단서가 없다 보니, 그런 주제가 나오면 찢찢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창조론자’들이 간극이라든가 지옥의 창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와 동일하게 찢찢매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

제7장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우리는 땅이 처음엔 안 이랬는데 나중에 창1:2에 묘사된 처참한 상태로 전락했다는 것을 히브리어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도 너끈히 입증할 수 있다. 그저 KJV 1611 성경의 성구사전을 펼쳐서 성령님께서 땅과 관련된 동일한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만을 쫓 찾아보면 된다.

렘4:23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

렘4:23은 물론 일차적으로는 미래의 대환난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문맥이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래도 여전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창1:2)을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풀이해 주는 열쇠(눅11:52)이다. 이 구절에 대해서 그 누가 무어라 말하든지 간에 이 구절을 놓치지 마시라.

여러분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라”(딤후1:13)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미래에 그분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대환난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염두에 두도록 하자.

이 사건이 교리적으로 미래의 일이라는 이유로 사탄(막4:15) 내지 “새”(눅8:5)가 여러분의 마음 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대비를 하기 바란다. 다음과 같은 유사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 1) 지금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상태는 아니므로, 땅은 미래의 대환난 때에 그런 상태로 바뀔 것이다. 다시 말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심판이 임한 뒤에 형태가 없고 비게 “될 것이다”.
- 2) 미래의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는 이것 역시 창1:2와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의 지나간 일로 묘사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1:2의 해석의 “핵심”이다.

성경적인 해석 방식이 인간의 설명과 다른 점

우리는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해석 방식과 그저 인간의 사고방식에 입각한 설명의 차이를 지금까지 줄곧 보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다. 성경적인 해석 방식이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동일한 단어를 이곳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거룩한 성경 기록들**”(롬1:2; 딤후3:15)에서 찾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작업이 되풀이될수록 하나님의 계시는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설명과는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제1의 해석 방식은 고전2:13에 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이 구절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란 자신을 뒷받침할 근거 성경 구절이 없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근본주의 창조론자는 창1:2-4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풀어서 설명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6000년 전에 창조하셨다. 그 창조 과정 중에는 땅에 어둠이 깔려 있었다. 모든 것이 형태가 없고 비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었다.”

이런 식의 설명에는 “그 창조 과정 중에”라고 이미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성경은 창조 사건에 “중간 과정”이라는 걸 언급하신 적이 전혀 없다.

그 반면, 성경적인 해석은 이렇게 전개된다. 성경에 어떤 단어나 구, 또는 구절 전체가 있고 그것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동일하게 또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해당 부분을 직접 해설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여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지혜이다. 성령님은 여러 분으로 하여금 그분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 동일한 단어들을 두 곳에다 동시에 기록해 놓으셨다. 물론 근본주의자들은 창1:2와 렘4:23은 의도적으로

비교를 하지 않은 채 무시하고 넘길 것이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사28:9-13과 딤후 2:15), 제각기 필요한 상황이 오면 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것이다.

문맥이 큰 차이를 만든다

간극 반대자들은 간극 지지자가 렘4:23을 꺼내 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건 미래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에 창1:2와 연결할 생각이라고는 꿈에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거부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라. 사탄은 성경 전체에서 창1:2와 관련해서 성령님이 단 하나 남겨 놓으신 계시를 없애려고 한다(이브 안녕?).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크리스천들을 이용해서 말이다. 이 구절 자체는 오늘날 인쇄되어 있는 거짓 “성서”들과 부패한 필사본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와서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러니 사탄은 성경도 킹 제임스 성경을 쓰는 것까지 내버려 두고, 그 대신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지 못하도록(고전2:13) 멀쩡한 단서 구절을 이단처럼 보이게 하고 없는 구절로 취급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뻔한 노릇이다.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는 습관이 몸에 배지 않은 사람이라면 마귀는 그를 속여서 성경을 근거로 그 어떤 교리라도 날조해서 믿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을 이용하여 다른 크리스천들을 오도한다. 렘4:23에 담긴 멀쩡한 계시를 무시하고 거부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조금씩 무력화시킨다. 암세포가 신체를 장악하듯이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악제를 저지른 인물은 이브이다. 그녀는 인류 최초의 성경 변개

자이다. 모든 이단 교리들을 모아서 창녀들의 어머니인 로마로 끌고 가는 것은 “여성 운동”(이브)이다. 그런데 이런 “이브”에게 반해 버린 남자들이 너무 많다. 너무 순진하기 그지없다.

그럼 렘4:23를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도록 하자. 23절의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문맥으로 가도록 한다.

3) 렘4:23은 분명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기록이지만, 마치 “모든 사건이 이미 다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 23~26절을 보시라.

23절 내가 땅을 보니(영어로 BEHELD 과거),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모두 과거)

24절 내가 산들을 보니(영어로 BEHELD 과거), 보라, 산들이 떨어져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움직였고(모두 과거)

25절 내가 보니(영어로 BEHELD 과거), 보라, 사람이 없었으며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고(모두 과거)

26절 내가 보니(영어로 BEHELD 과거), 보라,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모두 과거).

모든 문장들이 한 치의 예외 없이 과거 시제이다. 이 사건이 2010년대 이후로 어느 미래에 발생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발생한 뒤에는 이것 역시 과거의 역사가 될 것이다! 창1:2의 판박이 반복이나 다름없는 과거 역사가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계시지 않다. 그분은 끝에서 시작을 보시고 시작에서 끝을 보신다. 예레미야에게 계시된 창1:2의 관련성을 부정하거나 시제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마귀적인 발상이며,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롬1:18) 짓이다. 여러분의 앞에 버젓이 놓여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의도적으로 부정한다면 저런 비난을 받는다 해도 할 말이 없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해당 구절의 주변 문맥을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앞뒤 문맥이 없이 혼자 달랑 인용된 문구는 그야말로 어떤 주장이라도 합리화하는 핑곗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렘4:23의 문맥에 해당하는 주변의 22-31절을 읽으면서 창1:2의 이해에 도움을 줄 “지식의 열쇠”(눅 11:52)에 해당하는 다음 단어와 구들을 관찰해 보자. [혹은, ‘창조론자’ 형제들의 용어를 빌리자면 “끊어진 연결고리”] 우리는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는 “점진적 계시”를 다루고 있다. 이 계시는 창1:2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행하신 바를 인간의 사건 없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설명해 주신다.

“...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22절) 그렇다. 이 미래의 심판은 “악”이 야기한 결과이다. 우리는 악이라는 것이 마귀가 죄를 지으면서 시작되었고 그 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이미 일찌감치 정립한 바 있다. 26절은 악으로 인해 야기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묘사한다.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렘4:23의 주변 문맥에 “산들”, “작은 산들”(24절), “광야”(26절), “도시

들”, “새들”(25절) 같은 단어가 있다는 이유로 인해 어떤 사람은 창1:1에 이미 사람이 살았다고 믿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볼 근거는 없다. 예레미야서는 미래를 다루고 있다는 걸 잊지 말자. 우리와 같은 인간은 재창조 사건(창1:27; 2:7) 때까지는 등장하지 않는다. 렘4:23과 사14:17의 문맥은 명백히 계12:3-10의 그것과 동일한 대환난이며,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은 미래이다.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할 의문은 바로 “대환난 때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답은 26절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에 있다.

- 4) 이로써 우리는 창1:2의 “끊어진 연결고리”를 이어 주는 최고의 보물을 성경에서 찾아 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에서 다른 구절을 한데 엮어 보자.

A. 창1:2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라고 되어 있다.

렘4:23은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라고 되어 있다.

- B. 렘4:23의 주변 문맥을 보면 성령님이 두 장소에서 왜 같은 말을 기록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악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맹렬한 분노”(26절)라는 심판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저 미래 시제라는 이유만으로 렘4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창1:2의 참고 구절을 끊어 놓으려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간주해도 좋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리라.” (고후13:1)

- 5) “하늘들(복수)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23절) 땅이 형태가 없

고 비어 있다는 구절의 바로 다음에서 주목할 점은 “하늘들”이라는 복수형 단어이다. 하늘이라는 게 두 종류 이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문맥에서 “하늘들”은 둘째 하늘까지 포함한다는 뜻이다. 단순히 지구의 대기권에 국한되지 않고 사탄의 관할이던 둘째 하늘도 고려 대상이 된다.

- 6) “하늘들”(복수)이라는 단어는 벰후3:5-13에서도 ‘다섯 번’ 언급된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는 복수형의 하늘들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오로지 땅만이 멸망을 당했다.

- 7) 다음으로 주목할 사항은 같은 구절에서 하늘들(복수)이 “빛이 없었다”(23절)는 점이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깔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창1:2)와 유사점이 즉각 느껴지지 않는지?

렘4:23의 배경은 죄로 인해 야기된 하나님의 심판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26절)가 임한 것이다.

또한 렘4:23은 성경 전체에서 창1:2에 대한 증언을 해 주는 유일한 관련 구절이다. 고후13:1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증인이 적어도 두세 명 정도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우리도 다른 증인을 찾아 보자.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는 손에 모세의 책을 들고서 미래에 있을 심판을 예언한다. 모세가 창1:2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쯤은 당연히 알고 있다.

예레미야의 설교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부정적인 표현들로 가득하다. “가증한 것”(1절), “심판”(2절; 우리말 성경에는 ‘판단의 공의’라고 풀어서 번역됨), “가시나무”(3절), “악함”(4절), “멸망”(6절), “파멸시키는 자”(7절), “피폐함”(7절), “주의 맹렬한 분노”(8절), “칼”(10절),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13절), “사악함”(14절), “고통”(15절), 하나님을 거역함(17절), “패망 위에 패망”(20절), “미련한 자녀”(22절). 이스라엘을 향해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이어 나간다.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23절).

부정적이고 암울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창1:2의 표현을 인용하며 심판 문맥에다 적용을 한 예레미야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는 창1:2라는 기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법을 잘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심판(창1:2)을 자신의 대언인 미래 심판(렘4)에다가 자연스럽게 대입했다.

그러니 마귀가 현대의 근본주의 기독교계를 이용하여 이 구절에 왜 이리도 집착하는지가 이해된다. 참된 성경 신자들로부터 이 계시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8) 렘4:23은 창1:2에서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던 이유”를 알려 주는 추가 계시이다.

9) 뒷부분으로 가서 28절을 보면 “위에 있는 하늘들이(복수) 검게 되리라”라는 말이 있다.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라는 말도 실질적인 의미는 땅이 형태가 없고 비게 “된다, 바뀐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영어 be 동사는 우리말로 는 꼭 ‘이다’ 뿐만 아니라 become에 해당하는 ‘되다’의 의미를 지닐 때가 있으며, 당장 위의 28절도 be black이 ‘검게 되리라’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 아니다. 변명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으나 이것은 현실을 직시했을 때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이지 대환난기가 아니며, 우리는 고맙게도 대환난에 들어가지 않는다(할렐루야). 지금 현재 하늘은 저 구절이 말하는 것과 같은 “어둠”에 뒤덮여 있지 않으며,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 역시 지금은 표출되지 않았다. “위에 있는 하늘”도 지금은 검어지지 않았으며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나면, 창 1:2의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저 사건도 그저 지나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인 23-26절의 기록이 이상하게도 과거 시제로 기록된 것은 영원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사건은 지나간 과거 역사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일 것이다. 마치 창1:2가 지나간 역사인 것처럼 말이다!

Tabb 박사는 19세기 초에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토머스 찰머스(Thomas Chalmers)가 창1:1과 창1:2 사이에 간극을 역사상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찰머스가 내세운 이론의 전체 체계는 2절[창세기 1장에서]의 ‘was’라는 단어가 잘못 번역되었다는 문제 제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애초에 became이 되어야 한다는 뜻].” (p. 2)

성경에서 자가해설이 되는 관련 구절을 찾기 위해서는 권위역 성경에서 단어와 절들을 있는 그대로 간단히 비교만 하면 된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들먹일 필요는 전혀 없다. 본문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며 문맥의 고려 없는 인용도 금물이다. 찰머스가 이런 사실을 좀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수십 군데에 달하는 말씀 계시들을 제외하여 간극을 부정할 엉뚱한 빌미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간극 반대자들은 찰머스의 시대에 있었던 유신론적 진화론자와 싸운다는 것이 도를 넘어서서, 정상적인 성경 계시까지 거부하는 지경에 도달해 있다.

제8장

계속되는 간극의 증거들 “And”(창1:2) 속에 담긴 간극

성경에서 창1:2는 다음과 같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은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역자주-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이 구절의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는 접속사 “And”이다.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불가피하게 번역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국어에는 영어의 접속사 And와 정확하게 일대일 대응하는 문법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함을 느낀다.

And는 대개 체언 뒤에서는 접속조사(‘-과, -와’)로 번역되고, 용언의 어간 뒤에서는 연결어미(‘-고’)로 번역된다. 이것들은 형태가 간단하고 읽힘

성이 좋지만 자립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문장의 앞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 없으며, 문장 사이에서 쓰일 경우 두 문장을 하나로 강제로 연결하는 효과를 낸다.

문장의 앞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우리말 번역은 ‘그리고’라는 접속부사이다. 그러나 이것은 영어의 And처럼 모든 문장에 매번 등장시키기에는 음절수가 너무 많고 어색하며 읽힘성이 좋지 않다.

And 같은 아주 기초적인 영단어를 두고도 영어와 우리말의 사이에는 이런 큰 차이가 있으며 일관되게 번역되기 어려운 면모가 있음을 염두에 두도록 하자. 문장 앞의 접속사 And가 번역되지 않고 생략된 것은 굳이 다른 단서가 없어도 이 문장이 앞 문장과 시간 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편의상 생각하면 되겠다. 이 장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 그렇게 생략되거나 두드러지게 번역되지 않은 And를 거론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그 And에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긴 간극에 대한 단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창1:2를 시작하는 이 “And” 하나만으로도 성경적인 용례를 토대로 간극을 입증할 수 있다. 이 접속사는 두 사건을 한데 잇기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사건을 간극으로 단절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단9:26과 27을 보면 “And”를 사이에 두고 대략 2천 년이라는 간극이 있다.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and와 함께 2천 년 간극)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천 년 간극, And)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 간극은 반박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팩트이다!

사61:1,2도 “and”가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을 간극을 두고 분리시킨 좋은 예이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 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놓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또 주의 받아 주시는 해와 (2천 년 간극, and)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갇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여러분은 이 구절들의 존재를 부인할 작정인가? 이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의 면전에, 코 앞에 놓여 있다. “and”라는 단어에 담긴 이 분명한 용례 계시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는가?

“and”를 사이에 두고 1000년의 간극이 등장하는 또 다른 예로는 요5:28-29가 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1천 년 간극, and)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성경의 and에 담긴 시간 관념인 것이다. 그러니 “and”로 연결된 사건이나 문장 사이에 까마득히 긴 간극이 존재할 리가 없다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큰 비약이며 성경으로부터 받는 조명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성경의 간극들을 바르게 나누기

성령님이 사건들에 대해 서술을 하면서 사건 사이에 ‘간극’을 몰래 넣어 두는 것은 성경적인 관행이다. 하지만 우리의 많은 형제들이 안타깝게도 이것을 발견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놓치곤 한다. ‘창조론자’들이 흔히 부르는 것처럼 간극 ‘이론’ (theory)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간극은 이론이 아니라 기정사실, 즉 팩트이다. 간극은 있다. 간극을 증명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부정하는 것은 그저 그 사람의 무지와 눈 먼 상태만을 입증해 보일 뿐이다.

창1:2 같은 단일 구절에만 간극 같은 엄청난 사연이 담겨 있는 게 아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창1:2는 1장에 나오는 6일 창조의 일부일 뿐이라고 덥석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낸다. 수천 년에 달하는 간극을 두고 도래하는 시기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한데 이어서 설명하는 것은 성령님의 혼한 관행이다. 이런 예를

더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창3:15라는 한 구절에는 강해를 최소한 10쪽 이상 쓰고 설교를 10편 이상 할 만치 방대한 규모의 예언이 담겨 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AND)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마1:23)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인 예언이다. 뱀의 씨에 대한 예언(요 8:44)도 있긴 하지만 다뤄지는 비중이 매우 낮다. “네 씨”란 가롯 유다(요 6:70; 요17:12)를 가리키며 한편으로 적그리스도(살후2:7,8)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들은 창세기 3장 이후로 각각 무려 4천 년과 6천 년 남짓 뒤에 나타날 인물들이다.

한편, “그녀의 씨”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마1:23)이며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는 역시 6천 년 뒤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가 있다.

이 예언은 4천 년 내지 6천 년에 달하는 “간극”을 넘나들고 있다. 게다가 뒷부분의 진술은 시간 순서도 뒤바뀌었다. 재림 이야기가 주님의 초림보다 먼저 언급되었으니 말이다.

이런 예를 통해 볼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다음과 같은 자유를 거리낌 없이 행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 1) 문장에서 구두점 하나만으로 수천 년에 달하는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 사건을 구분함

2) 그 사건들을 굳이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기록하지 않으심

주님은 뭔가를 나열하는 데 자신만의 순서와 방법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을 끈기 있게 연구할 때에만 풀이가 가능한 형태로 말씀을 기록하시곤 한다. 그 연구 방법이란 서로 다른 사건들 사이에 숨은 간극을 잘 찾아 분간하고 구절들을 비교하고 반복하는 것이다. 성경을 잘 풀어 내면 모든 것들이 착착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다.

사례 2.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시간과 역순으로 기록된 예는 바울 서신에 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재림 때에 있을 일을 두 가지 소개하는 문맥으로, 본문은 다음과 같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AND)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살후2:1)

여기서도 서로 다른 두 사건이 “and” 라는 단어에 의해 간극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의 사건이 들어간 해설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작품이며 평이하고 간단한 진리이다.

사례 3.

사9:1,2는 다음과 같다.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의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간극]-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것은 AND조차 없이 1절의 마침표가 대환난과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을 느닷없이 갈라 놓은 경우이다. 이것도 간극 “이론”에 속하는 사례가 아니겠는가?

사례 4.

“그가 자기의 어린 수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간극]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창49:11)

여기서도 한 구절 안에 2천 년이라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 기준으로 “포도나무”(vine) 뒤에 붙은 세미콜론 단 하나가 무려 2천 년에 달하는 간극을 만드는 셈이다.

많은 형제들이 성경에 간극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을 고려해 보면 그런 생각은 그들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허구일 뿐이다. 그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팩트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의심을 품고 펼쳐 든다. 자기 신학 체계가 가르치는 귀납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교리 체계를 세운다. 이것은 그들만의 사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체계는 영락없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 귀착되며 그들은 성경 신자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고소한다. 정작 죄가 있는 쪽은 그들 자신인데도 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건 사이에 ‘간극’을 아무렇지 않은 듯 불쑥 삽입하시는 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님을

보았다. 14장에서 “세대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간극’이라는 성경 교리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And”(그리고)

창1:2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들을 하나씩 떼어서 각각의 용례를 성경 전체에서 살펴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and”라는 단어는 창 1-2에서 148회 등장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로 기록된 102종류의 개별적인 동작을 구분하는 용도로 쓰였다. 창세기 1장의 2절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개별적인 행적들이 그러하듯이 1절과는 시간적으로 나중인 별개의 내용이다. 1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욥38장)이 거주하던 우주 전체를 가리키며, 2절은 죄로 인해 야기된 혼돈을 가리킨다. 다음 3-31절은 땅이 혼돈 이전 상태로 회복되고 사람이 땅의 제2의 주인이 되어 거주하는 장면을 묘사한다(눅3:38에 따르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임). 이렇게 새 땅이 만들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6천 년 전의 일이다.

“and”라는 단어는 연결 · 접속보다는 분리 · 단절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있는” 이 땅의 나이가 약 6천 년이라는 점을 분명히 동의하며, 이 점에서는 근본주의 창조과학 진영이 주장하는 “젊은 지구”와도 견해가 일치한다. 그러나 우리가 단호히 대립하는 부분은 창1:2에 존재하는 엄연한 팩트인 간극을 그들이 점잖은 척하며 교묘하게 외면한다는 점이다. 간극이 있다는 것은 본서가 아직 절반도 채 끝나지 않은 지금이 시점에서도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것도 아무 사전도 찾지 않고(켈

트 호빈트가 하는 것처럼), 어떤 히브리어·그리스어 어휘집도 들먹이지 않고, 다른 어떤 외부 정보도 끌어들이지 않고 말이다.

피터 러크만 박사는 “and,”라는 단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간극 이론’이란 건 사실 잘못된 명칭이다. 2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시간적으로 1절의 다음에 이어진다. 이 대목에서 이론 같은 게 개입할 여지란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과학회는 창세기 1장이 27절만 제외하고 31절까지 모든 구절이 “and”로 연결된다는 점을 간과했다. 이들은 독립·병렬적일 뿐 단 한 구절도 이전 구절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2절이 1절에 속해 있다는 어리석은 가르침은 31절까지 1장 전체의 논조에 위배된다.”

(러크만 관주 성경, p. 1)

성경 전체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창1:1부터 2:3까지 34개의 구절은 102개에 달하는 동작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강조해 보인다. 그리고 1절에서 바로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중요 단어로서 본문 전체를 일관되게 관통한다. 동작들을 “and”로 줄줄이 늘어놓아서 나열뿐만 아니라 각 동작에 대한 강조의 효과도 내는 문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창22:9-11이 한 예이다.

“(And)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르니라. (and)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and)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and)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and)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And)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and)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And)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and)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또한 수22:24도 독특하지만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 예이다. And가 들어갈 것 같지 않은 문맥이고 실제로 그렇게 직역하기도 어려워서 우리말로는 다른 표현으로 번역되었지만,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이 구절에서도 앞에 And를 사용하고 있다. And를 사이에 둔 각 문장들은 상호 독립적이고 대등하게 중요하며 각각이 강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끝부분에 이렇다 할 결말이 있지 않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내용이 병렬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and”가 매번 일이 등장하지 않은 단락은 끝에 결말이 따로 존재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막7:21-22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나열인데, 23절이 결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을 보시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n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and 딱 한 번)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눅14:13도 마찬가지이다. 결말인 14절만이 “and”로 시작하지 13절에는 이 단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부르라.

(And)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보답하지 못하므로 네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특별한 강조를 할 필요가 없는 나열에서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진짜 중요한 결말부에 시선이 더 빨리 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성경에서 이런 세밀한 면모까지 따지는 것은 일반적인 근본주의자들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이긴 하다. 공룡에만 집착하느라 성경에서 구절이나 계시(눅11:52)들이 구성되어 있는 형태 같은 것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리 설교를 하고 혼들을 구원시킴으로써 행20:20을 실천할 수 있다. 또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눅4:4)들을 있는 그대로 읽고 뜻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가능하다.

“was”는 “became”이라는 뜻이다

렘4:23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땅의 상태를 나타내는 절의 주어와 서술어가 “it was”인데, 이 부분은 이탤릭체이다. 그리고 동사 “WAS”는 창1:2에서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라고 말할 때의 동사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 시점 이전에 한때는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해하시겠는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서에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곧 땅이 미래에 “**형태가 없고 비어 있게 된다는**” 뜻과 같다. 왜

냐하면 본서가 집필되고 있는 2010년대 중반까지도 땅은 아직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의 대환난 때 “형태가 없고 비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창1:2에 대한 유일하고 올바른 해석이다. 책이 책을 설명하는 법이다. 이런 순리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렘4:23에서 “it was”가 이텔릭이라는 것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주님께서 자신의 강한 손으로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을 주관하셔서 렘4:23에 “it was”를 넣게 하신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된 일이 아니다.

이 말에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성구사전을 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찾아 보자. 막14:1은 다음과 같다.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was).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흥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니”

위의 구절에서 첫 절의 서술어에 해당하는 동사는 “WAS”이다. 해당 문맥에서 보면 유월절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다가 이를 뒤에 실제로 그 날이 찾아왔다. 손님이 왔다 간 것과 비슷하게 됐다. 처음에는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니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가 그 때가 되자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은 성경에서 창1:2의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was)**”에다가도 완전히 똑같이 적용 가능한 원리이다. 땅은 최초에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런 상태가 된 것이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간단명료하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이다. 인간의 ‘논리’를 동원해 사적 해석을 끌어들이면 성경을 인문학 교양 서적쯤으로밖에 볼 수 없어진다.

근본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진영 중에도 인본주의가 워낙 깊게 만연해 있다.

성경을 적절하게 비교할 줄 아는 안목은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근간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주님을 믿고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직접 해석해 놓으신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 렘4:23에는 “반복”이 있다. 성경 전체에서 창1:2 말고 “...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 곳은 오로지 이곳밖에 없다. 그리고 그 렘4:23은 하나님께서 창1:2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해설을 하기 좋은 곳이다. 누군가가 이런 바탕에다 무언가를 더하거나 뺀다면 그 사람은 절대적인 진리를 교묘히 거부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데 거짓된 마음을 품고 하는 셈이다.

그럼 창1:2에 나오는 “was”를 보도록 하자. 이 단어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며, 같은 구절에서 또 반복해서 등장하기도 한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was)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was)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같은 단어가 다음 구절에서는 어떻게 뜻풀이가 되는지를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was)” (창1:3)

이 “was”에는 그다지 “became”이라는 뜻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독자가 계실지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도 빛은 처음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있게 된 것이며, 그래서 이 구절이 “생기다, 있게 되다”(it became light)와 같은 동사로 번역된 언어도 있다. 러시아어가 그 중 하나이다. 7, 9, 11, 15, 30절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거듭 적용된다.

성경이 얼마나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또 성구사전을 꺼내자. 이번에는 “was”와 “became”을 동시에 찾으면서 성경이 실제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 놀랍게도 동일 구절 내부에서 한 단어가 다른 단어의 뜻도 되고 다른 단어가 이 뜻도 되는 예가 심심찮게 발견될 것이다. 성경에 대한 가장 훌륭한 해설자는 역시 성경 자신인 것이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was) 네 개의 근원이 되었는데(became)” (창2:10)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became) 눈 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was).” (민12:10)

“그가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소리를 지르더라. 주의 영께서 강력히 그에게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줄들이 불탄(was) 아마같이 되어(became) 그를 결박한 것들이 그의 손에서 떨어지니라.” (삿15:14)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발을 저는(was)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전에 예스르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왔을 때에 그가 다섯 살이었더라.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였으므로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더라(became). 그의 이름은 므비보셋이더라.” (삼하4:4)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주 곧 네 하나님의 얼굴

에게 은혜를 간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내 손이 다시 회복되게 하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청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was) 전과 같이 되니라(became).” (왕상13:6)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became)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was)” (롬1:21)

대환난 때에 있을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에 대해 언급하는 또 다른 구절을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며 살펴보자. 창1:2에서 그랬던 것과 동일한 일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통해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통해 미래를 배운다. 성경이란 영원히 돌고 도는 책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주의 진노 가운데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 자리에서 옮기리니” (사13:13)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란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한다. 창1:2 때에 이미 죄가 있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더불어 타락한 루시퍼를 심판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 땅은 형태가 없었는데[없어졌는데, 없게 되었는데]...

“형태가 없고”에서의 “형태”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창1:2는 먼 옛날에 이전 세상이 완전히 폐허로 변해 있던 시절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이때 주 하나님은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막론하고 빛과 어둠의 사이에 구분을 두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재생 작업에 착수하기에 앞서, 그분은 자신의 높고 거룩한 왕좌와 그 아래에 부패한 물리적 영역의 사이에 고정된 경계를 설정했다. 그래서 양 영역을 서로 왕래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창1:6-8)

이 구절에서 설명된 궁창이라는 구조물에는 세 종류의 하늘(heaven)이 있다. 지구의 대기권은 첫째 하늘이요, 바깥 우주는 둘째 하늘이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이들보다 더 위에 물리적인 우주의 영역을 초월한 곳을 가리킨다.

주 하나님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사이에 있는 분리 지점에 “바다”를 만들어 두셨다. 이 바다는 우주의 위에 있지만 셋째 하늘보다는 아래에 있다. “궁창 위의 물”이 성경에서 또 언급되는 곳은 창1:6-10; 계4:6; 계21:1 등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처소를 그 아래의 물리적인 우주로부터 분리한 일종의 격벽이다. 격벽 위의 영역은 거룩하고 순결하다. 격벽 아래의 영역은 당장은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었지만 이전 심판 때의 죽음의 상흔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그 증거는 쉽게 발견할 수 있으니 궁금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라.

창1:2에서 “땅은 형태가 없고...” 부분을 다시 보자. ‘형태’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form”으로, 이것은 명사 외에도 동사로서 ‘짓다’, ‘조성하다’ 처럼 형태를 있게 하는 동작의 뜻도 있다. 성경을 탐구하라는(요5:39) 명령에 따라 “form”이 품사를 막론하고 창1:2의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곳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 찾아 보면, 아담이라는 사람의 몸과 관계가 있는 창2:7이 나온다.

하나님은 아담의 몸을 창조하셨는데 이 몸은 온전하고 완벽했다. 형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숨만 불어넣으시면 되었다. 성경에는 아담의 몸이 땅의 흙으로부터 지어진 뒤에 하나님께서 또 형태를 만든 다거나 잘못 만들어진 것을 바로잡는 식의 “추가 작업”을 하셔야 했다고 적혀 있지 않다. 지어지고 나니 이미 모든 것이 잘 돼 있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다. 이것들은 완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흠이나 착오나 어둠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다(창1:1). 마치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하셨도다. 그분께서 귀먹은 자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신다” (막7:37)처럼 말이다. 공교롭게도 이 구절도 사람이 어떤 장애로부터 회복된 문맥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치료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병어리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시고 나면 모든 것이 재발 없이 “완벽하게” 치료되었다. 그분은 각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장애 상태”에 해당 조치를 취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형제여, 독자도 처음에는 “타락 상태”였지만 구원받은 뒤부터는 아무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거듭난 상태가 되어 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하셨도다.” 당신은 구원받고 나서는 그 즉시 “새로운 창조물(creature)”(고후5:17)이 되었다. 무생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창조 세계(creation) 정도가 아니다. 이 변화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정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가는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여지가 없다. 이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행해진다. 혼의 구원이 긴 시간을 통해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딘가에 단단히 속은 사람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도(창1:1) 그 창조는 단 한 군데에도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하게 이뤄졌다. 이것은 여러분의 견해나 특정 단체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한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은 말씀을 통해 존재하게 된 거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런데 땅은 창조된 뒤에 보니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굳이 히브리어를 들먹이지 않고 본문의 단어를 became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여기서의 “was”는 의미상 became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의 추가 계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처음 창조되던 당시에는 땅에 형태가 있어 빈 상태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다. 파멸을 당한 “폐허”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변형하시고자 한다면 이를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formed)”(욥26:13).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물을 “구부러뜨린” 이유는 그 뱀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뼈뚫하게 먹었기 때문이다(겔28:15; 사14:12). 뱀이 먼저 뼈뚫하게 구부러졌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뱀을 구부러뜨리셨다. 파라오가 자기 마음을 강박하게 하게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출8:15,32) 하나님 역시 그의 마음을 더욱 강박하게 만드신(출7:13) 것과 같은 이치이다.

동사 “form”에 대한 계시를 더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FORMETH) 이가 말하노라.” (슥12:1)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으실 때는 언제나 제대로 하신다는 원칙이 발견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공급해 주시는데 설마 “형태가 없고 빈” 영을 주실 리가 있겠는가? 이 스가라서 구절은 창2:7과도 정확히 연결된다. 슥12:1에 비추어 창세기 구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1.)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formed)” (이 자체로 완벽한 과업임)
- 2.)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이것이 바로 속12:1이 말하는 장면이다.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셨으니”(form) 말이다. 이 역시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이뤄졌다.)
- 3.)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완벽하다. 죄, 사망, 어둠 같은 건 없다.)

그러니 성경의 진술 방식에 따르면, 하나님의 행적에 뭔가 불완전한 중간 과정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 간극 반대자의 논리는 개입할 여지가 “원천 봉쇄” 된다.

이 시점에서 Tabb과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간극 지지자들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와 연계를 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사45:18이다. 그들은 창1:2과의 표현 일치를 입증해 보이기 위해 일부러 KJV 대신 RV를 인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전에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이 역시 거짓 진술을 토대로 한 거짓 고소이다. 자기 주장을 입증해 보려고 다른 성경 역본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필자를 포함하여 오로지 킹 제임스 성경만으로 간극을 얼마든지 입증하는 진영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뭔가를 입증하기 위해 다른 역본을 결코 사용한 적이 없다. 우

리는 ‘최초 언급의 법칙’을 따라 1611년도 킹 제임스 성경에서 동일 단어의 용례를 추적하고, 성경의 명령에 따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기(요5:39)만 했을 뿐이다. 고전2:13이 말하는 것처럼 동일한 표현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어떤 문맥 하에 반복되는지를 살폈으며, 이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단어에 대해 직접 해석을 하게 했다. 명사(딤후1:13, 우리말로는 ‘틀’이라고 번역됨)와 동사(사45:18, ‘조성하다’라고 번역됨)를 막론하고 성경에서 “FORM”이 나오는 곳을 보자. 성경이 자신의 용어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과연 착오가 있을까? 창1:2의 “**형태가 없는**”(without form)이라는 부분만은 성경의 전체 원칙에서 과연 예외에 해당할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사야가 말하는 부분을 보시라.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FORMED) 만들며 건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FORMED).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표면 위에 추가로 놓인 것들이나 땅 속에 묻힌 것, 혹은 땅 위에 떠 있는 것들은 땅의 “형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간극 반대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반죽 덩어리”에서 시작해서 6일간의 “과정”을 통해 땅의 “형태”를 조성하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조성하셨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때 이미 다 조성된 것이고 형태가 있었다. 사람에게 대해서 영어로 ‘out of shape’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상태가 좋았다가 엉망진창이 된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창1:2를 보면 땅은 최초에는 형태가 있다가 이미 “형태가 없어진” 상태였다.

사실을 얘기하자면 이러하다. 창1:1에서 만들어진 땅에는 아담 이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다. 왕좌와 통치와 정사와 권능도 있었다(욥38:4-7; 골1:16-17). 단지 아담과 같은 사람만 없었던 것이다.

Tabb의 설명은 창조의 순서를 누락시켜서(누락? 이브 안녕!)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려는” 사탄적인 시도이다. 먼저 영적 존재들이 창조되었고 그 뒤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 땅은 한번 창조물들로 복적인 적이 있었지만 형태가 없고 비게 되었다. 어둠이 나타나기도 전, 문자적인 24시간 단위의 옛세 동안 이 세상이 창조(창1:3에서부터 시작)되기 전, 아담과 이브가 태어나기도 전에 말이다.

우리는 문자적인 창조를 믿는다. 우리는 분명히 창조론자이며 우리를 “유신론적 진화론자”라고 모함하는 형제들의 거짓 고소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문자적인 성경 해석으로부터 얻는 건전한 교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현대의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그리고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이와 무관하게 수많은 성경 구절들은 창1:2에 간극이 있음을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 Ham, 호빈트, 모리스, Tabb 같은 현대의 창조론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토록 많은 계시들을 깡그리 부정하고 계시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어디에서 오류에 빠지고 걸려 넘어졌는지를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허함”(void)

우리가 창1:2에서 다음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영어 단어는 “void”이다. 이것은 우리말로는 ‘텅 빔, 공허함’을 나타내는 체언 내지 관형어로 번역되며, 때로는 무언가가 무효가 됐다는 뜻의 법률 용어로도 쓰인다. 그리고 이것은 “**형태가 없고**”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심상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된 추가 계시를 얻기 위해 성구사전에서 “void”의 용례를 쭉 찾아 보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창1:2의 다음에 “void”를 사용하신 곳은 민 30:12이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듣는 날에 그것들을 철저히 무효로 만들면(made them void)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의 혼을 속박하려던 일에 관하여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유효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었은즉(made them void) 주께서 그녀를 용서 하시리라.”

“made them void”(무효로 만들다)라는 구는 12, 13, 15절에서 등장한다. 그 뜻은 너무 간단하고 명백하니 다른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앞의 10, 11절을 통해 문맥을 보면 아내의 서원이나 속박 맹세는 그녀의 남편이 무효화해 버리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아담은 이 원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낭패를 봤다. 자기가 오히려 양보해서 이브의 잘못된 말을 따랐기 때문이다. 사탄은 이브를 시험하여 먼저 타락시키고, 가정의 머리인 아담까지 덩달아 타락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앞에서 “**형태가 없고**”를 논할 때 정립한 원칙을 이 부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원래는 형태가 있었다가 나중에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장의 실질적인 의미는 BECAME과 같음을 예레미야서와 대조하여 확인했다. void도 이와 같다. 민30:12에 따르면, 아내가 말한 내용들은 처음에는 유효하다가 남편이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된다. 즉, 의미상 BECOME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덮는 그룹**”(사14:12,13; 겔28:15)의 말과 의도를 간파하시고는 이로 인해 땅을 “**형태가 없고 비계**” 만드셨다. 민수기에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이와 동일한 맥락인 것이다. 사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심판하시고 그 결과 void가 야기되었듯,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이나 계획을 할 경우 가정의 머리로서 이것을 무효로 만들어야(make void) 할 책임이 있다. 욥이 좋은 예이다.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욥2:9)라고 악담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응했다.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의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10절) 욥은 아내의 말을 무효로 만들었다.

참 쉽지 않은가? 권위역 킹 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땅은 텅 비게 “**되었다.**” 이 사실을 해석해 내는 데는 그리스어고 히브리어고 주석서고 다른 신학자고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말씀의 자가해석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르면, 그녀의 말은 처음에는 무효가 아니다가 나중에 무효로 바뀌는 순간부터 무효가 된다. 그러니 “**되다**”(BECOME)가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롬11:33)

민30:12의 이후에 “void”가 등장하는 곳은 신32:28이다. “그들은 분별없는 민족이며 그들 안에는 명철이 없도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분별없는 민족이라고 묘사될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죄 때문에 분별없는 민족이 “되었기”(became) 때문이다.

“주의 종의 언약을 무효로 만드시오(made void) 그의 관을 땅에 던지사 더럽게(profaned) 하셨으며” (시89:39)

그들은 죄로 인해 언약을 무효로 만들었다. 성경에 따르면 “VOID”는 ‘부정적인’ 단어이다. 이 사실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창조론자’ 진영의 형제들은 오래 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땅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초기 상태나 중간 과정이 “형태가 없고 비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는” 줄로 안다.

하나님께서 “VOID”라는 단어에 대해 스스로 무어라 말씀하시는지를 더 살펴보시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담긴 점진적 계시라는 절대적인 빛을 그저 계속 거부하시겠는가?

“그들이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었사오니(made void),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시119:126) 여기서도 그들이 법을 쓸모없게 만든 원인은 죄이다. 법은 처음에 만들어지던 때부터 아무 효력이 없는 사문 상태가 결코 아니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이 법을 쓸모없게 만들었고 그래서 쓸모 없어졌을(BECAME) 뿐이다.

“단순한 자들 가운데서 살피다가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해 내었노라.” (잠7:7) 단순한 자가 명철이 없는 이유 역시 죄 때문이다.

이 정도면 법칙이 하나 발견될 만도 하다. 죄는 “void”를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말이다. 잠 10:13에 따르면 체벌을 당하는 사람은 “명철이 없는(void of) 자”이다.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VOID)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사55:11)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효가 되게 하고(VOID)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칼에 쓰러지게(FALL) 하며 또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쓰러지게 하고 그들의 사체를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며” (렘19:7)

한 구절에서 “void”(무효화)와 “fall”(쓰러지다)이 병렬되었음을 주목하라. 둘 다 ‘부정적인’ 단어이다. 그러니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void)” 것도 사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 그가 통치하던 것들을 거둬 가신 상태임이 재차 확인된다.

그 다음으로 나훔서를 살펴보자.

“그녀가 텅 비고(EMPTY. 부정적임) 비어(VOID. 부정적임) 피폐하게

(WASTE. 부정적임) 되었도다. 마음이 녹으매(부정적임) 무릎들이 서로 부딪
히며(부정적임) 모든 허리에 큰 고통이 있고(부정적임) 그들의 얼굴이 다 검
게(부정적임) 되는도다.” (나2:10)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완결되지 않아서 아직 공허
한(VOID) 상태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도저히 성립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오류 없이, 그리고 그 어떤 헛됨이나 공허함(VOID)도 없이 이루
셨다. 그랬는데 땅은 나중에 창1:2에서 렘4:23과 같은 맥락으로 “형태가 없
고 비게” 되었다(BECAME).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벧후3:7)도 미래에 교
회가 휴거된 뒤에는(살전4:16-18) 대환난 때 형태가 없고 ‘비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 대환난도 큰 이변이긴 하지만 이것은 천년왕국
이후에 하늘들과 땅이 모조리 녹아 없어지는 사건(벧후3:7b, 10-13)에 비하
면 맛보기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성구사전을
펴서 “void”라는 단어의 용례를 추적하는 중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
로 말씀하시게 했다. 그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
천은 성경을 해석할 일이 있을 때 성경 자체의 일관된 증언을 듣는 일에 익
숙해져 있어야 한다. 그 증언을 충분히 듣기도 전에 우리의 사건이 불쑥 끼
어들어서는 안 된다.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
음이요, 수치니라.” (잠18:13)

시간과 지면 관계상 이 단어 하나만 한없이 붙들고 있기는 곤란하나, 하
나 더 사24:1에 있는 주님의 속성을 지나치고 갈 수는 없을 듯하다. “보라,

주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피폐하게 하시고 뒤집어엎으시며 땅의 거주민들을 널리 흠으시리니”

이 말씀에 따르면 “땅을 비게 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더 중요한 질문이 나와야 한다. 주님께서 그런 일을 “왜” 하시느냐 말이다. 본문은 아무 형체가 없고 긍정·부정 심상 따위도 없는 물질 반죽으로부터 하나님은 무슨 꽃병이라도 만드시는 듯한 상황이 결코 아니다. 문맥을 보면 모든 것이 명백해진다. 이것은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땅을 비게 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음 구절인 2-12절을 보면 “이자”(2절), “땅이 철저히 비워지고”(3절), “오만한 백성”(4절), “또 땅이 자기의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으니 이는 그들이 법들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며 영존하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5절), “혼동”(10절), “기쁨이 어둠으로 변함”(11절) 등 온통 부정적인 내용밖에 없다.

이 본문의 사건과 렘4:23의 인과관계는 서로 동일하다. “그때의 세상”(벤후3:6)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던”(창1:2) 이유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벤후3:7)이 그런 흥측한 상태(렘4:23)에 있게 되는 이유와 동일하다. 이런 하나님의 일관된 계시를 간과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상당 부분을 통째로 무시하는 것과 같다. 많은 ‘창조론자’ 형제들이 이런 오류를 답습하고 있다. 롬5:12라는 단 한 구절에만 쫓혀서 그것 하나만 입증하려다 보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더 큰 그림을 묘사하는 다수의 다른 관련 구절들을 깡그리 무시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된다.

“어 둠”

지금까지 논한 것들 말고도 부정적인 심상이 담긴 단어가 또 있으니 바로 “어둠”이다. “어둠”이라는 단어는 창1:2에서 최초로 언급된다.

그 뒤 두 번째로는 4절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에서 언급된다. 하나님은 빛을 보고는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다.” 이것은 반대로 말해 어둠은 좋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둘째 날을 보면 하나님은 공창을 만드셔서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 여기서는 더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날과는 달리 이 날만은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걸 굉장히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 없다. 왜 없는 것일까? 거기서 엡 6:12가 묘사하는 것처럼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딤후2:15)고 말한다. 창 1:2의 문맥에는 분할, 즉 “나눔”이 존재한다. 여러분이 그 분할을 이행하지 않으면 성경의 해석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다.

창1:1과 1:2 사이에 간극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인 M.H. Tabb 박사는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하였다.

“출20:21을 보니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짙은 어둠 속에 계셨다. 간극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어둠이 부정적인 존재라면 어둠에 둘러싸여 계신 하나님도 악하다는 말인가?”

그는 성경을 제대로 찾아 보지도 않고 이런 질문을 불쑥 던졌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그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

Tabb은 “짙은 어둠”이라는 게 성경의 다른 곳에도 등장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성경적인 해답을 구하려면, 고전2:13에 나오는 지침에 따라 성경 전체에서 동일 단어의 다른 용례를 찾아 봐야 한다. 그래야 성령님의 성경 기록 방식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풀이해 놓으신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질문만 달랑 던져 놓고 답변 없이 독자에게 이를 떠넘기는 것은 사탄이 이브에게 한 행동과 비슷하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그 뒤부터 마귀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으니 말이다(창3:1-6).

“짙은 어둠”에 대한 최초 언급의 법칙

성경에서 “짙은 어둠”이라는 것이 최초로 등장하는 곳은 출10:22이다. 이 구절 하나만 봐도 짙은 어둠이 무엇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역시 심판이다. 창1:2의 “어둠”이 그저 창조 과정의 일부일 뿐 심판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명 불편한 진실이라고도 표현되는 부정적인 진리를 회피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은 성경에서 “짙은 어둠”에 대해 최초로 계시를 하는 말씀이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

매 짚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온 땅에 있었으므로”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답은 다 나와 있으니 여러분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이집트에 내려졌던 이 심판은 마22:13을 포함해 벰후2:17, 유 13이 말하는 “바깥 어둠”의 마이너 맛보기 급이다. 이 심판은 대환난 때 땅에 또 임하여 출애굽기의 사건을 재현할 것이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 부으매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계16:10)

이 어둠은 ‘긍정적인 창조’와는 아무 상관 없음이 명확해진다.

“짚은 어둠”에 대해 “근본주의자”들의 대다수가 놓치고 있는 결정타 계시를 더 얻고 싶다면 출19:14-18로 가도록 하자. 각 구절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라.

1.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 (14절)
2. “... 천둥과 번개와 짚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 (16절)
3. “시내 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18절)

간극 반대자들을 나가떨어지게 하는 구절은 18절이다. 시내 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했다.” 왜 연기가 자욱했는지 이유를 Tabb 박사가 저 본문을 읽고 선뜻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답을 굳이 말하자면 이렇다.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눈이 멀어서 아직도 감을 잡지

못하는 형제들을 위해 모세는 성령님의 영감 하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계속해서 남겼다.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

그렇다. 어둠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으로 인해 만드신 부산물이지만 물리적인 근원을 따지자면 불 내지 물과 구름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신4:24; 6:25; 9:3; 히12:29)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계셨다. 이때 유대인들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심판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다. 출20:18-21을 보자.

1.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 하나이다, 하매” (19절)
2.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이것을 볼 때에 이동하여 멀리 서서” (18절)
3.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으로 가까이 가니라.” (21절)

M.H. Tabb의 질문을 다시 인용하도록 하겠다. “출20:21을 보니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짙은 어둠 속에 계셨다. 간극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어둠이 부정적인 존재라면 어둠에 둘러싸여 계신 하나님도 악하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제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 당연히 하나님은 결코 악하지 않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형태로 인간에게 오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일 뿐이었던 것이다. 그 상황에서 “짙은 어둠”이 왜 있게 되었는지 근본 원인을 생각하지 않은 채, 결과만 잡고 늘어지면 논리적

비약이 초래된다. 그래서 멸절히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계시를 통째로 놓치게 된다. 주님께서 당대의 율법사들을 정죄하신 것도 이와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다.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눅11:52)

그럼 신5:22,53을 보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련된 어둠 논쟁은 이걸로 완전히 끝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어둠은 불(연기)로 인해 야기된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 가능하다. “(산이 불에 타므로) 너희가 어둠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너희 곧 너희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와 너희 장로들이 내게 가까이 나아와” (23절)

“어둠”은 가림막 또는 방어막 역할을 함

성경에서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리고 다른 부분을 보면 어둠이라는 것이 가림막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딤후6:16)을 감히 보고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한낮에는 태양조차도 너무 눈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 그럼 하물며 절대적인 “빛”이신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요일1:5)

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과 자신의 사이에 격벽을 두시게 되었다.

“짙은 어둠”이라는 단어는 왕상8:12에도 언급돼 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여기서 짙은 어둠은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상해를 입지 않게 해주는 가림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동일 구절은 대하6:1에 반복되어 있다.

필자의 지인 중에도 어둠이 성경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심상이 아니라는 증거를 스스로 발견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으스스대면서 대하6:1을 펼쳐 보았다. 그래서 필자는 그 구절의 문맥을 살펴보았다. 5:14부터 보면 “구름”이 언급된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

왕상8:12(대하 6:1 포함)가 묘사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며, 아울러 시 18:11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Tabb은 어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하는데, 사실은 그냥 인용이 아니라 잘못된 인용에 가깝다. “그분께서 어둠을 자신의 은밀한 처소로 삼으셨으니...” 뒷부분 “곧 어두운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이 그분을 둘러싼 그분의 천막이 되었도다.”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이 구절을 어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 얼마나 경악스러운 노릇인가! 사탄은 불신자가 아닌 크리스천조차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빠앗아 가는” 기술을 구사한다. Tabb은 성경 말씀에 끝을 맺지 않았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 (롬13:9 중)

“짙은 어둠”을 묘사하는 구절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thick cloud가 “짙은 구름”뿐만 아니라 “빹빹한 구름”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다.

“그분께서 어두운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로 자신의 주변에 어둠의 천막을 삼으셨으니” (삼하22:12)

“그런데 너는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느냐? 그분께서 어두운 구름을 뚫고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빹빹한 구름들이 그분을 덮은즉 그분께서 보지 못하고 하늘의 순환 회로에서 다니실 뿐이라, 하는도다.” (욥22:13,14)

“물들을 자신의 빹빹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욥26:8)

“그분께서 어둠을 자신의 은밀한 처소로 삼으셨으니 곧 어두운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이 그분을 둘러싼 그분의 천막이 되었도다.

그분 앞에 있던 광채로 말미암아 그분의 짙은 구름들과 우박들과 불타는 솟들이 사라졌도다.” (시18:11,12)

존 길(John Gill; 1697-1771. 찰스 스펔전의 이전에 활동한 영국의 목사 겸 신학자)은 시18:1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뒷부분에 나오는[Tabb이 인용하지 않은 후반부 절] 어두운 물들은 병렬

로 등장하는 짙은 구름들과 역할이 동일하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것들로 감싸고 자신을 숨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밀한 처소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부끄러운 게 있더라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고 숨으신 것이 아니다. 그건 욥22:13,14에도 나오듯이 인간적인 악한 생각일 뿐이다. 이것은 그와는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것이 시18:11뿐만 아니라 욥22:13,14에 대한 바른 해석이다. “그런데 너는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느냐? 그분께서 어두운 구름을 뚫고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뿔뿔한 구름들이 그분을 덮은즉 그분께서 보지 못하고 하늘의 순환 회로에서 다니실 뿐이라, 하는도다.” 영어 문장 Thick clouds are a covering을 직역하면 구름들이 그분에게 ‘덮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Tabb 형제는 사45:7을 근거로 창1:2에 죄와 타락과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단 교리를 주장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Tabb은 하나님께서 친히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이사야서에 적혀 있으니 어둠 역시 중립적이고 나쁘지 않다고 본문을 잘못 해석했다. 그럼 저 구절에서 어둠과 짙을 이루는 재앙에 대해서 성경이 무어라 말하는지를 아모스서에서 찾아 보자.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암3:6)

어둠과 재앙을 일관성 있게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이러하다. 하나님은 재앙이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만큼이나 어둠이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암3:6의 뒷부분을 다시 보자.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창조하시고 재앙의 발생을 허락하셨음을 뜻한다.

사45:7에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호빈트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둠이시거나 어둠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물이지는 않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요일1:5) 여러분이 그분의 계시를 받아들인다면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계시를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어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위해 어둠을 창조하실 권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자신이 어둠은 아니다. 하나님은 빛이며 그냥 빛이 아닌 절대적인 빛이시다. 단지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며 그 결과로 어둠이 야기되는 것이다.

창1:2의 어둠에 대해서 데이비드 E. 워크 박사의 설명을 인용하도록 하겠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짙은 어둠’이 등장하는 곳이 있다(출20:21; 신4:11; 왕상8:12; 대하6:1; 시18:8-11; 시97:2). 이 어둠은 그 자체가

‘선한’ 속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죄성을 지닌 창조물과 격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셨으니 어둠도 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둠의 존재 목적과 의도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다.”

(〈성경 신자를 위한 세대주의 가이드〉, p. 228)

100% 절대적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설명이다. 창1:4에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빛으로부터 나누신 것을 통해서도 이 사실이 재차 확인된다. 주님은 태양계의 운동을 수단으로 삼아 “낮”과 “밤”에도 구분을 두셨으며(창 1:18),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준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격(Godhead)은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히11:3)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근본주의자들이라 해도) 변명할 수 없느니라.” (롬1:20)

시내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으로 가까이” 나아갔다 (출20:21).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화하실 때 계신 곳은 “산 위의 짙은 구름” 속이었다. 주님은 구름 속 긍휼의 자리에 거하셨다(왕상8:12). 시 97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일의 불가사의함을 묘사하면서 2절에다가 이렇게 썼다. “구름들과 어둠이 사방에서 그분을 두르나니 ...” 하나님은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신다. 성경에 따르면 어둠(사13:9,10; 마24:29)은 주님의 오심으로 인한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다.

우리는 추가 계시를 통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배운다. 그리고 과거를 연구함으로써 미래에 있을 일을 알기도 한다. 성령의 영감 하에서 솔로몬은 적그리스도라는 악인에 관한 추가 계시를 남겼다.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혼에게 기쁨이 될 때에는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 내리라.
 그들은 곧바른 행로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걸으며
 악 행하기를 기뻐하고 사악한 자들의 비뚤어진 것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의 길들은 구부러지고 그들은 자기 행로들에서 비뚤어진 자들이로
 다.” (잠2:10-15)

여기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들
 이 몇 가지 있다.

- 1.) “악한 자”(the evil man)는 정관사와 함께 단수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나타낸다.
- 2.) 게다가 여기서 “man”이라는 단어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
 탤릭체로 표기되었다. 번역자에 의해 덧붙여진 추가 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3.) 13절에는 “어둠”이라는 단어가 있다(우리말로 직역하면 ‘어둠의
 길’).
- 4.) 그리고 바로 다음 14절에는 “악”이 뒤따른다.
- 5.) 같은 구절의 후반부에 “사악한 자들”이 있다. 이 사악한 자들은 벤후
 2:7에 나오는 “사악한 자”들과도 일맥상통한다.
- 6.) 끝으로, 이런 자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다.” 리워야단을 닮았다(사

27:1).

본문의 모든 문맥은 창1:2에 나오는 “어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성경이라는 책은 영원한 책이며 계시가 더해짐으로써 독자가 과거를 잘 이해하게 해 준다.

믿는다고 하는 형제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짧은 지구 창조론을 주장하고 자기 주장을 책, 테이프, DVD, CD 등의 매체에다 알린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롬5:12가 유효한 범위 하나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창1:2-5에 있는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창1:2-5)

시간적으로 창1:1보다 더 먼저 시작하는 책은 요한복음이다. 이 책은 창 1:1-5와 비슷한 형태로 시작한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1:4-5)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며 빛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있다. 어둠은 빛을 분간해 내지 못한다.

피터 러크만 박사는 요1:5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빛’과 ‘생명’을 이렇게 서로 짝지었으니 그럼 시36:9로 되돌아가기로 한다.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빛(조명)을 받지 않으면 ‘그 빛, 진짜 빛’을 볼 수 없다. ‘그 빛’을 볼 수 있게 ‘빛’을 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119:105)

‘빛’이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창1:3(“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과, 엡6:12에 등장하는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을 눈여겨보자. 성경에 따르면 영적 사악함이 “높은 처소들”(high places)에 있다고 하는데, 1611년도 권위역 성경에서 사24:21을 보면 “높은 처소들”에 대한 더 향상된 ‘빛’을 얻을 수 있다. 지난 1900년간 그 어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학자들도 원어 원문에서 얻지 못한 빛을 말이다. 이런 어둠이 있는 “높은 처소들”은 최하 성증권 이상의 상공을 가리킨다(사 24:21). 옛새 동안 모든 날과는 달리 둘째 날 창1:7에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하늘의 처소”에는 지구 상의 그 어떤 왕, 권력가, 독재자, 지도자, 국회의원, 황태자, 회장, 교황, 심지어 ‘UN 사무총장’ 등의 지위를 훨씬 능가하는 “정사와 권능”이 존재한다.”

(《성경 신자용 주석서 시리즈》 p. 10)

성경을 찾아 보면 하나님 자신의 절대적인 빛이든 태양의 빛이든 빛을

가려서 어둠(창1:2)을 야기시키는 장애물이 나오며 과거 홍수에 대한 기록도 두 번(창1:2; 6-8) 있다고 나온다. 이것들은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한 치의 예외 없이 심판의 결과이지 창조의 결과가 아니다.

잠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찬란하고 영원한 놀라운 모든 영광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완벽하고 의롭고[“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도다.” (시92:15)고 했으므로] 영광스럽게 행하신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 “...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요일1:5) 또한 아무도 그분의 절대적인 빛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 (딤후4:16) 그분은 죄를 결코 짓지 않으신다. “...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요일3:5)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아예 지으실 수 없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잘하신다.” (막7:37) 그래서 하늘과 땅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창1:1).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상하게도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드리워진” 상태인 땅이 불쑥 튀어나온다. 이진 짧은 지구 ‘창조론자’가 납득하기 곤란한 부분일 것이다.

이번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 보겠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상황을 생각하자(사65:17). 이 새로운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고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뭔가 불완전하고 잘못된 구석이 있길래도 했다는 뜻인가? 혹은 땅은 그저 우연히 어찌다 보니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는데”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2의 하

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는 제대로 된 형태가 있고 비지도 않았으며 어둠이 없게 될 것이라는 뜻인가?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처음에는 ‘올바르게’ 행하시지 않다가 그 다음엔 방식을 약간 바꾸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격하하는 사고방식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면 이걸 진화론적인 발상이다. 무언가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진화론의 핵심 아니던가. 하나님께서 비어 있고 캄캄한 어떤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뭔가 근사하고 내용물이 있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갔다는 얘기야말로 신만 개입했지 진화론처럼 들린다. 간극을 부정하려다 보니 결국 이런 결론이 나는 것이다.

“어둠”과 십자가 심판

성경에서 “어둠”이 등장하는 곳은 여기뿐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는가? 그때에도 어둠이 깔렸다. “이제 여섯 시부터 아홉 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마27:45)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시간이었으며, 이로 인해 주변이 캄캄해진 것이다. 이것은 어둠이 죄와 및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이는 의미심장한 장면임과 동시에 “어둠”에 대한 창1:2의 ‘최초 언급의 법칙’을 보충하는 추가 계시이다.

현대의 라오디게아 크리스천들은 창1:2의 “어둠”이 선하거나 최소한 중립적이고 악으로부터 유래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사야는 이들을 향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

어다!” (사5:20)라고 말했다. 창1:2의 어둠이 좋고 선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어둠”과 “악(화, 재앙)”

켄트 호빈트를 포함해 많은 근본주의자와 창조론자들은 창1:2에 나오는 어둠이 악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는 큰 문제가 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창3:6) “악”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2:9)

아담의 타락 이전부터 악이라는 게 있었으니 우리는 성경 어딘가에서 어둠과 악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주신다.

“내가 복을 바랄 때에 환(EVIL)가 내게 이르렀고 내가 빛을 기다릴 때에 어둠이 이르렀도다.” (욥30:26) 성경은 악이 어둠과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 이 평범하고 단순하고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진리에는 그 어떤 주석서, 어휘집, 신학자나 교단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우리말 성경은 EVIL이 ‘악’ 그 자체뿐만 아니라 악이 발현된 형태인 재앙이나 화로도 번역되기도 했을 뿐이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 어다!” (사5:20)

사탄은 이브에게 뭔가 “먹기에 좋은”(창3:6) 것을 주었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악이고 재앙이었다. 악은 마귀로부터 온다. 그리고 문장의 적용 대상이 복수형인 것에서 알 수 있듯, 마귀는 패거리를 좋아한다. 죄는 패거리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들의 길이 어둠 속에 있는 미끄러운 길같이 되고 그들이 쫓겨나 그 안에서 쓰러지리니 이는 내가 그들 위에 재앙 곧 그들을 징벌하는 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렘23:12)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단일하면 네 온 몸도 빛으로 가득 하되 네 눈이 악하면 네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눅11:34)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3:19)

마지막의 요한복음 구절은 마귀의 행위가 악함으로 인해 어둠이 있게 되었음을 실질적으로 보여 준다.

“어둠”과 “악”이 동일한 심상에서 같이 등장하는 예로 아래 구절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사45:7)

“어둠”과 사망

어둠은 사망과도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근본주의자 형제들을 위해 이번에도 인간의 사건이 아닌 성경의 증언을 알려 드리겠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낮을 얼룩지게 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낮 위에 거하였더라면, 그 낮의 캄캄함이 그 낮을 무섭게 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욥3:5)

“내가 돌아오지 못할 곳 즉 어둠과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소서.

어둠의 땅은 어둠 그 자체와 같으며 사망의 그늘진 땅은 어떤 질서도 없고 거기서는 빛이 어둠 같으니이다, 하니라.” (욥10:21,22)

“어둠 속에서 깊은 것들을 찾아내시고 사망의 그늘을 빛으로 끌어내시며” (욥12:22)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숨을 만한 어둠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욥34:22)

위의 구절을 보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연결돼 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 (살후2:7)

“주 너희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들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너희가 빛을 찾을 때에 그분께서 그 빛을 사망의 그늘로 변하게 하사 짙은 어둠으로 만드시기 전에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렘 13:16)

죄에 대한 심판으로 어둠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도를 아시고 루시퍼의 마음을 아셔서 짙은 어둠이 있게 하셨다. “... 네 눈이 알하면 네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눅11:34)

아담 이전에 사망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은 너무도 명백히 성경적 진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어둠”과 “심판”

어둠이 악이나 사망 같은 온갖 부정적인 것들과 관계가 있음을 성경(주석서, 신학 서적, 어휘집, 히브리 · 그리스어 원문이나 사전이 아니라)을 통해 지금까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둠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

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벤후2:4)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유 6)

이 두 구절은 일차적으로는 노아의 홍수 시기에 죄를 지은 천사들이 어찌 되었는지에 대한 계시이다. 그러나 이것은 더 옛날 창1:2의 시기에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를 보이는 “추가 계시”이기도 하다. 창1:2에서 타락한 영적 존재들은 둘째 하늘로 쫓겨났으며 셋째 하늘로는 결코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원래 살던 처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큰 흰 왕좌 심판 때 또 최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 교회 시대에 거듭난 모든 크리스천들은 천사를 재판하게 된다(고전6:3).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오곤 한다. “루시퍼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럼 홍수는 왜 발생했는가? 하나님은 왜 창조 세계 전체를 심판해 버리셨는가?”

답은 간단하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온 땅을 홍수로 쓸어 버리고, 여덟 명의 혼으로부터 인간 경륜을 처음부터 재시작하셨다. 그것과 같은 이치로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홍수로 쓸어 버리고 재창조(창 1,2)를 통해 세상을 그저 처음부터 재시작하신 것일 뿐이다. “어둠”의 존재 목적을 혼동해서 이것도 여느 창조물과 마찬가지로 창조의 일부(긍정적)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창1:2와 연결되어 있는 구

절들은 모두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부정적. 딤후2:15)과 관계가 있다.

미래에는 과거가 덩달아 언급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 하늘들과 새 땅(계 21,22)으로 또 재시작을 하실 것이다. 이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일이지 않은가?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어둠”과 “심판”이 동일 구절에서 같은 심상으로 언급되는 참조 구절들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97:1-4를 보자.

1 주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기뻐하며 땅의 많은 섬들은 그것을 즐거워할지
어다.

2 구름들과 어둠이 사방에서 그분을 두르나니 의와 판단의 공의는 그분의
왕좌가 있는 처소로다.

3 불이 그분 앞에서 나가 사방에서 그분의 원수들을 태우는도다.

4 그분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문맥은 이보다 더 명백할 수 없다. 말씀의 양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단련되지 못한 사람만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지상 통치(1절)을 다루고 있다. 2절에는 “구름”, “어둠”, “심판(판단)”이 나오며 이것들은 3절의 “불”, 즉, 그분의 원수들을 태우는 수단과 연결되어 있다. 심판이 등장하기에 아주 적절한 상황이다.

“구름”(2절)과 “불”(3절)은 “어둠”을 만들어 내며 “어둠”은 “심판”과 관계가 있다. 아주 명쾌하다!

다음으로 삼하22:8-12를 보자.

8 그때에 땅이 흔들리고 떨어졌으며 하늘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로다.

9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것에 의해 숲이 피었도다.

10 그분께서 또한 하늘들을 휘시고 내려오시니 어둠이 그분의 발밑에 있
었도다.

11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시매 바람의 날개들 위에서 보이셨도다.

12 그분께서 어두운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로 자신의 주변에 어둠의
천막을 삼으셨으니

뒷부분을 마저 읽어 보면(13-17절) 이 본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지 창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요컨대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성경 구절들은 창조와는 절대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 어떤 이들이 창1:2만은 그렇지 않고 창조와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이는 절대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어둠은 언제나 심판과 관계가 있다. 창1:2가 그러하고 나중에 등장하는 다른 구절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서로 참조 관계를 맺으면서 거대한 계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성품은 어떠하며, 죄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며 심판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야기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그 네트워크에 담기는 것이다. 성경은 참으로 엄청난 책이다.

욥2:2-3을 보자.

2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 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해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로다.

3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도다.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로다.

여기서도 “어둠”은 “구름들”과 “짙은 어둠”(2절), 그리고 연기 구름을 만들어 내는 “불”과 연결되어 있다.

창1:2에서 어둠이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정이 하양과 같고 초록이 빨강과 같으며 1+1이 3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어둠”, “사망”과 “불법을 행하는 자”

우리는 앞에서 어둠이 사망과 및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숨을 만한 어둠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욥34:22)

또한,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언급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 (살후2:7)와 연결되어 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려 하시는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다음 구절들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어둠’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서 원래의 길을 잠시 벗어나지만, 이 역시 큰 주제에서 뺄은 잔가지이며 ‘어둠’과는 “끊어진 연결고리” 명목으로 엄연히 붙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최초 언급의 법칙이 적용되는 창1:2의 ‘어둠’으로부터 조명을 받는다는 사실도 변함없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기로 한다.

“사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아니겠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색다른 형벌이 아니겠느냐?” (요31:3)

“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한 패가 되어 사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나니” (요34:8)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과 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사악한 자들”이라는 집단은 “그/저 사악한 자”라는 단수 인물과 관계가 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살후2:8)

우리는 ‘어둠’이라는 단어에서 처음 시작했음을 잊지 않고 계시는가? 성경 탐구를 시작한 첫 핵심어가 이것이다. 이것은 많은 가지들을 낸 나무의 큰 밑동 줄기와 같다. 가지들은 다 한 뿌리에서 났고 한 줄기에서 났다.

다 한 나무에서 난 가지들인 것이다. ‘어둠’에 대해서 성경 기록들을 찾은 결과는 부정적이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 점을 도무지 납득하지 못한다. “어둠”은 창1:2부터 시작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계16:10에 이르기까지 늘 직설적이고 딱딱하고 부정적인 심상이다.

어떤 일에서 근원을 찾아서 살펴봤는데 전능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나쁜 뿌리를 지니고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무에 대해 하신 말씀처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마3:10)

“창조과학”이라는 열매 없는 나무도 이렇게 도끼로 찍혀 불 속에 던져질 일이 남았다. 사실은 사탄도 이렇게 최후를 맞이할 것이며, 사탄은 자신이 호되게 벌을 받고 창1:2에서 내버려질 때부터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창1:2가 그저 “하나님의 창조 중의 일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믿는다는 형제들이 그분을 욕되게 하고 있다.

그럼, “어둠”이라는 뿌리의 가지에 속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계속 추적하기로 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며” (시5:5)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주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시6:8)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시14:4)

“사악한 자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해악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시28:3)

“거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쓰러졌으니 그들이 내던져져서 능히 일어서지 못하리이다.” (시36:12)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구부러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3개의 단어로 이뤄진 문구이며 성경에는 21회 등장한다. 이것들의 근처에는 사탄의 성품이 어떠하고 창1:2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절대적인 진리를 안내하는 추가 계시가 들어있다.

다음은 “구부러진 것”과 관련된 추가 계시이다. “자기의 굽은 길들로 치우치는 자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이끄시리로다. 그러나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로다.” (시125:5)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자기의 굽은 길들로 치우치는 자들” 사이에 “끊어진 연결고리”가 있음을 보여 주고 계신다. 그들의 길이 구부러진 이유는 그들의 아버가 구부러졌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욥26:13)

“그 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사27:1)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한다는(고전2:13) 지극히 단순한 방법으로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풀이하게 했다. “어둠”을 “뿌리”로 삼아 “어둠과 악”을 줄기로 설정하고, 거기서부터 “어둠과 사망”, “어둠, 사망, 불법을 행하는 자들”, “사악한 자들”, “그/저 사악한 자”, “굽은 길”, “구부러진 뱀”, “꿰뚫는 뱀” 등 다양한 가지들로 뻗어 나갔다. 그런데 아직도 끝나려면 멀었다. 탐구는 계속된다. 앞서 살펴봤던 창1:2의 “And”에 대해서도, “땅은 형태가 없고”에 대해서도, 그리고 “공허함(void)”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 정도로 얼마든지 깊게 더 파고들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어둠”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크리스천이 마음에 적용하면 행실에서 매우 유익이 되는 조언을 남겼다. 창1:2를 포함해 성경 전체에 계시되어 있는 어둠에 관한 교리를 토대로 해서 말이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귀를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고후6:14)

빛이 어둠과 친교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신 것이다. 어둠을 받아들이는 것은 죄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는 어둠에 관한 건전한 성경 교리를 성경적인 행실에다가도 적절하게 적용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엡5:11)

독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선포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아는가? 하나님은 위선자가 아니다. 그분은 창1:2에서 루시퍼를 꾸짖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판하셨으며 홍수를 내리고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할해 내셨다. (홍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럼 계속 진행하기로 한다.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이제 롬5:12에 필적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다. 간극 반대자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아마 적지 않을 것이다. 롬5:12에서 아담과 이브에 대한 진리조차 제대로 나눠서 분간을 못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닫아서 ‘**깊음의 표면**’에 대해서도 분간을 못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문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단 한 번 욥38:30에서만 또 나온다. Tabb은 저서 <간극 이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성경 전체에서 물과 관련해서 ‘**깊음(the deep)**’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항상 지표면이나 땅 속에 물이다. 이곳과 하늘 사이의 다른 물을 가리키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하늘은 지구 기준으로 북쪽 방향에

있으니, 깊음의 표면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열어 있다(극관얼음).” p. 43

“성경에서 깊음은 언제나 지구에 있는 어떤 것이다. 대체로 대양의 바닷물 이거나 지표면을 흐르는 물이다. 가끔은 지옥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예: 롬 10:7) 예외적인 경우는 문맥을 살펴보면 언제나 명확하며, 지옥도 우리 발 아래 지구 속에 있는 장소이다. 눅8:31을 보면 바닥 없는 구덩이를 가리키 기도 했다. 이때는 눅8:31에 있는 동일한 단어가 계9:2에서는 실제로 ‘바닥 없는 구덩이’라고 번역되었다. 어떤 경우건 깊음이란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한다. 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p. 71

Tabb 형제는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다. 성경에서 깊음이 “이 지표면”에서의 물줄기나 “북극”, “얼음”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구사전에서 “깊음의 표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 본 적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 주제를 논한다면서 욥38:30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빠뜨린다면, 성경이 직접 언급하는 성경 해석 오류 중 하나인 누락을 저지르게 된다.

욥 38로 가기에 앞서 창1:8,9에 들를 필요가 있다. 여기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벧후3:7)이 창조되던 24시간 6일 창조의 중반부에 해당한다. 9절을 보면 마른 땅이 “**드러나라/나타나라**”(appear)이라는 동사가 쓰였다.

2절에 있는 “**깊음**”은 “**물들**”을 뜻한다. “**물들**”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이 물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셋째 하늘을 어떻게 여셨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창조 사역을 첫째 하늘로까지 확대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절(성경에서 2는 분리의 수이다)에는 “깊음의 표면”이 나온다. 깊음의 정체에 대해 나중에 본격적으로 강론하겠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 깊음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다는 점만 짚고 넘어가자. 이곳은 셋째 하늘이 있는 곳이며, 요한은 이곳을 “유리 바다”(계4:6) 내지 “불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계15:2)이라고 묘사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할 참고 구절들이 많이 있다.

다음으로 3-5절은 첫째 날에 대한 설명이다.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에서 나누셔야 했음”을 주목하라(4절). 그리고 첫째 날이 마무리 되면서 창1:5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이 “낮”이라는 것은 넷째 날에 창조된 태양에 의해 비춰진 낮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것은 셋째 하늘에 있는 절대적인 “낮”이며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에 만연한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으셨다. 둘째 하늘은 창조 둘째 날에 등장한다.

창세기1:6,7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 이 구절에 따르면 첫째 하늘 아래 지표면의 물들로부터 분리되어 둘째 하늘에도 물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창1:8) 주님의 둘째 날 과업이 이렇게 끝난다.

그 다음 셋째 날이 드디어 첫째 하늘 아래의 시점으로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appear),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1:9)

마른 땅이 드러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땅이 물에 잠겨 있었다는 걸 입증한다. 그런데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데 거뒀지지 않으면 수위가 낮아지지 않으며 땅이 “드러날” 수도 없다. 이 물들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2절이 말하는 깊음에서 왔다.

Tabb은 성경 용어를 제멋대로 혼용해서 서로 다른 두 궁창을 같은 것으로 간주했다.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한 것이다.

“ ‘궁창’ 이라는 단어는 광활한 공간 또는 얇게 펼쳐진 평면을 뜻한다...”

“차트 #6에 있는 것처럼 간극 지지자들은 궁창을 바깥 우주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그들의 견해와는 달리 궁창은 실제로는 그냥 첫째 하늘(창1:6-8)일 뿐이다. 첫째 하늘은 이 지구의 대기권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0절을 보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새들이 우주 공간에서 날아다니는가? 그렇지 않다. 새들은 오로지 대기권 안인 첫째 하늘에만 있다. 그리고 이 대기권은 ‘하늘의 열린 궁창’ 이라고 불린다. 창세기 1장에서 서로 다른 궁창이 두 개 존재한다고 생각할 근거는 어

디에도 없다. [간극 지지자들은 창세기와 예레미야서의 유사 용어를 서로 비교하다가도 이 대목에서는 상반된 자세를 보임으로써 일관성을 상실한다. 그들은 책과 책끼리는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한 장 안에서 유사 용어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 이론을 정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Tabb, <간극 이론>, p. 76,77)

Tabb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진리의 보물을 여는 진짜 “열쇠”(눅11:52)인 욥38:30은 펼쳐 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사적 해석으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갔기 때문이다.

이제 욥38:30을 펼쳐서 창1:2에 등장하는 물들에 대한 조명을 줄 계시들을 찾기로 한다. 욥38:30이 “이 지표면”이나 “대기권”, 혹은 첫째 하늘 내부의 “광활한 공간”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욥38:30은 29-32절 사이에 둘러싸여서 다들 여러분의 머리 위인 ‘둘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일들인 것이다.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여러분의 머리 위)의 흰 서리는 누가 생기게 하였느냐?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네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의 감미로운 영향력을 묶거나(여러분의 머리 위) 오리온 별자리의 띠들을 풀 수 있느냐? (여러분의 머리 위)

네가 마자루트를 그것의 철에 이끌어 낼 수 있느냐? (여러분의 머리 위) 혹은 네가 악투루스 별을 그것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머리 위)”

“깊음의 표면”이 여러분의 아래가 아니라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인들이 주변에 이렇게 분명하게 있다!

또한 하늘 위의 별이라는 문맥은 “하나님의 아들들”과도 연결된다. 성경에서 별들은 창1:1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호칭이다. 원래는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담이 타락할 때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노아의 홍수 시절에 인간들에게 나타나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환난 때 다시 현현할 것이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함)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깨달아 알지도 못함) 그러므로 그들이(현재로서는, 형제들) 변명할 수 없느니라.” (롬1:20)

“창조론자” 친구들은 복들을 놓치고 있다.

창1:2에 나오는 깊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곳 지표면의 깊은 곳에 물줄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먼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줄”은 알아야 한다.

이 주제와 관련된 진리의 추가 계시를 얻기 위해 잠언으로 가도록 하겠다. 솔로몬이 성령님의 영감 하에서 무어라 말하는지를 보자. (현재형 시제이다. 딤후3:16)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분께서 깊음의 표면에 한계를 정하시고

위로 구름들을 굳게 세우시며 깊음의 샘들을 강하게 하시고

바다에게 자신의 칙령을 내리사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들을 지정하신 그때에” (잠8:27-29)

이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 1.) “하늘들”(27절)은 당연히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공간이다.
- 2.) 이제 “깊음의 표면”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deep만 depth로 바뀐 문구가 나온다. 이것은 창1:2의 “깊음”에 대한 참고 구절이다. 왜 그럴까? 계속 읽어 보시라.
- 3.) 다음 구절(28절)에서는 “깊음”이 정관사와 단수형으로 나온다. 문맥이 갖춰진 상태에서 29절을 읽으면 모든 것이 결론이 난다. “(그분께서) 바다에게 자신의 칙령을 내리사 ...”
- 4.) 이때 “바다(the sea)”는 창1:26의 “바다”와는 다른 바다이며 상호 참조 관계가 아니다. 창세기의 바다는 단순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다들의 총칭이며, 정관사가 붙긴 했지만 어느 바다를 지칭하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중해, 카리브 해, 남중국해, 베링 해, 동중국해, 황해, 동해, 흑해, 홍해, 발틱 해 등 세상에 바다는 많이 있다.

그러나 “하늘들”과 “깊음의 표면”(잠8:27)이라는 문맥에서 등장하는 그 “바다”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했을 때(고전2:13) 단 하나만 있는 특정한 바다이다. 이 바다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있으며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창1:2의 “깊음의 표면”이 지구에 있는 그 어떤 깊이과도 대응

하지 않듯, 저 바다도 우리 머리의 위에 존재하는 바다이다.

욥은 계시의 말씀을 죄다 놓친 우리의 ‘근본주의자’ 형제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욥은 이렇게 분명히 말한다.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욥38:30) 앞의 29절, 그리고 뒤의 31-33절을 보건대 이 문맥은 지구 지표면이 결코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제9장

“깊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같지 않은 사례

성경에는 주님께서 무언가를 언급하셨는데 그제 주변의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판판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그분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3:3), 니고데모는 어머니의 배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출산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물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육체적인 출생을 생각한 반면, 예수님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영적 출생을 말씀하셨던 것이다.

같은 책의 바로 다음 장에서 또 다른 예가 발견된다. 주님은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마실 물에 대해서 대화를 꺼내셨다(요4:7). 이에 대한 여인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유대인은 혼혈 인종인 사마리아 사람과는 관습적으

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9절).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네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10절) 여인은 아직까지도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물 바닥에 고인 물리적인 물만을 생각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며, 선생님께서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물 속의 물을 생각한 여인과는 달리, 우리 주님은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셨음을 주목하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단어들을 바르게 나누는 일도 이와 같다. 가령, “형제”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이게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침례교에 속한 많은 형제들은 히3:1이 말하는 “형제”가 크리스천이라고 적용하여 자기들도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구절의 문맥은 “끝까지 견딘”(6절) 유대인이며, 마24:13의 문맥과도 동일하다. 즉, 교회는 이미 휴거되고 없는(살전4:16-18) 대환난 문맥인 것이다. 히브리서는 일차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교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약 교회(고전10:32)가 아니라 히브리인, 즉 유대인 형제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다.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형제들이 무언가를 어떻게 생각하건, 성경은 자신만의 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사55:8,9)

성경을 어떤 식으로 면밀히 연구하고 나누어야 하는지를 보이는 다른 예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 잔치 장면이다.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하객들을 위해 발효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읽힌다. 오늘날의 성경 주석가들은 이 음료가 발효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피(행 20:28)를 상징하는 포도즙임을 입증해 보이는 관련 구절들을 모조리 놓쳤다. 이 피는 그리스도의 “때(hour)”에 흘려졌는데, 이 말씀을 보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요2:4) 그러니 누구든지 성구사전을 펴서 “hour”이라는 단어를 찾아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란(요7:30; 8:20; 12:23,27) 그분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결혼식이 열린 때는 “셋째 날”(요2:1)이었다고 나온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고전2:13), 이 “셋째 날”에 대해서 호세아가 무슨 첨언을 했는지도 알게 된다.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호6:2) 이 부분의 문맥은 대환난이 끝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때이며, 이때가 곧 ‘셋째 날’인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 신자이고 벤후3:8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날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 셋째 천 년에 해당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 년 동안 통치하시는 기간에 대한 표식이다.

예수님은 흔히 성찬식이라고 불리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자신

은 그 “**날**”이 될 때까지는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일체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마26:29). 그 날이란 요2:1이 말하는 “**셋째 날**”이며 “**그분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날이다. 성경에 나오는 “new wine”이란 갓 짠 포도즙이지 발효된 포도주가 절대로 아니다. 그러므로 “셋째 날”에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신 것은 “**새로운**” 포도즙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분의 미래 행적(마26:29)에 대한 예언이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줄저 <성경의 조명 하에서 본 포도즙과 주의 만찬>을 참고할 것.]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전체의 맥락을 살피며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영어 성경에서 “**tongue**”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베니 힌, Kenneth Copeland 같은 은사주의자가 그러는 것처럼 모조리 “울랄랄따따따” 방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사도의 후예를 자처하는 진영이나 심지어 가톨릭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모양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된 장로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성경에서 “**침례**”라는 용어는 언제나 “물침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편, “**상속**”은 언제나 “값없는 선물,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갈 5:21). 구원과 함께 자동으로 수반되는 상속이 있고(엡1:11,14; 빌3:20,21; 고전15:50-56; 행20:32; 골1:13; 벧전1:4), 따로 획득해야 하는 상속도 따로 있기 때문이다(딤후2:12; 롬8:17; 눅19:17; 골3:24). 크리스천이 계속해서 육신적으로만 살면 그는 자신의 상속을 잃는다(갈5:21; 요이8). 단지 자신의 혼만을 잃지 않고 보전할 뿐이다.

“**깊음의 표면**”에 대해서도 앞서 열거했던 예들과 동일한 원칙이 성립한다. 성경의 앞부분에서 모세가 이것을 언급했으며 뒷부분에서는 욕이 추가

적인 계시와 “**지식의 열쇠**”(눅11:52)를 기록함으로써(욥38:30) 모세의 기록을 해석해 놓았다. 성경을 풀이하기 위해 굳이 다른 주석서나 히브리어, 어휘집, 신학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도와 드려야 할” 필요가 없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리라.**” (고후13:1)

우리는 나중에 “**깊음**”이라 불리는 물줄기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논할 것이다. 성경에서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바다 괴물”이 바로 이곳에 산다 (욥41, 사27:1).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성경에서 “**깊음**”(창1:2; 욥38:30)이라는 물줄기가 있다는 걸 알고 나면 지구 지표면에 있는 물을 자동으로 떠올린다. 또한 그들은 리워야단 같은 초자연적인 동물 같은 건 실존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성경에 나오는 리워야단은 실제로는 지구의 해저 어딘가에 있는 해양 생물일 뿐인 것이다. 이런 생각에 대한 근거 구절은 시148:7이다. “**용들과 모든 깊은들아, 너희는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현대 역본들은 용을 모조리 다른 동물로 번개했으며, 이와 동일하게 역사하는 부정한 영들은 현대의 보수적인 학자와 성경 교사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위에 용 같은 게 살 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리워야단은 용이다. 사27:1-3과 계12:3을 같이 보면 훨씬 더 분명한 그림이 그려진다. 단, 리워야단이 지구 상에 존재하는 동물에 빗대어 묘사된 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시104:26에서는 필자의 생각에는 사탄이 고래로 묘사된 것으로 보인다(은 2 참고). 자연계에서 사탄을 나타내는 용도로 언급된 동물은 뱀뿐만이 아니라 고래, 공중의 날짐승(막4:4,15), 사자(벧전5:8)가 있다. 창조론자와 현대의 근본주의자들의 견해는 시148:7과 시104:26의 관점에서는 옳바르다. 그러나 그들은 욥

41에서 리워야단이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계시하는 부분을 간과하지는 못했다. 고래는 사탄의 예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한 번 고래에다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이 생물은 다른 짐승이나 가축들과는 별개의 존재이다. 영적으로 눈 먼 알렉산드리아의 후예들은 리워야단에 대해 말하는 모든 참고 구절들을 해석할 때 오로지 시104:26 단 하나밖에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욥기 41장에 나오는 짐승의 정체는 “악어”, “바다 괴물”, “물소”, “하마”, “공룡”, 혹은 NKJV의 난외주처럼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음”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이다. 성경을 거부하고 교정하려 드는 니콜라당 성향의 사람들에게나 정체불명일 뿐이다.

시 148:7에서 “용”은 고래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깊음들”이 나란히 언급된 것이다. 성령님은 서로 다른 문맥에서 이들 용어를 모두 사용해서 자칭 성경 교정가들을 교란시켰다. 단수형인 ‘그 용’은 깊이들의 안에 있다(창1:6,7; 욥41:31; 시68:22; 합3:10). 그러나 용들은 이 땅에 있는 단수형 깊이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들의 형태는 고래(시104:26)일 수 있고 그냥 마귀들(시44:19)일 수 있다. 요컨대 “깊음”과 “깊음들”은 별개의 장소에 있는 서로 다른 물줄기이며, 리워야단도 두 마리가 있다. 둘 중 이 땅에 사는 놈은 머리 위에 있는 깊이들 안에 사는 다른 놈을 예표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이 한번 마음을 닫아서 성경의 한쪽에 계시된 빛을 거부해 버리면,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다른 빛들도 모조리 들어오지 못하고 거부당한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 한번 잘못되기 시작하면 학자들이 제시하는 관련 성경 구절들도 모두 꼬인다. 그들은 창1:2에서 발을 헛디딘 뒤

부터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깊음”에 대한 교리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반복됨을 확인해 보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이다.” 이 “하늘들”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셋째 하늘을 말한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이다.” 이들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다.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이다.” 둘째 하늘에 있는 천체들 역시 우리의 머리 위에 있다.

그 다음,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이다.” (시148:4)

Tabb 형제가 예전에 무어라 말하던가? 본서의 앞부분에서 지적했듯이, 기독교계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은 동일하다. 성경으로부터 계시를 받느냐, 아니면 못 받고 그냥 놓쳐 버리느냐도 여기에 달려 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지의 여부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다. 구약과 신약을 분간하지 못하는 오순절파의 문제가 이것이며, 은사주의자, 성결파, 가톨릭, 정교회 등의 문제도 동일하다. 성도도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구약 성도나 신약 교회 성도나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구약 성도들은 미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교회 시대 성도들은 지나간 십자가를

바라본다니 참 그럴싸해 보이지 않는가? Tabb은 구약 시대의 구원과 신약 시대의 구원에 차이가 없다고 믿는다. 그 진영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일을 완전히 저버렸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간극 반대자들은 위에 있는 깊음과 이 땅에 있는 복수의 깊음들을 분간하지 못한다.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 (잠11:1)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한 면만을 보고 그분의 신성을 보지 못하는 여호와의 증인도 동일한 오류에 빠져 있다. 그들은 성경을 나눌 줄을 모르며 무슨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분간을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준하는 자기만의 경전을 또 만들어서 갖고 있다.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 교리를 입증하는 또 다른 성경의 증인은 농사꾼 아모스이다.

“너희는 일곱 벌과 오리온을 만들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자를 찾으라.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암5:8)

“바다”로부터 물을 끌어 와서 지면에다 쏟아 붓는다는 표현을 주목하라.

바닥에 물이 얹질러진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미 바닥에 얹질러져 있는 그 물을 바닥에다 쏟아 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표면에 있는 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이다. 이미 지표면에 있는 물을 또 땅에다 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양동이에다가 물을 담아 온 뒤 거기에 있는 물을 바닥에 뿌린다면 그건 말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대상으로 하신 일과 같다.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바다”에서 물들을 “지면에다 쏟아 부으신” 것이

다.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거대한 물줄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분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 끝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공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렘10:13)

“하늘들에 많은 물들”(우리 머리 위에 있으며 복수임)이라는 표현을 주목하라.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수증기”와는 별도의 문맥에서 언급되었다. 이것은 첫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가리키며, 역시 첫째 하늘에서 벌어지는 현상인 번개와 비도 같은 문맥에 있다.

“하늘들에 있는 많은 물들”은 창1:6-8에 있는 깊음과 관계가 있다.

“노아의 생애에서 육백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십칠일 바로 그 날에 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창7:11)

다음으로, 창7:11과 비슷하면서 추가 계시가 담긴 구절이 있다.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혔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창8:2)

이제 감이 올 것이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어떤 물을 말씀하시는지 분간을 못 했던 것처럼(요4:11,12), 오늘날의 배교자들은 성경에서 “깊음(들)”과 “물(들)”이 나오면 그 정체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

다.

수증기가 나오는 하늘이 어느 하늘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성경은 세 번에 걸쳐 수증기의 출처에 대해 답을 알려 준다. 먼저 다윗의 증언부터 시작된다.

“그분께서 수증기를 땅 끝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시며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자신의 곳간들에서 끌어내시며” (시135:7)

다음으로 예레미야가 다윗의 말을 재확인한다.

“그분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 끝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렘10:13)

아까 짚고 넘어간 바와 같이 예레미야는 “하늘들(복수)에 많은 물들(복수)”이 있다고 추가 계시를 주었다. 이것은 “땅 끝에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는” 지표면의 물, 대기권 안의 물과는 다른 물이다. Tabb은 믿지 않겠지만 이 둘 사이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예레미야는 렘51:16에서 이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동일한 진리를 강조해 놓았다.

피터 릭크만은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 ‘큰 깊음의 샘’은 지하에 있던 물이 지진과 화산 활동에 의해 땅이 갈라진 틈을 타고 솟아 나온 것이라는 오해를 받아 왔다. 지진과 화산이 땅을 갈라지게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이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주 터무니없는 추측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큰 깊음’이라는 것은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지표면에서 물이 고인 공간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봐야 한다.” “큰 깊음이란 욥38:30에 묘사된 대로 꼭대기가 열려 있는 그 물줄기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량의 물이 우주 공간을 거쳐 40일 동안 유입되었다. 물론 그 일은 물이 지나갈 적절한 통로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하늘의 창문’이라고 언급된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이와 관련된 독특한 역사적 사건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런 극심한 기근 속에서 폭등한 식료품의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하늘에 ‘창문’이 있다고 믿는 것만큼이나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서 그는 백성들이 식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달려 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빵 반 조각의 가격이 요즘 가격으로 수만 원으로 치솟았던 때에 기적이 벌어졌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그 혜택을 입지는 못하고 성문에서 압사를 당해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벌이었다.”

“깊음이란 지구상에 있는 어떤 깊은 장소가 아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제대로 깨닫게 해 달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깊은 장소이다. (엡3:18 참조. 흔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길고 높고 넓고 깊다는 식으로 잘못 인용되는 구절이다. 이 구절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자신이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성경의 문맥이 말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말하지는 말라.)”

(〈창세기 주석〉 p. 208)

제10장

아담의 창조와 타락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죄라는 것이 이미 존재했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제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는 아담의 타락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브의 죄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롬5:12과 어디에서부터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지를 살펴보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의 창조론자들은 롬5:12를 근거로 성경 전체에 넘쳐나는 다른 증거들을 무시하고 창1:2의 간극을 부정한다. 그들은 아담 이전에는 세상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세상이 이미 둘째 세상이었으며 벤후3:5의 “**옛적부터 있던 하늘들**” 내지 창1:1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지었다고 간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그가 최초로 창조된 가정의 머리, 즉 책임이 막중한 가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성경에 롬5:12이 왜 기록되었을까?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음녀의 치맛자락 아래로 끌고 가는 장본인은 여성 운동(계12:9)인데도 말이다. 그 붉은 용은 사실 “여성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을 속였다. 그 원조는 최초로 죄를 지은 여성인 이브였지만 거기에 반해서 속아 넘어간 것은 남성이었다. 아담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녀를 위해 타락을 자처했다.” 그 결과 물리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사람이(특별히 남자가) 용기가 부족하고 하나님과 성령의 권능이 부족한 것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음녀의 세력이 커지고 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창3:17)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타락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그 뒤 사탄은 이브를 시험하여 그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 아담은 이때 이브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같이 죄를 지었다. 만약 아담이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그래도 그는 “구원받지 못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혼이 허용되는 사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브가 그를 먼저 버리고 떠난 게 아니며, 음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다(마19:9; 고전6:16-18). 육체적으로 사별한 것은 더욱 아니다(고전7:39). 그러나 아담은 오히려 자기가 이브를 위해 같

이 타락하고 심지어 그녀와 함께 죽기를 원했다. 오늘날 모든 “영웅물” 장르는 어떤 영웅적인 남자가 자기 “애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근본주의자 친구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계시를 놓쳤다. 그래서 롬5:12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간파하지 못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일과 관계가 있다.

- 1.) 이브는 분명 아담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죄를 지었다. 하지만 인류 전체의 대표는 이브가 아닌 아담이기 때문에 타락에 대한 책임은 아담에게 돌아갔다.
- 2.) 아담과 이브는 부부 관계이며, 이 중에서 인류의 씨를 가진 사람은 남편인 아담이다. 그 씨에 죄가 전염됨으로써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었다.
- 3.)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아담이 끝까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아내를 주실 수도 있다. [아담을 또 수술대 위에 눕히고 갈비뼈를 빼내야 했을지는 본서에서 논외로 하더라도] 하지만 이 경우 아담은 아내를 두 명 거느리게 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게 생각하시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대해 들어 보라. 야곱이 레아로 인해 겪은 일이 무엇이었는데 들어 보라. 또 솔로몬도 좋은 예이다. 일부다처제로 사는 것이 어떤지 생생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담이 죄에 빠지지 않은 다른 아내를 얻어서 땅을 “다시 채우는” 시나리오도 아주 터무니없는 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어떤 독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내가 아담이고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내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고 어찌구 저찌구...” 그러나 우리 역시 아담과 동일한 성품을 지닌 죄인일 뿐이다. 우리 역시 동일한 상황에 처했다면 아담보다 더 못하면 못하지 결코 더 낫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아느냐고?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간이라도 내어 줄 것처럼 훌쩍 반했는지 물어 보라. 대답은 동일할 것이다.

- 4.) 아담의 씨는 부패했으며 이 때문에 우리 역시 부패했다. 아담의 씨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어머니 배에서부터 부패한 채로 태어난다.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이브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 5.)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사람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벧전1:23)

‘종족 대표’(federal headship) 교리

우리는 여기서 아담이 자신이 속한 인류라는 종족의 머리라는 사실에 대해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것을 영어로는 “Headship”이라고 한다. 성경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교리를 설명하는 단어도 있다는 점에 대해 놀라지 마시라. 성경에는 ‘삼위일체’ (Trinity)라는 단

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3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성경에 충분히 언급된다. ‘휴거’라든가 ‘천년왕국’도 그 용어는 성경에 없지만 그 단어가 설명하는 교리는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증명 가능하다. 그러니 이 생소한 “Headship”이라는 용어도 실제로는 아담이 자기 세상에서 자기 종족의 대표라는 평이한 사실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간극 반대자들은 창3:7에 대해, 이브가 아니라 아담이 열매를 따서 먹은 뒤에야 비로소 아담과 이브 모두의 눈이 열렸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창3:7은 그런 순서에 구애됨이 없이 결과적으로 아담과 이브의 눈이 열렸다는 진술에 지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아담과 이브가 각자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받아들여야 한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만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약1:14-15)

아담뿐만 아니라 이브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그녀는 “범법 가운데에” 있었고(딤후2:14)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이브 포함) 율법에 범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요일3:4). 그녀는 마음 속에 이미 율법이 있었지만 이를 거역했다.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본서에서 종족 대표라는 개념을 따로 끄집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많은 형제들이 롬5:12를 아담 이전에 죄와 죽음이 없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담 이전의 세상이라는 것(히1:2; 11:3; 벧후3:5-7)도 자동적으로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점은 많은 근본주의자들이 스

코틀랜드의 신학자 찰머스(1780-1847)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토대로 성경 신자들에게 거짓 고소를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그는 다윈(1809-1882)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뒤 진화론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간극을 가르치게 됐다고 한다. Tabb의 글을 보자.

“찰머스 이후로 20세기 중반까지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이 이론은 주류 개신교계에 널리 퍼져 나갔다. 주요 인물로는 달라스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Merrill F. Unger (d. 1980), 장로교인으로서 유명한 작가인 Donald Grey Barnhouse (d. 1960)가 있다. 나중에 간극 이론은 독립 침례 교회에까지 세력을 뻗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을 채용하고 찰머스의 글을 직접 인용하기까지 했다. 간극 이론을 최초로 정리한 사람이 찰머스니 그를 인용하는 사람이라면 출처를 밝히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그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다.” (〈간극 이론〉, p. 4)

이런 지론을 가진 켄트 호빈트는 지난 2013년 무렵부터 다소 기괴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자신은 교회가 환난 이전에 휴거될 거라는 거짓말에 지금까지 무려 38년을 속아 왔다고 말이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됐는데, 그 진실이란 바로 교회는 환난을 겪으며 이것이 끝난 뒤에야 교회가 휴거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교회의 환난 전 휴거“설”이 1830년에 어느 15살짜리 스코틀랜드 소녀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믿는다. 그의 주장은 이러하다.

“필자의 오랜 벗인 스티븐 앤더슨 목사님과 본인을 포함해 ‘수천’ 명에 달하는 지체들은 우리가 지난 180년 동안 휴거 교리에 관한 한 완전히 속고 있었

음을 드디어 깨달았다. 성경을 믿는다면서 무교파 독립, 근본주의, 강경 보수, 우익, 급진파 등 온갖 타이틀이 붙은 침례교인들이 죄다 속아 넘어갔다. 필자는 크리스천으로서 38년을 살면서 교회는 '환난' 이전에 휴거된다고 배우고 그렇게 믿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15세 여자아이가 1830년에 만든 휴거 시나리오에 깜빡 넘어간 것이다! 그래도 '성경 예언'의 전문가가 잘 알고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막연히 믿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었다. 성경은 스스로 '연구를 해서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명령하니까 말이다. 필자는 예전에는 이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예전과 같이 살지 않을 것이다!"

본서에서 인용한 호빈트의 모든 말과 주장은 거짓 조작이 아니며, 아래에 나오는 다양한 웹사이트와 블로그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스티븐 앤더슨 목사의 의기양양한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N-34DADqvs>

〈환란 전 휴거설의 실체를 폭로한다 -- 켄트 호빈트 동반 출연〉

루디가 자신의 픽업 트럭의 뒤에서 편지를 읽는 장면

<https://www.youtube.com/watch?v=fHkzASX2d6Q>

〈환란 후 휴거를 굳게 믿는 켄트 호빈트가 작성한 옥중 서신〉

앤더슨의 블로그에 게재된 호빈트의 글

<http://sanderson1611.blogspot.kr/2012/01/message-from-kent-hovind.html>

켄트 호빈트의 블로그

<http://kenthovindblog.com/?p=1030>

제임스 저팬(일본 선교사 James Arendt가 운영함) 사이트에 올라온 글
<http://jamesjpn.net/basic-bible/eschatology/kent-hovind-changes-his-position-on-the-doctrine-of-pre-tribulation-rapture>

대환난을 소재로 한 종말 영화 (앤더슨 목사도 제작에 참여함)

<http://www.afterthetribulation.com/index2.php#!/HOME>

이것들은 모두 딤후2:15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해서 벌어진 촌극이다. 어떤 근본주의자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을 도로 한데 뭉뚱그리는 이단에 빠져든다. 하나님은 창1:4에서 최초로 ‘분할’을 시행하셨다. 어둠은 하나님께서 빛을 갈라내셔야 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제도권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크리스천들은 “분리” 내지 “기준”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으며 눈이 철저히 가려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에서 나누셨으며 빛을 좋다고 하셨지 어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조차 분간하지 못한다.

호빈트는 간극이 겨우 한두 세기 전에 처음 등장한 이론이라는 거짓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을 속이려 했다. 그것처럼 그는 이제 환

난 전 교회 휴거 교리를 1830년에 스코틀랜드의 15살짜리 소녀가 처음 만들어 낸 “설”이라고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소리이다.

찰스 다윈보다 이전 시대를 살았던 한 크리스천의 말을 들어 보자. 문제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아담의 것 말고 다른 세상이(벧후3:5-7) 과거에 존재했는가? 존 길(1697-1771, 영국의 침례교인)은 인류 전체에서 아담의 대표성과 그가 지은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죄는 우리의 세상[다른 세상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아주 적절한 표현임]에서 최초로 저질러진 죄였다. ‘우리의’ 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죄 자체는 그 이전에도 저질러진 적이 있기 때문이다[18세기에 이미 이렇게 바르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그때 죄가 저질러진 곳은 하늘이고 죄의 장본인은 타락한 영이나 천사들이었지만[과거 시제!], 그들의 죄는 인간과 아무 관계가 없었으며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 ‘우리의 세상에 처음으로 들어온 바로 그 죄’[글쓴이가 죄의 종류를 세심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주목하라]로 인해 사망이 인간 세계 전체에 임했다(롬5:12). 아담은 그 후에도 많은 죄를 지었겠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처음 지은 그 죄가 자신의 후손에게까지 여파를 끼쳤다. 그는 후손들까지 포함한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그가 언약에서 머리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증명된 바이며 죄를 짓던 당시에도 그런 지위에 있었다는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짓는 순간 그에게 맺어져 있던 언약이 파기되고 그는 언약의 머리 지위를 잃었다. 이로 말미암아 생명에 대한 약속도 그쳤으며 그 대신 사망이 드리워졌다. 그

는 죄 없는 순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영생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아담이 (후손들 보기에) 당당한 종족 대표의 지위를 잃자마자 그의 후손들은 아담의 회개와 선행보다는 ‘선조’가 타락한 뒤 추가로 짓는 죄만을 빠른 속도로 물려받기 시작했다. 동일 인물이 선행도 하고 악행도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담은 회개를 했으나 후손들은 회개를 배우지는 않았으며 선조의 선행또한 후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다.”

이것은 스펔전보다 앞서 18세기에 잉글랜드에서 설교를 했던 존 길의 주석이다. 그는 이브가 아니라 아담이 종족 대표였다고 말하며, (다른 세상에서) “이전에 타락한 영이나 천사들이 하늘에서 저지른 죄”도 있다고 언급한다. “그들의 죄는 인간과 아무 관계가 없었으며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상에 처음으로 들어온 바로 그 죄가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라.

길은 딤후2:15 말씀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줄 알아서 구분을 적절하게 해냈다. 타락한 영과 죄 지은 천사가 있던 세상과 한 사람 아담이 있는 세상이 서로 다름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Tabb은 유감스럽게도 통찰력이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존 길은 1771년에 죽었으며 진화론을 믿은 것도 아니었다. 이때는 찰스 다윈이 50세의 나이로 자연 선택이라는 과학 학설을 출간한 1859년보다 거의 90년이나 전이었다. 아니, 따지고 보면 모세, 예레미야, 다윗, 이사야 같은 ‘성경 신자’ 들도 모두 찰머스나 길보다 훨씬 더 먼저 같은 길을 통과했다.

창3:6은 이브가 아담보다 먼저 죄를 짓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다. 하나

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녀에게 인류 전체의 타락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는 않으셨다. “...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에 대해서 길은 이렇게 말한다.

“오로지 이브만이 금지된 열매를 먹은 채로 계속 있었다면 죄의 여파는 그녀에게만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브만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며,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류의 번식을 위해 다른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아담도 같이 타락을 선택했다. 이것은 비극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 현장에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없었겠는지를 인간이 이제 와서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것이 정답이다. 다윈과 찰머스보다 전시대를 산 사람도 아담의 타락 이전부터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롬5:12와 창1:2의 연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간극 반대자들은 아담 이전엔 죄가 전혀 없었고 다른 세상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논리대로라면 아담의 타락 이전엔 악조차도 전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담 이전에 죄와 사망이 없었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음을 본 서에서 지금까지 입증하고 또 입증해 왔다. 그와 반대되고 모순을 일으키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깡그리 외면하고 무시해야만 그런 주장을 태연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는 부정적인 진리를 잊지 말자. 그럼 다음으로 렉크만 박사의 주석을 소개한다.

“이 현 세상은 아담으로 인해 죄가 있게 되고 그 결과 사망도 있게 되었다.

이 교리는 ‘종족 대표’(federal headship)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 지파, 민족, 인종을 대표하는 사람이 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복이나 저주나 심판을 대대로 내리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함의 죄로 인해 함의 모든 자녀와 후손들에게 두루 저주를 내리셨다. 단, 함 당사자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에서 열외되고 가나안이 종족 대표 노릇을 했다. (중략) 이스라엘은 선조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덕분에 가나안의 땅을 차지했다(창 15). 그리고 자기 조상이 한 말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마27:25)로 인해 오늘날 까지도 이방인들에 의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예가 바로 종족 대표 교리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물론 각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저주, 심판 또는 축복으로부터 열외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집단으로서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집단의 대표에게 설정하신 구도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류라는 집단 전체를 보면 아담은 우리의 종족 대표이다. 그는 창조되던 당시에 땅의 다른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받았다(창1:28). 그러니 그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다(창3:17-19).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써 자기 영이 죽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었다. 아들 셋이 태어난 것에 대해 성경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다고 말한다. 혼은 살아 있고 육은 살았으나 수명이 무한하지는 못하고 영은 처음부터 죽은(엡2:1) 그런 속성이 말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눅3:38)이었지만 셋은 불순종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다(엡2:2-3). 셋이 처한 상황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같다. 우리 역시 모두 아담의 후손이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케케묵은 죄성이 존재한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으며 아담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죽는다.

현대의 창조론자들은 롬5:12를 근거로 창1:1의 원창조와 창1:2의 재창조 직전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담의 이전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창세기 3장의 이전에는 그 어떤 사망이나 심판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것들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아담은 최초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바울은 “여자가 범법 가운데 있었다”(딤후2:14)라고 분명히 말하며, 창세기의 기록도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범법 가운데 있었음”을 증언한다(창3:6). 이브는 자기 남편보다 먼저 죄를 지었지만 그녀의 범법은 죄를 세상에 전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모든 세상의 역사를 통틀어 생각해 보면, 최초의 죄를 지은 존재는 인간도 아니고 루시퍼이다.

롬5:12는 창1:1이 말하는 세상과는 교리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다. 창조론자들은 오로지 롬5:12만 붙들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할지 모르나, 아담 이전의 세상에 설령 “하나님의 아들들” 말고 또 다른 생명체가 있었다 할지라도(성경은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바가 없음) 그것은 여전히 롬5:12와는 무관한 존재들이다.

다시 말하지만 롬5:12는 창1:1의 땅과는 무관하다. 창1:1의 시기에는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아담은 창1:28 이전에는 그 어느 것의 “우두머리”였던 적이 없다. 아담은 지금 존재하는 세상의 “우두머리”였을 뿐이다.

창세기 1장에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창조가 나오고 두 종류의 종족 대표, 죄에 대해 두 종류의 심판이 등장한다. 안타깝게도 창조론자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롬5:12를 들먹이면서 이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논리를 파괴하고 모순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사망, 심판과 “그 후”

우리가 간극 반대자들의 논리를 따라서 창1:2를 무시하고 오로지 롬5:12만을 근거로 간극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아담의 타락 이전부터 죄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부정할 수 없다. 주님은 아담에게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창2:17)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담은 “그 날”(열매를 먹은 날)에 물리적으로 죽지 않았으며 그 후로도 거의 900년 가까이를 더 살았다(창5:5). 그렇지 않은가? 그가 열매를 먹은 당일에 당한 것은 “영적 사망”이었다. 이런 논리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있던 세상”(벧후3:6)을 심판하셨을 때에도 타락한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죽어야만 했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 쉽게 입증된다. 그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셋째 하늘에 거할 수가 없어졌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브는 죄를 지음으로써 영적으로 죽었다.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써 영적으로 죽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창2:17) 많은 크리스천들이 천사들이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전히 계속 존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암스트롱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담이 그때 물리적인 사망에 대한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호와의 증인들도 이와 동일하게 믿는다. 아담과 이브는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몸이 현장에서 즉사한 게 아닌데도 말이다. 성경을 모르는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써 물리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 사망 덕분에 불 호수에서의 둘째 사망을 가져오는 영적사망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믿는다(계20:15,

21:8).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죽지 않았으며, 그 뒤에도 멀쩡히 건재했다. 오늘날에도 죄인이 죄를 짓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인이 그 순간 사라져 버리지는 않는다. 이것은 얼마든지 관찰 가능한 과학적 사실이다. 나쁜 영, 영적 조명의 부재, 책임 의식의 상실, 마비된 양심, 잘못된 대상에 대한 두려움, 이 죄들을 은폐하려는 거짓말 등의 최종 결과가 물리적인 죽음일 수는 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귀착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죄인이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죄인이 물리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그의 혼은 문자적이고 물리적으로 실존하는 지옥이라는 장소로 떨어지며 나중에는 역시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장소인 불 호수에 던져진다.

그럼 성경을 펴서 창6:4를 읽어 보자.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and also after that)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본문이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들의 죄,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일과 “그 뒤에” 있었던 일이다. 홍수 이전에 있었던 거인이 그 뒤에는 없어졌다고 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감금이라는 방법으로 심판을 한 번 더 당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라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벧후 2:4). 이들은 처음 타락했을 때는 영적으로 죽었으며,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났다. 두 번째로 타락했을 때는 물리적인 감옥에 갇혔다. 그들은 나중에 신자들 앞에서 세 번째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고전6:1-3). 아직 심판이 완전히 집행되지 않은 영적 존재들은 홍수 후에도 죄악을 계속 저지르면서 거인들을 만들어 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임했다. 이것은 창 1:2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보화를 열어 주는 “지식의 열쇠”(눅11:52)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셨다고 해서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 갈라선 뒤에(after that)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창13:14)

롯은 아브람(훗날 아브라함이 된)과 떠나 “갈라선 뒤에”도 여전히 멀쩡히 존재했다.

성경을 성경으로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용어나 표현을 어떻게 정의하고 풀이하시는지,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무엇을 추가로 계시해 주시는지를 관찰해 보라. 다음 구절은 마귀에 대한 중요한 팩트를 담고 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 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after that)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계20:1-3)

문자적인 무저갱(바닥 없는 구덩이)이 있고 문자적인 열쇠가 있다. 이곳에는 문자적인 마귀가 문자적으로 던져져서 문자적으로 갇혀 있으며, 구덩이는 문자적으로 봉인이 되어 있다. 마귀가 1천 년 동안 감금당했다고 해서 마귀가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는 심판 받았지만 나중에 또 복귀할 예정이다.

이 본문은 과거에 창1:2에서 하나님께서 사탄 내지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판하신 뒤에 있었던 일에 대한 단서를 주는 추가 계시이다. “그 뒤에” 그들은 타락한 채로 동산에 나타났다. 사탄은 “신들”과 같이 된다는 말로 이브를 유혹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창3:5)

그 신들의 정체는 타락하고 쫓겨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악 또는 재앙(evil)은 마귀(Devil)가 야기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이 evil은 하나님의 “6일간의 재창조 기간”의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는 창1:28에 나오는 논란의 단어인 “replenish”(‘다시’ 채우다)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추가 계시들도 모조리 살펴볼 것이다.

제11장

아담 이전의 종족

아담 이전에 지구에 살았던 종족의 정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본서에서 가끔씩 언급한 적이 있었다. 이 장에서는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담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종족은 분명히 있었다. “땅의 기초들이”이 놓이던 때에 노래하고 소리를 질렀으니 말이다(욥 38:4,7). 이것은 창1:1의 시점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침의 아들”(사 14:12)이라고 불렸으며 그 우두머리는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겔28:14).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 존재이긴 했지만 우리 인간처럼 물리적인 몸을 입는 것도 가능했다. 그런데 그 육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물리적

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가능했다. 시 82:6-7을 보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최초로 “신들”이 된 시기 vs 땅의 기초가 놓인 시기

루시퍼는 분명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으며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다수가 그 반역에 가담했다. 그들이 타락한 시기에 대한 단서는 시편 82편의 5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며 (KJV에는 세미콜론이 있음) 어둠 속에 다니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도다.”

이 구절 하나만 살펴봐도 내부에서 간극을 발견할 수 있다. 영어 성경은 구절의 전후가 세미콜론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노아의 홍수(먼저 언급됨)와 루시퍼의 홍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루시퍼의 홍수가 노아의 홍수보다 시간상으로는 최소한 1600년 이상 앞서 있다. 성령님은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앞서 일어난 사건보다 먼저 자유분방하게 기록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성경 해설자들이 놓치곤 한다.

(역주: 아담의 창조 이래로 노아의 홍수의 발생 시점은 1656년임. 1500년보다 더 길다.)

시편 기자는 성령님의 영감 하에서 시89:22-45를 바로 그런 식으로 기록했다. 재림이 먼저 등장하고 초림이 그 뒤를 따른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 시기를 바르게 풀이하려면 “신들”이라는 존재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부터 존재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시82:5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고전 2:13)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야 함을 기억하자. 그래야만 오늘날의 “창조론자”들이 뒤죽박죽 섞어 놓은 개념들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

시82:5의 계시를 여는 첫 열쇠(눅11:52)는 “어둠”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는 것이다. 잠시 창1:2로 돌아가서 이 단어가 ‘최초 언급’ 되는 문맥을 보자.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그러면 개념이 제대로 연결된 것이다. “성경 기록은 깨질 수 없다.” (요10:35)

그 다음 제2의 계시 열쇠는 “땅의 기초들”이라는 표현이다. 이 문구는 성경에서 10회 등장하는데 이것이 노아의 홍수와 연결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시82:5는 이렇게 끝난다. “... 땅의 모든 기초가 꺾도를 벗어났도다.” 그럼 궁금한 점이 생긴다. 땅의 모든 기초가 꺾도를 벗어난 때는 과연 언제였을까? 노아의 홍수나 아담의 타락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오답이다. 이때는 아담은 있지도 않았다. 시82:5의 ‘어둠’은 ‘땅의 기초들’과 관계가 있으며 창1:2에 묘사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파멸’과 관계가 있다. “기뻐 소리를 지른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 “땅의 기초”와 관계가 있다. 그들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훨씬 전에 진작부터 “신들”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그

러니 “...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라는 뱀의 말이 창세기에 있는 것이다. 인간은 불순종하여 금지된 열매를 먹기 전에는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상태가 아니었다.

시간 순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38:4에서 최초로 등장한다. 그들은 창1:1의 창조 사건과 연결되지 노아의 홍수나 아담·이브와는 관계가 없다. 아담과 이브는 ‘루시퍼의 홍수’ 나 그 이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창조 -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욥38:4-7)

2. 루시퍼의 홍수 -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창1:2)

i. 이 홍수에 대한 추가 계시 -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며 어둠 속에 다니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도다.” (시82:5)

노아의 홍수와 관련해서는 “어둠”, “어둡다” 같은 단어가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성구사전을 펴서 직접 확인해 보시라.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그 시절에 죄로 인한 심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어둠”도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인 진리를 오늘날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잘못 접근하는 것과 같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냐?”라는 의문과 함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변개하고, 딤후2:15가 가르치는 차이점들을 무효로 바꾸게 된다.

유감스럽지만 켄트 호빈트는 틀리고 성경은 옳다. 그는 창1:2에 계시된 부정적인 진리를 흐리멍덩하게 바꿔 놓았다. 성경에서 2는 분리의 숫자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는 딤후2:15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둘째 구절에다가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가 성경의 숫자에 대해 조금만 알았어도 생각이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욥38:4-7, 창1:2와 시82:5처럼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함으로써 형성되는 계시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들은 “한데 묶여서” 방대한 계시의 연결 사슬을 형성한다. 이 사슬을 끊는 방법은 오로지 빛을 일부러 거부하는 것밖에 없다.

반역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것은 그들에게 임한 영적 심판이었다. 하나님은 하늘들(복수형)과 땅 전체를 홍수로 뒤덮으셨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루시퍼가 다스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홍수로 “쓸어 버리셔야만” 했다. 하나님은 훗날 노아가 다스리고 있던 자신의 창조 세계를 또 홍수로 쓸어 버리셨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물론 노아의 홍수는 범위가 지표면으로 한정된 홍수였으며, 노아의 홍수 때와는 달리 이전의 대규모 홍수 때는 주님께서 아직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시지는”(유 6) 않았다. 그 대신 하나님은 그들을 창1:6-8에 나오는 하늘들에 거하게 허락해 주셨으며(엡2:2; 6:12도 참고), 이런 이유로 인해 하나님은 재창조의 둘째 날에는 다른 날과는 달리 “보기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4, 10, 12, 18, 21, 25, 31).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문구는 성경 전체에서 11회 언급된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루시퍼와 함께 반역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 즉,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다.

또한 이들은 창3:5에 나오는 것처럼 “신들”이라고 묘사되기도 했다. 신들이 반역을 저지른 후에 이 땅에 내려온 것이며, 노아가 살던 시절에 출몰했던 신들의 정체도 바로 이것이다(창6:2, 4).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고소하여 욥이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지 시험해 보려고 꼬드겼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 사탄과 함께 있었다(욥1:6; 2:1).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는 욥38:7에 나와 있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시간 순서를 따지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들을 놓으시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창1:1). 하나님께서 모퉁잇돌을 놓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 영적 세계는 물리적인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뜻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도가 바뀌었다.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가 아니라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다(요1:12; 8:14,19; 빌 2:15; 요일3:1,2). 그들은 나중에 새 몸을 입게 될 때 천사와 같은 급으로 여겨질 것이다.

“신(들); god(s)”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244회 쓰였다. 성경이 직접 이 “신들”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정의하는지를 살펴보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창3:5)

1. 사탄이 이브에게 한 “너희 눈이 열리고[7절에서 실현됨]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됨[22절에서 실현됨]”이라는 말을 보자. 이를 통해 우리가 먼저 당연히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신들이 이미 타락한 상태로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존재를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을 참고하시라. (창31:30,32; 35:2,4; 출12:12; 15:11; 18:11; 20:3,23 등)

성경에서 언급되는 모든 “신들”은 일단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다. 이 법칙에는 한 치의 예외가 없다.

2. 창3:5에서 그 다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신들이 이미 선과 악을 안다는 점이다. 이는 그들이 이미 타락한 상태였음을 뜻한다. 아담과 이브는 “죄를 실제로 짓기 전”에는 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브가 먼저 죄를 지은 뒤 아담이 뒤를 따랐다.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전에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악을 알게 되었다.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전부터 죄가 존재했다는 것도 이제 명백해진다. 뱀이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됨”이라고 말하는 시점에서 이 신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학설이 아니라 성경 기록이 분명히 증언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를 입증하는 구절들을 10개에 가깝게 제시해 보였다. 이것들은 창3:5에서 있었던 사건을 조명해 주는 성경의 추가 계시이다.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기둥들을 깨뜨리고 작은 숲들을 불로 태우며 또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찍어 넘어뜨려 그들의 이름들을 그곳에서 멸하라.” (신12:3)

때는 신들의 모양을 새겨 넣은 형상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를 경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저지를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그 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신31:18)

“신들”과 “악”이 서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이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도다.” (신32:17)

마귀들과 “신들”이 서로 별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킹 제임스 성경에서 이 구절의 “신들”(gods)은 이탤릭이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던 단어가 점진적인 계시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배교자들은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며(요4:24) 한편으로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요1:1-3, 14). 그런 것처럼 다른 신이 있어서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환난 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어 보일 것이다. 또한 정사와 권능, 부정한 영들도 모습이 드러나 있고 대환난 때 또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 눈에 보였던 적이 있다. 애초에 아담과 이브에게도 나타난 적이 있으니 말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창3:5)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모두 열매를 먹었으며 그 결과로 곁에 이미 존재 하던 신들과 같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말일까? 성경에서 “신들”에 대해 언급되는 모든 말씀들처럼 되었다.

이브에게 말을 건 그 “신”은 “세상의 신”이요, 타락한 “아침의 아들”(사 14:12,13)이요, 타락한 “그룸”(겔28)이다. 그의 동반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욥38:4-7)이다. 그들은 모두 진작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고후4:4)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의 하나같이 넘어
지리로다.” (시82:1,6,7)

신들은 사람처럼 생겼다. 그들은 아담이 있던 시절에 이미 존재해 있었
으며, 그러니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었다. 그들
은 노아의 시대에도 존재했다. 그들은 사람처럼 죽으며 사람처럼 타락한
다. 그들도 죄를 짓고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짓는다. 그들은 사람이 심판받는
것처럼 똑같이 심판받는다. 하나님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지옥을
만드셨다. 하지만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지옥에 사람이 가기도 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
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10:34,35)

신들은 외형이 사람과 비슷하고 사람처럼 걷고 말하고 죄도 짓다 보니,
사람이 신인 것처럼 오해를 받은 경우도 역사에서 여러 번 있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처럼 말이다. 이 “신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을 찾아가
며, 이걸 본 사람들은 그 신들 앞에 넋죽 엎드린다.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이에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 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려 하니”(행14:11-13)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강한 자들의 아들들”(시89:6)이라고 언급되었으며 의심의 여지가 없이 KJV의 시82:1이 말하는 “신들”이다. 또한 그들은 베드로후서 2장과 유 6, 7에 나오는 천사들이기도 하다. 그들은 날개가 없는 33세 성인 남성의 외모를 갖췄으며 여자와 동거하여 번식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은 마귀요 사탄이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뱀이다. 그는 “덮는 그룹”이었다(겔28:14). 그는 창1:1의 “처음에”보다 이전 시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나란히 창조되었음이 분명하다. 욥38:4-7의 진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전부터 이미 존재하여 기뻐 노래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다음 구절을 통해 입증된다.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욥1:6. 2:1도 볼 것)

그는 죄를 지은 바람에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졌다. 그와 몇 같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둘째 하늘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들 중 다른 일부는 나중에 노아의 시대에 추가로 타락했으며 이들의 다수는 지옥으로 곧장 떨어졌다.

그는 자기 죄로 인해 지금과 같은 “아침의 아들”(사14:12) 루시퍼의 처지가 되었다. 그는 교만에 빠져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는 야망을 품었다. 그는 그런 심성을 품고 이브를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라

고 꼬드겼다(창3:5). 그는 둘째 하늘의 아래에 있는 첫째 하늘에 접근 가능하고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린다(고후4:4). 그는 형제들을 고소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시기별 정리

지금까지 논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내력을 한데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순으로 볼 때 욥38:4-7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때 있던 세상”(벧후3:6)보다 전부터, 그리고 창1:1보다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치고 이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다음으로 창1:3에서는 재창조가 시작된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벧후3:7)이 여기에 해당한다.

A. 창1:6-8은 과거에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 타락함으로 인해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왜냐하면 창조일 셋째 중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없기 때문이다.

B.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노아의 홍수의 이전과 이후에 모두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 뒤에도”(창6:4)를 주목하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소멸하고 없어진 게 아니다. 다만 그들은 예전에 가졌던 많은 자유를 잃었다.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고 첫째와 둘째 하늘

에만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창3:5이 말하는 “신들”이란 저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이브와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단수)”이라는 신분으로 창조되었다(창1:28; 2:7). “게난은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눅3:38) 그는 창조된 후 “땅을 (다시) 채우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최초로 의도하셨던 계획을 다시 시작하셨다.

사무엘 김 박사의 요1:12 주석을 소개하겠다.

“이 구절은 세상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 증서”이다. 어떤 부동산에서 “권리 증서”란 부동산의 소유자를 증명하는 동시에, 실소유자 이외에 타인이 이전부터 행사하던 일체의 권리를 무효화하여 실소유자에게 양도하는 효력을 지닌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요1:12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이에 해당한다.

성경에 따르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님의 아들들”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 해당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는 창조 이래로 여러 번 바뀌어 왔다.

이 지구라는 행성의 최초 소유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욥38:7) 창1:1에서 땅이 처음으로 창조되던 당시에는 루시퍼(사 14)와 그를 따르는 천사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땅을 독차지했다. 그들이 그렇게 있

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1000년 정도 되었을 수는 있지만 “수백만~수억 년”이나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루시퍼는 사14:12-14에 기록된 대로 하늘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이로 인해 “뺏는 그룹”(겔 28:13-19)의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이미 차지하고 있던 땅도 파멸을 당했다(렘4:23과 창1:2).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던져내기 위해 지옥이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게” 되었다.”

그 뒤 창1:3부터 하나님은 땅을 다시 회복시켜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채비를 해 놓으셨다. 새로 회복된 땅의 다음 주인은 아담이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창1:28) 그는 땅의 소유자가 되었다.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있어야 하는데 성경은 눅3:38에서 이 사실을 입증해 준다. “...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히1:1-3)이다.

하지만 땅의 옛 주인의 시샘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자신의 지위를 성경의 세 장 분량 동안만치도 유지하지 못했다. 땅은 또 다시 저주를 받았으며 “빼앗는 놈이 임자”인 상태가 되었다.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잃었고 그 대신 영적으로 “마귀의 아들”이 되었다(요8:44). 이 시점에서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흡족했는지 우리는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여 다시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는 땅의 소유권을 받았으며(창12:1-3) 이 권리는 이삭(창17:21)을 거쳐서 야곱(창28:1-4)에게 전해졌다. 야곱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이다.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에 대한 답은 호 1:10에 있다.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유대인들이 땅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마귀가 그들의 씨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 거주민과의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셨다(신7:1-3). 이스라엘의 씨를 부패하지 않고 순수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씨는 그들이 미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부패해 버렸다. 발람의 흥계 때문이었다(민25:1-3).

다음으로 마21:37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어 땅의 소유물을 거둬들이려 하셨다. 그러나 그 아들은 상속권을 빼앗으려는 흥계를 품은 현장 일꾼들에게 살해당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후 하나님은 뭔가 색다른 조치를 취하셨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그분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마귀와 그 휘하에 있는 부정한 영들이 우리를 향해 이를 가는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가 한때 그들의 소유였던 자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가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마28:19) 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유래된다. 우리는 포도원을 온통 “경작”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더 많이 길러 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신30:3-6; 렘30:11; 스8:23; 히8:10-12. 극히 일부임).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통치를 할 것이다(스8:20-23; 계20:1-5; 벧후1:11).

그렇기 때문에 네로 황제에서 시작해 역대 교황들과 아돌프 히틀러에 이르기까지 마귀의 일꾼들은 유대인과 크리스천들을 박멸하는 일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것이다. 그들이 없어져야 마귀가 자신의 옛 자산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귀의 공격 대상은 단순히 직접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마귀는 그 누구라도 땅의 상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기를 원한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자. 당신에게는 당신이 모르던 아주 부유한 삼촌 친척이 있었으며, 그 삼촌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나서 당신에게 막대한 양의 재산을 물려주었다. 하지만 삼촌의 집안에 있던 사악한 하인들이 서로 짜고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당한 상속자가 아닌 그들이 삼촌의 유산을 전적으로 쥐락펴락하게 된다.

오로지 킹 제임스 성경만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바르게 번역을 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을 없애는 것은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상속을 약속하는 유일한 증명서를 없애 버리는 것과 같다. (〈요한복음 주석〉, pgs. 13-17)

제12장

“Replenish”(다시 채우라)

“replenish”라는 영어 단어는 간극 반대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주요 걸림돌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replenish).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1:28)

근본주의자들 중 다수가 replenish에는 그저 “채우다”라는 뜻만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용어의 정의에 대한 최종 권위가 사전이기 때문에 사전을 펴서 자기 주장을 입증한다. 호빈드 형제는 다윈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사전들이 replenish를 “채우다”라고만 풀이했는데 다윈 이후부터는 “다시 채우다”라는 풀이가 사전에 추가되었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그 주장에 일

면 동의한다. 그러나 성경이 창1:28의 문맥에서 말하는 바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딱 여섯 구절 앞인 22절에서는 킹 제임스 성경도 “fill”을 사용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fill)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바다의 창조물과 공중의 날짐승에게 자기 종류대로 번성할 권능을 주셨다. 이것은 최초로 벌어지는 상황이므로 fill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렘4:23은 도로나 동물 등 땅에 이미 존재했던 것들을 거론하고 있다. 렘4:23의 심판은 비록 미래에 있을 사건이긴 하지만 여전히 창1:2을 이해하는 열쇠 역할을 한다. 심판은 과거와 미래를 막론하고 땅을 형태가 없고 비게 만드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1:28)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창9:1)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형제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이중으로 끌어들이는 가톨릭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Tabb은 “replenish”라는 단어의 뜻을 입증하기 위해 “사전”의 권위에 호소한다. 그의 말을 들어 보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동일한 것(창 9)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간극 지지자

들은 성경에서 이 두 부분을 대조하며 논리를 편다. 노아가 심판으로 인해 비게 된 세상을 채우듯이 아담 역시 땅을 다시 채우라는 임무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추론하는 것은 일면 타당해 보이지만 그들은 영어 어휘의 다양한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

어떤 단어는 뜻풀이가 25개에서 30개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는 사전을 의지하지 않으면 특정 문맥에서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없다. 성경학도에게 사전은 그야말로 필수불가결한 친구인지도 모른다. 어떤 단어는 상반되는 뜻을 모두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let”은 ‘허용하다’와 ‘방해하다’라는 뜻을 모두 갖고 있으며 “prevent”는 ‘앞서 가다’와 ‘막다’라는 뜻이 모두 들어있다.)

사전을 찾아 보면 간극 지지자들의 주장은 설 곳을 잃게 된다. 왜냐 하면 replenish도 다의어이기 때문이다. 웹스터의 Seventh New Collegiate Dictionary의 풀이를 인용하겠다.

“Replenish vb [ME replenisshen, fr. MF repleniss-, (replenir의 어간으로) 가득 채우다] vt 1 a: 사람이나 동물들로 채우다: STOCK b 고어: 잔뜩 공급하다: PERFECT c: 신령한 힘을 원천으로 하여 채우다: NOURISH: 2 a: 다시 채우거나 건설하다 b. 좋게 만들다: REPLACE vi: 가득해지다: 다시 채우다”

그럼 우리도 Tabbi이 제시하는 ‘최종 권위’를 따라 게임을 진행해 보겠다. 사전엔 사전으로 대응하면 된다. 인간이 “replenish”라는 단어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지 다른 사전을 펼쳐 보자. 먼저 접두사 “re”이다.

“1. 되돌림[repay, restore] 2. 다시, 새로, 재(再)[reappear, retell] 하이픈과 함께 쓰여서: 1) 이 접두사의 의미가 ‘다시’, ‘새로’임을 나타냄” (웹스터 New World Dictionary, David B. Guralnik, 제2판, p. 1181)

그리고 동일 사전에서 “plenish”의 풀이는 다음과 같다.

“채우다...끝까지 가득 채우다; (시설을) 비치하다”

드디어 “REPLENISH”의 풀이는 이러하다.

“1. ‘다시’ 채우고 완전하게 하다. 새로 공급받은 물자를 비치하다. 2. 연료나 이에 준하는 물자를 ‘다시’ 보충하다.”

이런 증거를 내밀면 호빈드는 그건 나중에 19세기에 진화론에 대처하기 위해 사전들이 뜻풀이를 일시적으로 바꾼 것일 뿐이라고 말하며 빠져나간다. 그러니 우리는 용어를 스스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야말로 절대무오한 사전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성경에 나온 단어는 성경으로 비교해서 살펴야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빈드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고 성경이 아니라 사전에다 권위를 부여했다. 그의 이런 사고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 외부의 권위를 끌어들었다. 그는 성령님이 자신의 용어를 스스로 풀이하기 위해 성경에서 추가 계시를 남겨 두신 곳을 찾아 보는 일엔 관심이 없다. 이 점에서 볼 때 호빈드의 관점은 ‘가톨릭적’ (이중 권위)이다.

이제 인간이 만든 사전들이 아니라 진짜 사전인 성경을 펴 차례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롬3:4) 창9:1은 홍수를 겪은 땅을 다시 채우라는 명령이 노아에게 내려지는 구절이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다.

탐과 켄트 호빈드는 “replenish”라는 단어에 ‘다시’라는 뜻이 없이 그저 “fill”과 동일한 뜻만 있다고 입증하려 온갖 노력을 한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이 단어는 일차적으로 “refill”, 즉 “다시 채우다”라는 뜻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어의 형태 자체부터도 접두사 ‘RE’로 인해 ‘다시’라는 뜻을 지지한다. 이 사실을 무작정 부정하는 것은 영어의 기본적인 단어 형성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설령 호빈드와 탐이 제안한 게임의 룰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주 쉽게 대응 가능하다. “replenish”에 대한 히브리어 뜻풀이를 열람하면 되기 때문이다. 히브리어-칼데아어 어휘집에는 그냥 “채우다”만 있긴 하지만, 다음 설명을 보자.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한결같이 ‘male(말레)’이다. 이것이 KJV에서는 창1:28과 9:1에서 ‘replenish’라고 번역되었다. 그리고 동일한 단어가 렘31:25; 사2:6, 23:2; 겔26:2, 27:25에서 추가로 ‘replenish’라고 번역되었다. 이 다섯 구절들의 공통점은 무언가가 예전 상태로부터 원상복구되는 문맥이라는 점이다. 부유했다가 가난해짐, 전에는 있었다가 잃었던 기쁨을 되찾음, 예전에 하다가 중단되었던 일을 다시 함, 그리고 비워졌다가 ‘다시’ 채워짐. 무려 1821년에 베이컨은 ‘replenish’가 ‘예전의 충만함을 회복함’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Gary[렉크만 박사가 반박하고 있는 사람]는 영어 ‘replenish’에는 ‘다시’라는 뜻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웹스터 학생 사전(G.C. Merriman and Co., 1960, p.695)을 제시했다. 유감스럽지만 거기에는 ‘구비하다, 갖추다, 충분히 공급하다, 다시 채우다(특히 예전에 비워졌던 것을)’라는 뜻이 엄연히 있다.” 웹스터(p. 313)에 따르면, 이 단어는 “re”와 “plenus”로 구성된 라틴어 합성어이다. “re”는 “다시”라는 뜻이고 “plenus”는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권위역의 본문은 히브리어 어휘집에 존재하지 않는 향상된 계시(!!)가 담겨 있으며, 이단들은 여기서 모조리 걸쳐 넘어진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킹 제임스 유일주의 vs 학자 유일주의>, 피터 S. 렉크만 박사, p.63)

최종 권위 문제가 거론되면 보다시피 사람들이 제각각 자신의 최종 권위를 들고 나온다. 어떤 사전이 당신의 설을 지지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당신의 설과는 다른 것을 말하는 다른 권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최종 권위에 해당하는 것을 취사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두 종류의 사전이 내용이 서로 어긋난다면 어느 사전의 내용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는가? 정답은 그야말로 정하기 나름이다. 그러니 상충하는 두 권위 중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최종 권위가 된다. “replenish” 문제에 관해서는 탭과 호빈드가 바로 이런 처지인 것이다. 그들은 진짜로 살펴봐야 할 책은 외면하고, 상충하는 권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설을 입증하려 애쓰는 중이다.

사전의 설명이 킹 제임스 성경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이를 따를 것이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버릴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전들은 살아 있는 사전인 “성경”을 저술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중 권위”를 들먹이며 거룩한 성경 기록의 권위에 흠집을 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반성경적이고 “로마 가톨릭 친화적인” 사고방식이다.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갈5:9) 킹 제임스 성경을 쓰는 근본주의 침례교 내부에도 배교의 씨앗이 만연해 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권위도 나란히 인정하다 보면 결국 성경의 해석이 왜곡된다. 그러면 얼마 못 가 그 외부 권위가 최종 권위가 되고, 성경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성경을 믿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것이 바로 이단이다. 이것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상태이다.

성령님께서 단어를 기록해 놓으신 구절들을 비교해 보면 그 단어의 의미가 금방 나온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야곱의 집을 버리셨나이다. 그들에게는 동쪽에서 온 것들이 가득하며(be replenished)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같이 쟁쟁이가 되고 낯선 자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자신을 기쁘게 하나이다.”(사2:6)

이것은 이스라엘과 “주의 날”(12절)에 대한 예언이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다. 이스라엘은 다시 배교하지만 마지막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배도했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절에 회복되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약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지만 자기 땅에 모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replenish”는 이 구절에서 ‘다시’라는 의미를 충분히 지닌다.

“섬의 거주민들아,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바다를 넘나드는 시돈의 상인들이 너를 가득히 채웠도다(have replenished).” (사23:2)

시돈은 페니키아에 있던 고대 도시였으며 두로보다도 오래 되었다. 두로는 시돈의 식민지이며 시돈 사람들에게 의해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로는 처음에 건설된 뒤에 나중에 뱃사람들에 의해 또 새로 채워졌다고 볼 수 있다. 겔27:8도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렇듯, “replenish”는 예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반복의 의미가 언제나 담겨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단어가 등장하는 성경의 다음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피곤한 혼을 흡족하게 하며 (and) 모든 슬퍼하는 혼을 채워 주었노라(have replenished), 하시니라.” (렘31:25)

이 구절은 영어를 보면 동사가 and로 연결되어 있다. 피곤한 혼은 흡족함을 받고 “슬픔이 가득한 혼은 다시 충만함을 받는다.” 즉, 슬픔은 무언가가 결여·결핍됨으로써 야기되는데, 그 혼을 소생시켜 주는 무언가가 재충전되고 “다시 채워진다”는 뜻이다.

“사람의 아들이, 두로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며 말하기를, 아하, 백성들의 문이던 그녀가 부서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제 그녀가 피폐하게 되었은즉 내가 충만하게 되리로다(be replenished), 하였도다.” (겔26:2)

이 구절은 두로가 (다시) 채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단순히 그냥 채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로가 예전에 채워진 적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므로 여기서도 역시 replenish는 예전 역사의 반복이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23:8을 보라. “왕관을 씌우던 도시로서 통치자들을 상인들로 두고 땅의 존귀한 자들을 무역상들로 둔 두로를 치려고 누가 이 같은 계획을 세웠느냐?”

성경에서 replenish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곳은 겔27:25이다. “다시스의 배들이 네 시장에서 너에 대하여 노래하였으며 너는 충만히 채워져서(wast replenished) 바다들의 한가운데서 심히 영화롭게 되었도다.”

여기서도 위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그냥 채워진다고만 볼 수도 있으나, 두로가 과거에도 이미 풍성하게 가득 채워진 적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겠다. 비었다가 채워지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replenish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끝으로, “replenish”의 성경적 용례를 살펴보면서 노아의 홍수와 루시퍼의 홍수를 비교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성경이 말하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유사성을 참고하시라.

1. 아담은 악에 대한 홍수 심판 이후에 땅에서 살게 되었다.	1. 노아는 악에 대한 홍수 심판 이후에 땅에서 다시 살기 시작했다.
2. 아담은 창조물들의 주인이 되었다. (창1:28)	2. 노아는 모든 동물들의 주인이 되었다. (창9:2)
3. 아담은 복을 받았으며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라는 명령을 받았다. (창1:28)	3. 노아는 복을 받았으며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라는 명령을 받았다. (창9:1)

4. 아담은 동산에서 “가꾸고 지키는” 일을 했다. (창2:15)	4. 노아는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세웠다. (창9:20)
5. 동산에서 나온 열매로 인해 아담이 타락했다. (교리적으로 볼 때 선악과는 포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창3:6)	5. 자기 포도원에서 나온 열매로 인해 노아 역시 문제를 일으켰다. 포도주를 먹은 것이다. (창9:21)
6. 제3자(하나님)가 아담의 벌거벗음을 덮어 주었다. (창3:21)	6. 제3자(자기 아들들)가 노아의 벌거벗음을 덮어 주었다. (창9:23)
7. 아담의 죄는 자기 씨에게 저주를 야기했다. (롬5:12)	7. 노아의 죄는 자기 씨에게 저주를 야기했다. (창9:25)
8. 아담에게는 이름이 언급된 아들이 가인, 아벨, 셋으로 세 명 있었다. (창4:1,2; 5:3)	8. 노아에게는 이름이 언급된 아들이 셈, 함, 야벳으로 세 명 있었다. (창5:32)
9. 아담의 타락 이후 예언이 계시되었다. (창3:15)	9. 노아의 타락 이후 세 인종에 대한 예언이 계시되었다. (창9:25-27)
10. 그리스도의 계보는 S로 시작하는 아들인 ‘셋’을 통해 이어졌다.	10. 그리스도의 계보는 S로 시작하는 아들인 ‘셈’을 통해 이어졌다.

이것들은 모두 성경적 팩트이다! 그러니 아담과 노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replenish”라는 명령 역시 맥락과 의미가 다를 이유가 하등 존재하지 않으며, ‘다시’라는 의미는 “원어 원문” 내지 인간의 사전들에서 찾을 수 없는 권위역 킹 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입증해 준다. 어떤 단어에 대해 사람마다 제각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뜻풀이들을 늘어놓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자신의 말씀인 성경에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내장 사전을 두고 용어를 정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문맥 제시(사28:9-13), 반복(사28:9-13; 고전2:13; 벧후3:5-13), 나누기(딤후2:15), 실제 사건, 역사와 예언(전1:9)이다. 성경에서 “replenish”란 그냥 채움이 아니라 과거의 채워진 상태로 도로 회복하는 채움이며, 여기에는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호빈드, 탭, Ham 같은 진영의 사람들의 문제는 “믿음”이다. 이 명백한 계시를 거부하는 것은 성경 기록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놓치는 것과 같다. 사실 그들은 “replenish”가 성경에서 어떤 용례에서 쓰였는지 자체에 별 관심이 없으며 성경이 성경 자체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독자들에게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진리를 숨기는 행위이며 누락의 죄에 해당한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사도 바울과 다른 점은 다음 말씀 하나로 잘 정리된다.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행20:27)

“replenish”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까지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았는데, 사탄이 하필 보수적인 학자들을 동원하여 성경의 현대 역본들에서 “replenish”를 “fill”로 변경하는 이유는 하나이다. 우리는 마귀의 계략들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으며, 특히 은폐술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학회에서는 다른 발톱은 감추고 “replenish”를 “fill”로만 교묘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자기 색깔을 드러낸다. 독자들로 하여금 단어의 바른 참조 구절을 찾을 수 없게 하고 더 많은 계시와 빛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10:35)

그렇다. 루시퍼도 빛을 내는 존재이긴 하다. 그러나 놈의 빛은 역설적으로 사람들을 어둠으로 조금씩 내모는 빛인 반면, 1611년 KJV 성경의 빛은 보수적인 학자들에게 계속 비쳐서 그들의 속임수와 변개 행각을 폭로한다. 그 빛은 그들의 이해 수준을 아득히 초월해 있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

새인들 중의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멀었느냐? 하니” (요9:40)

제13장

계속해서 발견되는 차이 (딤후2:15) “하늘”과 “하늘들”

창1:1을 보면 단수 “하늘”이 나온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창2:1에서는 복수인 “하늘들”이 나온다. 즉,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다는 뜻이다.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성령님은 창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왜 한 곳에서는 “하늘”이라고 쓰고 다른 곳에서는 “하늘들”이라고 쓰셨을까?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에는 창1:2 이후의 재창조 과정에 대한 계시를 주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간극을 이론 수준이 아니라 확실한 팩트로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을 아직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펴보지는 못했다. 먼저 시104:30을 읽어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다. “주께서 주

의 영을 보내시매 그것들이 창조되었사온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지면을 새롭게 함(renew; 갱신)’이라는 표현을 눈여겨 보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두 번 있었던 갱신 사건을 가리키며, 둘 다 홍수 이후에 있었다. 첫 갱신은 창1:2-3이고 둘째는 창세기 8장과 9장에서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하늘”과 “하늘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

간극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1:1은 팩트에 대한 진술이고 창2:1은 1:1에 대한 요약이라고 말한다. 즉, 창세기 1장과 2장은 모두 동일 사건을 가리킨다고 말함으로써 창1:2에 나오는 심판과 갱신(시104:30), 그리고 창1:3-31 사이에 나오는 재창조를 모두 부정한다.

이들은 ‘분리’를 해야 할 곳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창1:3-31은 “깊음의 표면”(욥38:30) 위를 움직이시는 성령님께서 “땅의 표면, 지면”(시104:30)을 새롭게 하시는 장면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또한 창1:3-31은 죄와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늘(단수)을 하늘들(복수형)로 나누신(창1:4,7) 과정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이 창조가 24시간 단위의 6일 동안 행해졌다는 것은 텅일 뿐. 이것이 전부이다.

“세대들”

다음 자료는 “성경 창세기와 지질학(성경적 지질학)”에서 발췌한 것이다. <http://www.kjvbible.org>

성경에서 “세대들”라고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인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다.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그때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창2:4-5)

다음 두 번째로 언급된 곳: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창5:1-3)

“세대들”이 성경에서 두 번째로 언급된 곳은 보다시피 아담 가문의 계보이다. 그런데 아담 가문은 셋으로 시작하지 가인이나 아벨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은 셋보다 먼저 태어났는데도 여기서 임의로 누락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아담의 세대 와 셋의 세대 사이에는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하는 해답을 찾아 보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창4:25)

이 구절에 따르면 셋은 형 가인의 악행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최초의 씨 아벨을 대체하는 씨이다. 그러나 창5:1-3의 계보에는 대체당한 원래 인물이나 대체를 야기한 장본인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성령님은 의도적으로 이들을 생략했으며, 이로 인해 “아담의 세대들”에는 중간에 간극이 있다. “세대들”이 최초로 등장하는 창2:1에다 “최초 언급의 법칙”을 역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이 최초의 세대들에도 응당 간극이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창5:1-4에 나오는 둘째 용례가 어떠한지를 관찰함으로써 추가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으므로).

다시 설명하자면, 창2:4에서 시작되는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은 예전 “하늘”과 땅의 대체품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원래 있던 하늘과 땅은 창1:3 이전에 있었던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 멸망하고 없기 때문이다. “최초 언급의 법칙”에 입각한 이런 해석 방식이 성립하려면 성경에서 “세대들”의 모든 용례에(총 114회 존재함) 이전 세대나 세대들을 건너뛰는 시작점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성경이 “간극”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가 이와 같다. 그러니 본서의 제목처럼 간극이란 당연히 존재하는 팩트이다. 호빈드 같은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처럼 무슨 간극 “이론”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에 말이 잘못되었다.

그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자(요5:39). 추가적인 계시를 얻기 위해 “여기 조금 저기 조금”(사28:10) 흠어진 구절들을 “비교하면서”(고전2:13) 말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란다(사28:13). “세대들”이 세 번째로 언급되는 곳은 노아이다.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창6:9)

노아는 홍수에서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 조상이니 응당 새로운 세대의 시초가 되었다. 홍수로 인한 옛 세상의 멸망은 “세대들”을 세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아담부터 라멕에 이르기까지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모조리 생략되었다. 성경에서 “세대들”이 나오는 부분을 살펴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시점을 설정한 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지 후진하는 경우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일한 기초 논리와 상식과 과학 지식과 영어 문법 지식을 이 주제에다 적용해 보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인 창1:2를 보면 이때 여러 종류의 물질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라고 했으니 땅부터 시작해 물들도 있고 “**깊음**”에 어둡까지 있다. 첫째 날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니 빛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하늘과 땅**”(창1:1)이다. 창1:2는 “**하늘과 땅**”이 창조된 뒤 어느 시점에서 땅이 처해 있던 상태를 나타내며, 한편으로 단절을 말한다. 그리고 창1:3은 6일간의 회복 과정의 시작점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6일 창조는 “하늘과 땅”의 새로운 세대(단수)를 만드는 하나님의 행적이었다.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창2:4)

세대란 시작과 계보를 뜻한다

“세대(들)”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성구사전을 펴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에 대해 친히 어떻게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이 말하는 원칙(고전2:13)만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답을 얻는 건 아주 쉬운 일이다. 곧 알게 되겠지만 성경에서 “세대(들)”라고 했을 때 무언가의 ‘시작’만을 다루는 경우는 단 한 군데도 없다. 그 뒤에는 서로 다른 시기들을 구성하는 계보가 반드시 뒤따른다.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시라. 창7:1; 9:12; 10:1,32; 11:10,27; 15:16; 17:7,9,12; 25:12,13,19; 36:1,9; 37:2 등.

세대라는 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출17:16과 같은 표현도 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말로 “대대로” 또는 “대대에”라고 번역된 “generation to generation”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총 11회 등장한다. 성구사전에서 확인해 보시라. “세대”라는 단어는 시작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계보를 뜻한다.

다음은 성경에서 두 세대들(복수형)을 제각각 따로 언급한 예이다. “그 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출20:5)

이 구절에서는 “셋째와 넷째 세대”라고 각각의 세대가 따로 언급되어 있으며 이들을 합하면 창2:4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세대들”(복수형)이 된다.

즉, 하늘들에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시작 시기가 있으며, 땅에도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시작 시기가 있다는 뜻이다.

“세대들”과 관련하여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그런즉 너는 주 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지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 일천 세대들)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신7:9)

세대가 앞에 1000이라는 관형어가 붙어서 다수의 연속적인 세대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세대들”(복수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문맥을 통해 저절로 설명된다. 바로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이다.

시22:30,31을 보자.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시편 기자는 “한 씨가 그분을 섬길 것”(30절. 그분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그 씨)은 “주께 한 세대라 여겨질 것”이라고 한다. 주님은 씨를 “생성한” 분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영어에서 동사 “생성하다”(generate)와 명사 “세대”(generation)는 같은 어근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한 세대의 시작을 발견하게 된다. 이 세대는 대략 2천 년 동안 지속되며 새로 “태어난”(31절)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 아니, 사실은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사람과 관계가 있다(요3:3,7; 벰전1:23).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2천여 년 동안(시간의 연속적인 흐름) 그 씨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와서 그분의 의를 선포해 왔다. 이 일은 휴거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한 가지 더, “generation”이 앞에 접두사 “re”가 붙어서 “regeneration”이 된 것을 살펴보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the regeneration)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느니라.” (마19:28)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통치를 하실 때 땅이 변화될 것임을 분명히 말해 준다. 땅은 “재생될”(regenerated) 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천년 왕국이 끝난 뒤에는 땅은 더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예전의 땅은 아예 불타 없어지고 새 땅이 새 하늘들과 더불어 창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곳 말고 성경에서 “regeneration”이 또 등장하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으며, 단어의 의미는 그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딤후3:5이다. 이것은 추가 보충 계시에 속한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공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regeneration)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renewing) 하심으로 하셨고”

“다시 태어남”이라는 단어는 다음에 나오는 “새롭게 함, 갱생(renew)”이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되었다. 신약 시대에 신자가 구원받는 순간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갱생이라는 사건이 발생한다. 간단하지 않은가?

그러니 창1:1-36에서 하늘들의 창조가 한 번밖에 없었고 땅의 창조도 한 번밖에 없었다면 창2:4의 주어는 복수가 아닌 단수가 되어야 한다. “생성 세대들”이 아니라 그냥 “생성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그러하지 않으며 분명히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6일 창조 이전에 무언가가 있어서 이전 세대가 있고 이전의 하늘들과 이전의 땅이 시작된 때가 있었음을 뜻한다.

창1:1-3에서 일어난 일들은 교회 시대의 신자가 구원받는 과정과 대단히 잘 맞아 떨어지는 예표이다. 물론 모든 세부 과정을 일일이 대응시킬 수는 없지만 큰 그림은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구분	창조론자	성경 신자
1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 하시니라.” (창1:1) “...하늘들이 <u>옛적부터</u> 있었고...” (벧후 3:5)	죄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때가 되기까지는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 (창1:2a)	당신은 죄를 지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고 정죄 받았다. 당신의 인생에는 “ <u>공허함</u> ”이 있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롬 7:9)

3	<p>“...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창1:2b)</p> <p>– 재창조 –</p> <p>“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 (벧후 3:7)</p>	<p>“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요 3:8)</p> <p>– 새로운 창조물 –</p> <p>“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후5:17)</p>
4	<p>“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1:3)</p>	<p>당신은 빛을 보았다.</p> <p>“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고후4:6)</p> <p>아멘!</p>
5	<p>“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1:5)</p>	<p>–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p> <p>“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고후4:3-4)</p>

제14장

베드로후서 3장

이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서 이 본문 내용을 앞의 2장과 비교해 보겠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은 형제들은 안타깝게도 서로 다른 종류의 “하늘들과 땅”(벰후2:3)이라는 집합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한다. 본서의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했듯, 간극 반대자들은 딤후2:15 말씀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그들은 복도 놓쳤다.

필자는 성경에서 “그때 있던 세상”(벰후3:6)이라고 언급된 “하늘과 땅”(창1:1)이 존재했으며 이것과는 별개로 “지금 있는 하늘들(복수!)과 땅”(벰후3:7)이라는 다른 집합이 지금 있다고 여긴다. 영어 성경에서 벰후3:7은 but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는데, 이는 앞의 “있던”(was)와 대조를 이룬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 뒤

에는 새 하늘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복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벧후 3:13)

벧후3:4는 다음과 같다.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사람들이 한동안 그분의 오심에 대해 선포를 해 왔지만 그분은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시지 않을 것이다.” 회의론자들은 이런 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개입이나 심판에 대해서도 조롱한다. 공산주의자와 진화론자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 회의론자의 원조는 마귀였다. 사탄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창3:1)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브를 꼬드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수위를 희석시켰다. 그는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자기 죄를 심판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이것은 창조론적 “진화론자”의 태도와도 같다.

“모든 것이 원래 있던 대로 계속된다”란 균일설이라고 불리는 교리이며, 진화론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다. 만물은 시간의 시작 이래로 변한 적이 없다고 한다. “형태가 없었던 적”도 없고 “비었던 적”도 없고 “깊음의 표면”이라든가 “어둠” 따위도 없다. 애초에 죄도, 사망도, 악도, 심판도 없었으니 말이다.

애초에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회의론자라면 모를까, 구원받은 신자조차도 창1:2와 벧후3:4-6의 심판 기록

을 믿지 않고 비웃는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노아의 홍수(벧후 2:4-5)는 “창조의 시작” 때에 있었던 사건이 아님이 명백하다. “옛적부터 있던 하늘”(5절) 내지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인해 멸망”(6절)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의 수위를 부정하거나 희석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신자이건 아니건 간에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마귀(막4:15)이며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려는”(롬1:18) 자이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엡4:27)

회의론자들은 자기 주장의 유효 범위를 최대한 먼 과거로까지 잡고 싶었는지 “조상들”이라는 단어를 썼다. 여기서 조상이란 구약 시대의 족장들을 말한다(요7:22; 행3:13; 롬9:5; 히1:1). 그리고 그들은 “창조의 시작 이후”(4절)라는 말도 썼다. 그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주님의 재림 따위를 왜 바라느냐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창조의 시작 이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거론하면서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격파했다. 그의 답변을 보자.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5절)

이 첫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1. 회의론자의 문맥은 “창조의 시작” 시점부터이다. 이것은 정직하게 판단하건대 노아의 홍수 시점이 될 수 없다. 노아의 홍수는 창조가 끝난 지 1700년 가까이나 지난 뒤에 발생했으니 “창조의 시작” 시점과는 아무 관계

가 없기 때문이다. 가인에 의한 도시 문화가 이미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됐고, 다음 5장에서는 아담의 세대들이(창5:1) 수백 년간 지속된다. 그 뒤에야 6장에서 노아가 등장하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2.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시점 역시 노아의 홍수가 될 수 없다. 하늘들(복수!)은 노아의 홍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 벤후3:6이 말하는 것처럼 멸망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창6-8과 벤후2:4,5(노아의 홍수 문맥)를 꼼꼼히 읽어 보시라. “하늘들”(복수형)이 멸망하는 묘사는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3. 땅에 대한 묘사를 통해 또 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물에서 나와(out of) 물 가운데(in) 서 있는 땅은 멸망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는 이렇게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에 놓인 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창 6-8을 눈을 씻고 읽어 봐도 단언하건대 없다. 이 구절은 창1:9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거기서는 물들이 지표면의 한 곳에 모였다고 했지 벤후3:5처럼 땅이 물들 “가운데”에 있다고 하지 않았다. 창1:9는 재창조 문맥이지 베드로가 말하는 바와는 관계가 없다. 이 차이는 노아의 홍수 문맥인 창7:17의 묘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물들은 “지표면 위”를 뒤덮었다고 했으니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었다는 진술과는 역시 맞지 않는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6절): 여기서 “그때 있던 세상”은 창1:1 당시의 세상이다. 이것은 물에 폭삭 잠긴 채 멸망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13절)

이 본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는다.

1.) 5절과 6절에서 등장하는 전우주적 홍수의 지칭 대상은 창1:2이지, 노아의 홍수가 아니다. 시편 104편의 기자는 서로 다른 두 홍수의 차이를 정확히 간파했다. (시104:5-9를 보시라.)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그것이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깊음으로 땅을 덮으시매 물들이 산들 위에 섰으나

주의 꾸짖으심에 그것들이 도망하고 주의 천둥소리에 그것들이 서둘러 물러갔나이다.

그것들이 산들을 따라 오르고 골짜기들을 따라 내려가 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기초를 놓으신 곳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경계를 정하사 물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본문의 문맥은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들을 놓은 때”임을 주목하라. 그러므로 이 본문이 다루는 시기는 창1:1과 욥38:4-7이 말하는 첫 창조이다.

“기초들”이라는 단어는 창 6-9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와 관련해서는 성경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미국 창조과학회의 헨리 모리스, 그리고 켄트 호빈드는 이런 것도 죄다 노아의 홍수라고 해석해 왔다. 창조론을 유신론적 진화론으로부터 “보호”하고 공룡의 존재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위의 본문은 노아의 홍수와는 전혀, 하나도 관계가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맥이 이미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들을(복수형) 놓은 때**”(5절)이며, 참조 구절도 창1:1 겹 읍 38:4-7이기 때문이다. 필자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구사전을 펴서 직접 확인해 보시라. “기초들”이라는 단어가 창 6-9의 노아의 홍수와 연결되어 쓰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초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곳은 신32:22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면서 “**산들의 기초들**”이라는 것이 나온다. 단, 책 배열 순서가 아니라 시간 순서상으로 “기초들”(복수형)이 최초로 등장하는 곳은 읍38:4-6으로,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읍38:7)라는 문맥에서이다. 노아의 홍수보다 훨씬 더 이전의 첫 창조 시점부터 용례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라는 명령에 근거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시 104에서 6절의 마침표와 7-9절 사이에는 간극이 놓여 있다. 4-6절은 창 1:1,2의 홍수에 대한 진술인 반면, 7-9절은 곧장 노아의 홍수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안목으로는 이런 미세한 차이를 분간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후천년주의자들은 대략 2천 년이라는 간극을 두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분간하지 못한다. 또한 많은 사

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크고 흰 왕좌 심판의 사이에도 1000년이라는 간극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 “옛적부터 있었던 하늘들과 땅”은 멸망했다(6절). “옛적부터 있던 하늘들의 하늘들”(시68:33)에 대한 추가 계시를 참고하라. 이 구절이 말하는 시기는 물론 창1:1이다. 창1:1에서는 모든 하늘들을 한 “하늘”이라고 한데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하늘은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었다.

“옛적부터 있던 하늘들의 하늘들을 타시는 분에게 찬송할지어다. 보라,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보내시니 곧 웅장한 음성이라.” (시68:33)

“그분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 끝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렘10:13; 51:16)

베드로후서 3장을 주의 깊게 읽어 보면 4절에서 “창조의 시작”이라는 문구가 나오며, 이것은 5절에 있는 “하늘들(복수형)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와 논리적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과거의 제1기에 속하는 하늘들(복수형)과 땅이다. 이어서 베드로는 7절에서 제2기에 속하는 하늘들과 땅을 논한다. “지금 있는 하늘들(복수형)과 땅은...” 이 구절은 강한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 “BUT”으로 시작한다. 딤후2:15의 명령을 따라 5절의 “옛 하늘들”과는 분리해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게다가 베드로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불타 없어지고(부정적임) 제3기에 해당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벰후3:13)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2기로도 모자라서 3기까지 있으며, 이 성경 본문에는 “하늘들”(복수형)이 기간별로 세 번 언급되었다. 지구 전체의 지표면을 뒤덮었을 뿐 “하늘들”(복수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노아의 홍수(벧후2)를 전 우주적이고 “하늘들”을 멸망시킨 홍수와 혼동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딤후2:15)는 명령에 대한 무지와 미숙함을 드러낼 뿐이다. 분리는 일면 부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경”이 나눠 놓은 것을 도로 합치는 것은 성경을 사탄적이고 에큐메니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과 같다.

3.)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이것은 말 그대로 현재 시점이다. (7절)

4.) “새 하늘들과 새 땅...”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다. (13절)

같은 베드로후서 3장에는 현대의 모든 배교자들이 필사적으로 배척하는 가장 부정적인 예언도 있다. “...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부정적) 사람들의 심판과(부정적) 멸망의(부정적) 날에 불사르기 위해(부정적) 예비해 두셨느니라.” 온통 부정적인 말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도 세상들이라고 복수 개를 만드셨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히1:2).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히1:2)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히11:3)

이 두 구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제들이 많은 듯하다. 그들이
이 구절들을 거론하면서 과거에 “세상들”이라는 복수의 창조 세계가 있었
다고 제대로 분간하는 것을 필자는 좀처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히11:3이
다루는 것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이다. 즉, 물리적인 창조 세계이다. 그러
므로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
히 서로 다른 세상들을 만드셨다는 사실 외에도 서로 다른 시대들을 만들
기도 하셨다고 결론을 내려도 틀리지 않다. 이 말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
이 계실지 모른다. 창 1:1에서 이미 세상들이나 행성들이 존재했고 “하나님
의 아들들”이 거기에 거주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분들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들
(복수형)과 새 땅에 거주자들을 잔뜩 채워 넣으실 것이라는 사실도 같은 논
리로 외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은 눈을 질끈 감고 역사의 진리를 아예
직시하지 않기로 걱정하는 것과 같다. 역사란 반복되기 마련이다(전1:9).

베드로는 “세상”을 “하늘들과 땅”이라는 창조 세계의 전체라고 정의했
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 있던 세상”과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을 서로 대조
해 놓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뭔가 세상을 다시 만드셨다고 말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 때는 “하늘들”이 멸망한 것은 전혀 없기 때
문이다. 실제로 노아의 홍수 문맥에서 “하늘”이 언급된 창6:17; 7:11,19,23;

8:2를 보면 하늘들(복수형)의 멸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홍수로 인해 지표면에 있던 모든 육체들은 방주에 있는 것을 제외하면 창세기 7장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모조리 멸망했다. 그러나 창 1:6-8과 15-19에서 창조된 그 하늘들과 창1:3 이후에서부터 다시 창조된 땅, 그리고 이들로 구성된 세상 자체는 완전히 멸망해 없어진 게 아니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불로써 멸망할 것이며, 그 뒤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실 것이다. 창1:3-27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재창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부정적)의 도둑같이(부정적)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부정적) 원소들이 뜨거운 열(부정적)에 녹으며(부정적)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부정적).” (벧후3:10)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복수형)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벧후3:12)

이와 동일한 문맥에서 재창조가 언급되었음을 주목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벧후3:13)

하나님은 “지금 있는 하늘들(복수형)과 땅(문자적인 6일 동안 만들어졌다고 믿는 바로 그것)”을 다 갈아엎고 재창조를 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미래를 공부함으로써(벧후3:13) 과거를(창1:2) 알 수 있고, 반대로 과거를 공부함으로써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원리를 주님께서 세워 놓

으신 것이다. 이런 원리는 초등학생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현재의 하늘들과 땅을 몽땅 멸하실 예정이라면, 과거에도 이와 동일한 포맷 작업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요컨대 “**옛적부터 있었던 하늘들과 땅**”이 겨우 노아의 홍수 이전을 가리킨다면, 그것들이 모조리 “**멸망했다(perished)**”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폐가 있게 된다. 앞서 논의했듯이 노아의 홍수 때에는 하늘들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지표면에서도 죽지 않고 생존한 혼들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 호흡하는 생명체 중 방주에 타지 못한 것들만이 익사했을 뿐이다.

두 홍수 사이의 차이

성경의 숫자들 중 2라는 숫자는 분리를 의미한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암3:3)가 그 예이다.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은 개복 수술을 받아 몸이 나뉘어졌다. 구약 성경이 다루는 큰 주제는 율법과 대언자로 양분되며, 이 역시 둘이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 자체도 구약과 신약으로 나뉜다.

이런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성경 전체에서 둘째에 해당하는 구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창1:1)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은 “**땅은 형태가 없고(부정적) 비어 있으며(부정적) 어둠(부정적)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창1:2)가 나온다.

이건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뜻한다. 심판이 있었다. 창1:2는 하나님의 심

판이 루시퍼의 왕국에 임한 뒤에 땅이 처한 상태를 묘사한다. 6일 창조 중의 둘째 날에 해당하는 6-8절의 진술을 통해 이 사실을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날과는 달리(4, 10, 12, 18, 21, 25, 31절) 둘째 날에는 “보기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둘째 날에만 이 말씀이 빠진 게 참 이상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매일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라고 줄곧 말씀하셨는데 유독 창조 둘째 날에만 침묵하셨다는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 어떤 형제는 “그 날만 하나님께서 감박하셨나 보죠”라고 추측했다. 우리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둘째 날은 다른 모든 날과는 다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둘째 날은 다른 날과는 분리된 날이다.

창세기 1장 2절은 앞의 1절과 뒤의 3절을 분할하는 구절이며, 재창조 둘째 날은 다른 날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날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분리가 두 군데에서나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하셨음을 알 수 있다. 빛과 어둠은 “같이 함께 걸을 수가 없다!”**(암3:3) 분리가 세 군데로 늘었다.

그런데 잠깐. 6절과 7절에는 분리가 또 있다. 이것은 심지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되어 있다. ‘대박’ 인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창1:6-7)

창세기 1장의 첫 여덟 절에 이르는 짧은 분량에서 분리가 무려 네 번이나 나온다.

- 1.) 첫째 분리는 2절에 나오는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땅과 관계가 있다.
- 2.) 둘째 분리는 4절에 나오는 “**어둠에서 빛을 나누고**”이다.
- 3.) 셋째 분리는 6-8절에서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분리이다.
- 4.) 넷째 분리는 6, 7절에서 물들이 궁창의 위 아래로 나뉘는 분리이다. 두 번 언급되어 있다.
- 5.) 8절에 나오는 “**하늘**”은 둘째 하늘을 말한다. 이 하늘은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다.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8절의 하늘을 9절에 나오는 소문자 “**하늘**”과 구분해 놓았다. 9절의 하늘은 “하늘 아래의 물들”, 즉 지구 대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6.) 5절에 나오는 “**낮**”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Day라고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다. 이 역시 “원어 원문”에서는 찾을 수 없는 향상된 계시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대문자로 된 “**낮**”은 14절에 나오는 소문자 “**낮**”과는 개념적으로 다른 낮이다. 전자는 셋째 하늘의 우주를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기반으로 하는 절대적인 낮인 반면, 후자는 지구의 24시간 하루 중 해가 떠서 첫째 하늘을 비추는 시간대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 7.) “**낮**”의 반의어인 “**밤**”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5절의 밤은 Night라고 첫 글자가 대문자이지만 14절의 밤은 그렇지 않다. 어떤 달힌 계 내부에서의 어둠 상태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동일하

나, 전자는 하나님께서 빛을 분리하여 거둬 가신 암흑천지의 우주와 관련이 있고 후자는 24시간 하루 중 해가 지고 없는 시간대를 말한다.

- 8.) 6절에 나오는 “**궁창**”은 20절의 “**궁창**”과는 다르다. 6-8절에서 네 번 등장하는 “**궁창**”은 둘째 하늘에 있는 반면, 20절의 “**궁창**”은 첫째 하늘과 지구 대기권을 가리킨다.
- 9.) 끝으로, 2절에 나오는 “**물들**”은 둘째 하늘에 있는 “**깊음**”을 말하는 반면, 7절에 나오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은 첫째 하늘과 관계가 있다.

이런 단순한 성경적 사실들을 무시하면 성경이 주는 최상의 복을 놓치게 된다. 이 사실들을 거부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명령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둘째 서신의 둘째 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 이 말씀이 과연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기록된 것일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바로 성경을 바르게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성령님이 분리를 해 놓으신 곳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거나 사적 해석을 넣어 빚나가지 말고 그분의 판결에 따라야 한

다. 창1:2과 관련된 분명한 팩트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전에 높은 처소에서는 정사들과 권능들이 자기 두목인 사탄을 따라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필자는 본서의 앞부분에서 “사람이 역사로부터 배우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역사로부터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점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솔로몬 역시 이 점을 정확하게 꼬집었다.-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니라.” (전3:15)

이 구절의 논리대로라면 창1:2에서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선향 수궁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늘들과(복수형) 마찬가지로 미래에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들(복수형)과 땅이 통째로 멸망하는 엄청난 사건을 겨우 노아의 홍수의 반복이라고 동일선상에 두고 말할 수는 없다.

수에 대한 성경적 원리

하나님은 성경에다 수에관한 체계를 정립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수를 다루시는 방식이야말로 모든 수학의 근간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어린이들이 숫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은 실

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1이라는 수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2는 분리를 의미하며, 3은 삼위일체를 나타낸다.

성경에 나오는 수의 의미를 선뜻 믿지 못하는 분은 이런 풀이에 대해서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춘다, 숫자 미신이다”와 같은 식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런 반론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역시 자기 신자가 숫자 미신에 빠지지 않게 대비책을 마련해 두셨다. 13이라는 숫자를 예를 들어 보겠다.

13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런 점에서 볼 때 13은 성경에서 꽤 흥미로운 수이다.

세계의 많은 문화권에서는 13을 불길한 수로 여기고 기피해 왔다. 미국의 병원들은 13층이 없는 경우가 많다(12층의 위엔 13을 건너뛰고 바로 14층). 달의 13일과 금요일이 겹치면 불길한 느낌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런 13 공포증은 아무 근거 없이 생긴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 13장이나 13절에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간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욥26:13처럼 말이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그러나 막연한 숫자 미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인지, 하나님께서 13에 긍정적인 말씀을 넣은 두신 경우도 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게다가 이 장은 절도 13절까지 있다. 이런 것이 신자들이 숫자 미신에 얽매는 것을 막아 주는 안전 장치이다.

당신의 생일이 13일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게 실생활에서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는 당신의 집 주소가 13번지로 끝난다고 치자. 그래도 하나도 거리낄 게 없다. 하나님도 “사랑”, 그것도 그냥 love가 아닌 charity라는 고상한 단어를 성경의 제13장에다가 13개의 절을 동원하여 기록해 놓으셨으니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말씀을 다른 부정적인 말씀과 상호 참조로 연결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송두리째 허물고서 개연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건 또 다른 극단일 뿐이다. 숫자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는 문맥에서는 이를 얼마든지 적용해도 좋다. 그러나 가능하지 않은 곳이라면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 명분 중 하나에는 독자가 숫자 미신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는 믿음을 세워 주기 위한 목적이니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창1:2은 성경적 숫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분리의 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적용 가능한 이유가 존재함을 앞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 1.) 문맥: 하나님은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셨다.
- 2.) 문맥: 하나님은 6일 중 둘째 날(분리의 수)에 “보기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처음 땅” -- 하나님의 독특한 계산법

창1:2에 “간극” 같은 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 구절 중 하나로는 계21:1이 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이 구절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지금 있는 땅이 실제로는 간극으로 인해 둘째, 즉 제2기에 속한다면 요한은 어째서 이 땅을 ‘첫째, 처음’ 이라고 지칭하는가?”

창1:2의 홍수 이후에 창1:3-27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가능성은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벧후3:7)을 다시 만드는 작업이 창1:1의 옛 하늘과 땅을 이루는 재료를 재활용하고 쇠신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벧후3:13이 말하는 결말을 염두에 두고 앞의 10절을 보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벧후3:13의 “새 하늘들과 새 땅”은 분명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성하는 ‘물질’ 자체가 예전과 완전히 별개이지는 않을 것이다. 주님은 원창조(창1:1) 세계를 구성하는 기존 재료를 이용해서 지금 있는 세상(창1:3-27)을 조성하셨으며 아마 미래에도 불을 동원하되 동일한 방식으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시리라는 것이 논리의 핵심이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때 플라스틱이나 금속 같은 특정 재료로 만들어진 물건은 재활용을 위해 별도의 수거함에 버리게 분리 배출이 규정되어 있다. 따로 수집된 쓰레기들은 공장에서 녹아서 재처리된 거친 뒤, 다른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진다. 주님께서 미래에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을 처리하시는 방식이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으며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분은 제련공이 금과 은을 녹이듯이 모든 것을 녹여(벧후3:7,10,12) 버리실 것이다. 불순물은 이 과정에서 제거된다. 불은 낡은 물질을 깨끗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이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말 3:2)

재림을 비유하는 이 불은 크고 흰 왕좌 심판 이후에 내려질 진짜 “제련
공의 불”에 비하면 맛보기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불태우고 재가공하여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벧후3:13).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창1:3-27에 나오는 재창조에 비해 이전 창조의 존
재감이 부각되지 않아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일 처음에 있었던
하늘들과 땅은 홍수 이후에 재처리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불 때 이 땅을 계21:1에서 여전히 ‘처음’이라고 지칭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논리가 완전하지 못하다. 하늘들과 땅은 창1:2 이
전과 지금이 물질 차원에서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계21:1의 계수 방식을 다니엘서에 나오는
계수 방식과 연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세상 권력들의 승계 -- 제1기

수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면, 성경의 하나님에게는 자신만의
특이한 계수 방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간극 반대자에게는 이상하게 보
이겠지만 사실 이것은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합리적인 방
식이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 꿈을 완벽하게 해석해
냈다. 그 해석에서 거론되는 권능과 왕국들은 형상에서 한 부분씩을 차지

하고 있었으며 재질도 제각각 달랐다. 꿈에 나타났던 최초의 세상 권력은 느부갓네살 자신이었다(단2:37). 둘째 권력은 메대-페르시아(39절)요, 셋째는 그리스요(39절), 마지막 넷째는 로마(40절)였다.

제2기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우리는 뭔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어서는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이 주전 603년에 일어났고 7장의 사건은 주전 537년에 기록되었다고 분석했다. 즉, 양 사건의 사이에는 66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으며, 후자는 느부갓네살이 죽고 없는 때이다. 실제로 7장을 보면 바빌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나오지, 초대 왕인 느부갓네살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다. 그렇게 왕이 바뀐 뒤에 다니엘은 또 환상을 보고 해석을 들었는데, 그 환상도 2장 느부갓네살의 꿈처럼 세상 권력들의 나열과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금속 대신 짐승이 각 권력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았으며”(4절) 페르시아에 대응한다. 2장에서는 페르시아가 서열상 둘째였다가 여기서는 “첫째”로 순서가 바뀌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 있던 첫째는 목록에서 제외되고 페르시아가 “첫째”로 등극했다. 이는 이후의 권력들도 마찬가지이다.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5절) 이것은 그리스이다. 2장에서는 셋째이다가 이제 둘째로 바뀌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6절) 셋째 짐승은 로마이며, 2장에서는

넷째이다가 여기서는 셋째로 바뀌었다. 그 대신 여기서 새로 등장하는 마지막 넷째 짐승은 “... 두렵고 무서우며 ...”(7절)라고 묘사된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왕국(계 13)을 의미한다.

이런 계수 방식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느부갓네살은 최초의 왕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죽었다. 다니엘서 2장으로부터 대략 6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어셔의 연구에 따르면)에 7:1에서는 마지막 왕 벨사살이 배경에 언급된다. 하지만 다니엘의 환상은 더 먼 미래의 왕이 더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번호를 1부터 새로 매겼으며,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그 과정에서 누락되었다.

제3기

다니엘서 7장의 용례가 여전히 미심쩍게 여겨진다면 그 다음 8장도 살펴보시기 바란다. 21절을 보면 그리스가 드디어 “첫째, 처음” 왕국으로 순위가 올라 있다. 2장에서는 셋째였던 것이 7장에서 둘째가 되고, 그 다음 8장에서야 마침내 “첫째”가 된 것이다. 어찌 된 일일까?

어떤 왕이나 왕국이 사라지고 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수 대상에서도 곧장 제외되었으며 이후의 서열 번호는 자동으로 하나씩 당겨지곤 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발견되는 단순한 원리이다.

적 용

위의 원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어린이 네 명이 과녁 맞추기 놀이를 한다고 치자. 아이들은 누구부터 시작할지 순서까지 정했는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아이가 갑자기 놀이를 중단하고 집에 가게 되었다. 그럼 아이는 총 몇 명이 남는 걸까? 당연히 세 명이지 넷이 아니다. 순서에서 넷째라는 건 애초에 생각을 안 하게 된다. 둘째 번으로 다트를 던지는 아이가 첫째가 되고, 셋째와 넷째도 각각 둘째와 셋째로 순서가 조정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들을 계수하신 방식과 같다. 그리고 이것이 계21:1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계수하신 방식과 같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하늘들과 땅”(벧후3:5,6; 창1:2)을 창조하신 뒤, “그 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인해 멸망했다. 하나님은 창1:3에서 재창조를 통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벧후3:7)을 조성하셨다. 멸망하고 없는 창1:1의 옛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제 계수 대상이 전혀 아닌 것이다. 그 증거로는 사65:17이 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먼저 집에 간 그 어린이처럼 말이다. 그 아이는 더는 계수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벧후3:7)은 계21:1에서 요한이 언급하는 “처음 땅”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며 마음에 두시지 않을 것이며 계수 대상에서도 당연히 제외하실 것이다! 다니엘서 2, 7, 8장에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계수하는 방식에 차이를 두셨던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이 정도면 “실제로는 서열상 첫째가 아니라 둘째인데 성경에서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라는 표현을 썼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되리라 여겨진다. 결론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계수 방식 외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지칭 방식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고 밋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기록에 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사망은 혼인 관계를 즉시 소멸시키며 생존한 배우자에게 재혼을 허용해 준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아이를 수태한 밋세바의 새 남편(삼하 12)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은 밋세바가 우리야의 아내였음을 상기시킨다. 우리야의 사망 이후에도 말이다. 사무엘기하 12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야의 사망 이후 시점에서 밋세바를 의도적으로 “**우리야의 아내**”라고 지칭한다(삼하12:15). 이상하지 않은가? 언뜻 보기에 밋세바는 명백하게, 완벽하게 다윗의 아내가 되어 있다. 전 남편은 확실하게 죽었고, 새 남편인 다윗은 밋세바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었으니**”(창2:24) 말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논조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삼하 12:9를 보면 알 수 있다. “...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으며...”가 첫째 증언이고 둘째 증언 “... 헛 족속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10절)가 확인사살을 한다. 이보다 더 명확할 수가 없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동일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관점을 달리하여 기록하신 부분이 많다. 우리가 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계시를 부정하게 된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지니셨는지를 보여준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 점을 제

대로 간파하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시대에 속하는 오늘날의 기독교계는 “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계3:18).

본론으로 돌아오면, “**지금 있는**” 땅(벧후3:7)이 성경 한 군데에서 “처음 땅”이라고 언급되긴 했으나 성경의 다른 증거들을 모두 찾아 보면 이것이 실제로는 서열상 둘째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드로는 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하늘들--대기권, 우주, 하나님 계신 곳을 뜻하는 공간적인 분류가 아님--과 세 종류의 땅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지금까지 본 장에서 논증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장을 다시 읽어 보시라.

동일 개념의 지칭 방식과 관련해서 성경이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지 삼상9:9를 통해 확인해 보자.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여쭙려 할 때에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더라. 지금 대언자라 부르는 사람을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

한때는 어떤 사람이 “선견자(seer)”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동일한 일을 하는 인물이 “대언자(prophet)”라고 불린다. 성경이 강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선견자가 이제 “대언자”라고만 불리게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다. 11절을 보라. “**그들이 도시를 향한 작은 산으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어린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매**”

성경은 이후에도 구약에서 “선견자”라는 명칭을 17회 더 언급한다. 지금은 ‘선견자’ 대신 ‘대언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성령님의 진술과는 상반된다. (삼상9:19; 삼하15:27; 대상9:22 등) 이상하지 않은지? 그러면 성경의 이런 관행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계21:1의 진술도 바른 조명에 비춰 봤을 때 새삼스러울 게 없을 것이다.

성경에서 창1:2는 진화론의 ‘진’자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 단지 죄와

심판으로 인한 파멸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심판 받고 멸망했다가 재창조될 예정인 것만큼이나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사실 성령님은 성경에서 굳이 “재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하실 일은 이와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시리라 여겨지는 일을 과거에는 차마 하시지 못했을 거라고 성경적인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것은 그분의 행적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에 준비한 온갖 예표들을 무시해야 하며 솔로몬이 말한 법칙도 죄다 무효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전3:15)

창1:2를 포함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과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진술하는 한편으로 현재를 묘사하고 미래를 예언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역사로부터 배우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역사로부터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말들을 확증하기

“...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리라.” (고후13:1)

성경에는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딱 두 구절이 완전히 동일한 쌍을 이루는 경우가 존재한다.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서로 다른 곳에 두 번 기록해 놓으신 것이다. 성경 내부의 서로 다른 두 장소에서 두 증언이 단어 단위로 완전히 일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증언은 확증된다. 예를 들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서 “vaunteth”(자랑하다,

뽐내다)라는 단어는 딱 두 번 쓰였다. 그 중 하나는 고전13:4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vaunteth)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필자는 인디애나 주 북부의 침례 교회에서 시무하는 한 목사와 성경 역본 문제를 두고 논쟁한 적이 있었다. 그는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어떤 곳에서는 좀 명료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이 명료하지 못한지 예를 들어 달라고 필자가 요청하자 그는 고전13:4를 제시했다. “vaunteth”가 어렵고 뜻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럼 그 단어가 정말로 명료하지 못한지, 이것이 쓰인 나머지 다른 구절을 살펴보자.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치켜세우며(vaunteth)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삿7:2)

이 정도면 문맥에 의미가 충분히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vaunt”는 성경의 우리말 번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랑하다’, ‘우쭐대다’라는 뜻이다. 사사기 구절의 경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을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손으로 승리를 쟁취한 것이라고 우쭐대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게다가 사실은 고전13:4 말씀도 확인 사살을 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PUFFED UP)”

권위적 성경은 용어를 직접 정의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해 준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문제의 단어의 바로 다음에 “IS NOT PUFFED UP”가 나오는데 그 이상 무슨 단서가 더 필요하겠는가? 고린도전서의 “vaunteth”는 의

미의 명료성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성구사전을 펴서 성경이 단어를 어떻게 스스로 정의하고 어떤 조명을 주는지를 찾을 생각을 안 하는 목사들이 많아서 문제이다. 삿7:2는 고전 13:4의 의미에 대한 계시를 주는 “지식의 열쇠”(눅 11:52)인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이다. 성경에 모든 정보가 이미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vaunteth”가 들어간 구절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또 하셔야 할 필요가 없다. 두 증인이 말씀을 확립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원리가 바로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라는 문구에다가도 고스란히 적용 가능하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창1:2)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 (렘4:23)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를 빼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또 이브 안녕?). 그런 맥락에서 창1:2의 참고 구절도 응당 제거하고 싶어한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두 구절은 저 쌍이 유일하다. 서로 시제가 차이가 있다고 해서(전자는 과거, 후자는 미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계시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렘4:23의 문맥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며 짝을 이루는 창세기 구절도 마찬가지이다.

마귀를 옹호하는 편에 선 근본주의자들은 상호 참조가 되는 이 두 말씀을 끊어 놓으려고 애쓴다. 현대의 성경 역본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성경의 교리들을 공격한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골1:14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를 제거해 버리고는, 같은 말이 어차피 엡1:7에도 있으니 괜찮다고 무마하는 식이다. 이에 대한 성경의 경고는 단호하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막8:15)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 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눅13:21) 이걸 여성 인권 운동과 같은 격이다. 이브가 또 생각한다.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갈5:9)

성경은 “...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10:35)라고 말한다. 그러나 작은 새가 날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걸 허용하여 성령님께서 여러 곳에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들을 하나씩 놓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이브처럼 성경 변개라는 죄를 범하게 된다.

창1:2와 렘4:23은 상호 보완적인 두 증인이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근본주의자들의 그 어떤 공격도 능히 막아 낸다.

그럼 예전에 살펴봤던 다른 형태의 구절 쌍을 복습해 보겠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창1:2)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욥38:30)

위의 두 구절은 상호 보완적이며 성경 전체에서 “**깊음의 표면**”이 언급된 유일한 구절 쌍이다. 이단 교리를 입증할 목적으로 둘 중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에만 매달릴 생각은 하지 마시라. 깊음의 표면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두 구절이 모두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본서의 앞부분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었다.

창조를 믿는 오늘날의 근본주의자들은 간극을 믿는 것이 진화론과 손잡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 해석의 “**끊어진 연결 고리**”를 임의로 제거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성경적인 증거를 외면하고는 자신만의 “**끊어진 연결 고리**”를 제시하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동물과 인간 사이의 “**끊어진 연결 고리**”를 제시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한 마디로 피장파장이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리라**”라는 바울의 말에 해당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논한 것들 말고도 또 있다. 간극 교리는 성경의 여러 주제와 관계가 있으며, 심지어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와도 관계가 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살후2:7) 시중의 많은 주석서들은 ‘길에서 옮겨지는 이’가 성령이나 교회라고 풀이한다. 그러나 주변 문맥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긍정적인 암시는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럴 때 문제의 접근 방식을 바꿔서 성구사전에서 “**길에서 옮겨진다**”(taken out of the way)를 찾아 보면 고민을 금세 해결할 수 있다. 길에서 옮겨지는 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놀랍게도 딱 한 군데에 단서를 더 넣어 두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잠시 높아졌어도 사라지고 낮아졌으며 다른 모든 사람같이 그들도 길에서 제거되고(taken out of the way) 곡식 이삭의 끝처럼 잘렸느니라.” (욥24:24)

이제 더 어려울 것도 없다. 그는 교만으로 인해 “높아졌다”(exalted)고 나오는데 사탄은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잠시(little while)”라는 기간은 대환란 문맥임을 나타낸다(요 16). “다른 모든 사람같이 길에서 제거되고(= 옮겨지고)”란 옆의 문맥을 보니 “잘리다, 끊어지다(cut off)”라는 의미로 정의되어 있다. 적그리스도도 끊어지는 대상에 포함됨은 물론이며, “다른 모든 사람”에서 “다른”에 해당하는 other는 영어 성경에서 이탤릭체라는 것 역시 덤으로 알아 두자. 하나님께서 번역자들로 하여금 “원문”에 없던 단어도 사용하게 허락하신 것이다.

성경에서 동일 문구를 사용하는 두 구절의 쌍만 있으면 충분하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만지지도 말라” 같은 인간의 사견이 가미될 필요가 전혀 없으며(또 이브 안녕?), 성경적으로 다 확증되어 있는(고후13:1) 말씀들을 대적하는 잘못된 주석서들에 의존할 필요도 없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고전2:14)하는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법론은 모략과 비방을 받곤 한다.

성경에 딱 두 군데가 존재하는 동일 문구 상호 보완 증인을 하나만 더 소개하고 이 주제를 맺겠다. 바로 “하나님과 견증/거름(power with God)”이라는 문구로, 창32:28과 호12:3에만 나온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hast thou power with God)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모세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호12:3을 보면 된다. “그가 태에서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마귀의 줄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니” (잠5:22)

한번 롬5:12에서 걸려 넘어지고 나면 그는 그 뒤부터는 이 구절과 얽혀 있는 다른 구절들과의 모순도 해소하기 위해 연쇄적으로 더 깊은 거짓과 모순에 빠져든다. 이 지경이 되면 하나님은 마귀를 사용하여(왕상22) 영적 어둠을 창조하신다. 이로 인해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집단도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게 되며, 이는 전세계적인 거대한 미혹으로 이어진다(계12:9).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립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데 천재이다.

1단계 -- 롬5:12

현대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눈이 멀어서 이브의 타락과 아담의 종족 대표 속성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다. 그러니 이브의 타락과 논리적으로 연결된 50여 개의 성경 구절도 놓쳐 버린다. “범법(transgression)”, “속음(deceived)”, “농락당함(beguiled)” 등.

2단계 -- 창1:2

롬5:12의 다음으로 그들을 붙잡는 줄은 창1:2이다. “땅은 형태가 없고”라는 문구가 동일하게 등장하는 다른 참조 구절을 간과한다. “공허함(void)”의 성경 용례도 모조리 놓친다(15구절). “어둠”의 심상과 관계가 있는 70여 개의 구절을 놓친다. “깊음의 표면 위에” 내지 “깊음(deep, depth)”의 용례는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정도까지 눈이 멀어 버렸다면 회복 불가라고 봐야 한다.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줄에 묶여 버렸으며 자기가 성경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감을 잡지 못한다.

3단계

창1:2에서 뭉뚱하게 묶여 버린 사람은 “줄들을 잘라 낼” 칼을 집으려 갈 수 없다. 이제 리워야단이 등장할 차례이다. 이놈은 머리가 일곱 개인 괴물로,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물에서 산다. 줄에 묶인 사람들은 리워야단의 정체와 서식지를 결코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이다.

자기의 잔머리를 동원하여 더러운 짓을 하면서 이브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형제들이 많다. 이들에게 절이 34개나 있는 욥기 41장의 정확한 그림은 그냥 물 건너 갔다. 이들은 다리가 묶여서 걸을 수도 없고 움썽달썽할 수조차 없다.

4단계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죄나 사망 따위는 결단코 존재할 수 없다고 여긴다. 이것이 넷째에 해당하는 줄이다.

5단계

아담 이전에 천사 종족이 있었고 이들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먼저 타락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감히 아담 이전에 죄와 사망이 있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이것이 다섯째 “줄”이다.

6단계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세상에 그 어떤 형태의 “부정적인” 사건도 절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담의 창조와 타락 이전에는 죄나 사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섯째 “줄”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땅은 형태가 없고(부정적) 비어 있으며(부정적) 어둠(부정적)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라고 말한다.

7단계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이단 교리들이 롬5:12를 오해함으로써 발생한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은가? 현대의 창조론자들은 롬5:12를 근거로 창1:1과 창1:2 사이의 간극을 부정한다. 창조론자들은 아담 이전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사망이나 심판이 결코 주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 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인류 중에서 최초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이 아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딤후2:14)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범법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은 창3:6에서도 동일하게 확인 가능하다.

또한 하나님의 전체 경륜에서 완전히 최초로 죄를 지은 존재는 인류가 아니다. 이브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사탄이 먼저 타락했다. 그러니 롬 5:12는 창1:1이 말하는 옛 세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때는 아직 땅에 인간이 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아담은 창 1:28 이전에는 그 어느 것의 “머리”도 아니었다. 그는 지금 있는 세상의 “머리” 지위를 갖고 있었을 뿐이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아담 이전의” 천사 종족이 있었다. 그들은 “땅의 기초들”이 놓일 때에 곁에서 노래하고 소리를 질렀을 정도이니(욥38:4,7) 아담보다 훨씬 전부터 존재했으며, 심지어 창1:1보다도 먼저 존재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침의 아들”(사14:12)이라고 불렸다. (단, “계명성”은 절대로 아니니 혼동하지 말 것. 계22:16에 나오는 예수님의 칭호를 감히 사탄에게 부여한 성경은 변개되고 잘못된 성경이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는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cherub)’(겔28:14)이라고 불렸다.

피터 릭크만 박사(펜사콜라 성경 신학교의 창립자,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회의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 인간처럼 물리적인 육체를 입을 수 있다. 그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음으로써 물리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처지가 되었다(시82:6,7 KJV). 성경에 세부적인 과정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루시퍼는 하나님께 반역했으며 이때 다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역에 가담했다.

하나님은 반역에 대한 심판으로 땅을 온통 물로 뒤덮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몸을 익사시켰다. 하지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달리, 이때 타락한 천사들은 아직 다른 자유를 박탈당하지는 않았다. 유 6에 나오는 것처럼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에 묶여 어둠 밑에 갇히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그 대신 하나님은 그들을 셋째 하늘에서만 쫓아내고 창1:6-8 (엡2:2, 6:12 참고)에 나오는 하늘들에서 살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보기 좋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이다(창1:4, 10, 12, 18, 21, 25, 31).

창세기 1장에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창조가 나오고 두 종류의 종족 대표가 나오며 두 종류의 죄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 창조론자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오로지 롬5:12만이 죄의 근원의 전부라는 억지를 부린다. 성경 말씀과 맞서 싸워 봤자 손해를 보는 건 자신뿐이다. 그들은 데이터로 진화론을 반박하고 대적하는 실력은 최고이다. 그러나 성경 기록을 믿고 풀이하는 일에서는 그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 좋다.”

(《성경 신자용 주석서 시리즈》 p. 221)

제15장

리워야단의 정체는 무엇인가

창1:2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리워야단을 거론하는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이 기초가 놓이고 ‘창건(foundation)’ 되기 전(욥38:6)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 중에 타락한 자들은 우두머리인 사탄이 타락할 때 그의 편이 되었다.

우리는 사탄의 타락 시기에 대해서 간극 반대자들이 제시하는 온갖 억측과 사건들을 지금까지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다섯째 ‘그룹’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야기한 결과를 더 공부하도록 하겠다.

그는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일을 하고 있었으나 타락 후에는 사탄이 되었다. 리워야단은 사탄의 형태 중 하나이다. 리워야단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장에서는 그 의문에 답을 얻기 위해 리워야단이 언급되는 성경 본문들을 하

나씩 살펴볼 것이다.

불행히도 많은 근본주의자들이 리워야단에 대한 교리를 송두리째 놓쳐 버렸다. 켄트 호빈드(Creation Science Evangelism) 같은 사람은 성경 교리를 왜곡하는 극단까지 치달으면서 공룡이 인간과 함께 최근까지 살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리워야단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술한 성경 구절들을 부정한다.

리워야단은 사탄이 타락한 형태이며 응당 창1:2와 관계가 있다. 그 반면, 근본주의자들은 리워야단이 악어나 고래, 하마, 또는 공룡일 거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단, 그 정체가 무엇이건 일단은 지구 어딘가에서 사는 수중 또는 해양 괴물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 보자(요5:39).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고(고전2:13)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보자(딤후2:15).

리워야단은 구약 성경에만 5회 등장한다.

리워야단이 사는 곳

리워야단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욥41:1이다. “네가 낚시 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네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앞서 얘기를 했듯이, 성경 기록을 해석할 때는 상호 비교(고전2:13)를 해서 차이를 분간(딤후2:15)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따져야 하는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언뜻 보기에 이 구절은 그냥 지구에 사는 커다란 동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욥기 41장은 리워야단으로 시작해서 이런 구절로 끝난다.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34절) 그러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동물이 사람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를 차지했던 적은 전혀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다. 다음은 그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창1:26)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1:28)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리워야단이 공룡(켄트 호빈드)이라고 말하거나 악어(변개된 성경 역본), 고래 또는 하마(공산주의자의 “성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다. 리워야단은 일단 수중 생물이자 육지 생물부터가 아니다.

2. 리워야단은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왕”은 그저 공룡이나 악어나 고래처럼 단순히 지구상의 여느 동물과 같은 급일 수가 없다. 놈의 정체는 천사, 그것도 타락한 천사이다. 다음은 왕에 대한 증거이다.-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말로는 아폴리온이 니라.” (계9:11)

이 왕이 히브리어 이름과 그리스어 이름을 쌍으로 갖추고 있는 것을 주목하라. 이는 가룻(히브리어) 유다(그리스어)가 양 언어의 이름을 가진 것과 같다(행1:25). 읍기에 나오는 리워야단은 초자연적인 존재이지 여느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고래나 하마나 공룡 같은 부류가 아니다.

3. 어디 이뿐이겠는가? 이 초자연적인 존재는 말도 한다! “그가 네게 많은 간구를 하겠느냐? 그가 네게 부드러운 말들을 하겠느냐?”(3절) 이와 관련된 다른 증거 역시 성경에 있다.

애초에 뱀도 이브에게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 의심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자유주의 성향의 목사와 근본주의자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리워야단은 평범한 동물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마귀는 자신의 “행로”를 숨기고 싶어한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모르기를 원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부드러운 말만을 늘어놓는다.

4. 리워야단은 확실하게 초자연적인 존재이다.

읍41:26-29를 보면 놈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리워야단을 육신에 속한 무기로는 상대할 방법이 없다(고후10:4). 이 “짐승”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는 오로지 양날 달린 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히4:12).

5. 리워야단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기선을 제압하고 사람들을 낙담, 심지어 “실신”시킬 수 있다(9절).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그 지경이 될 정도인 엄청난 동물은 고래나 공룡 중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 리워야단이 있는 곳은 “깊음”과 “바다”(31절)인데, 이것은 요르단 강이나 지중해를 말하는 게 아니며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지표면에 있는 민물이나 바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경에서 “깊음”이 최초로 언급되는 곳은 창1:2이다. 성경은 ‘최초로 언급’ 되는 곳의 문맥과 용례가 성경 전체에서 그 단어의 기본적인 뜻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음에 다시 언급되는 용례는 대체로 추가 제시 역할을 한다.

창1:2에는 “깊음”과 더불어 “형태가 없음(without form)”, “비어 있음, 공허함(void)”, “어둠” 같은 단어들도 최초로 언급되는데, 이것들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심상을 지닌 단어이다. 그리고 창1:2의 “깊음”은 그냥 단독이 아니라 “깊음의 표면”이라는 형태로 최초로 등장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이 “깊음”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다. 지표면에서 움푹 깊게 패인 장소가 아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줄 아는 게”(딤후2:15)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에 등장하는 “깊음”의 모든 용례들을 연구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며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이를 실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연구하고”(딤후2:15),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것”(요5:39)이다.

욥26:5-13에 따르면 우리의 머리 위에는 “물들”(복수형)이 있다. 이 욥기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주 전체의 짜임새이며, 이를 연구하는 학문을 성경적 우주론이라고 한다.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우주의 모양과 형태, 그리고 안팎에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죽은 것들은 물들 밑에서부터 형성되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 러하도다.” (5절)

“물들을 자신의 뽁뽁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8절)

이 물들은 구름들 속에 싸매어져 있어서 평상시에는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음을 주목하라.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돌려싸시느니라.” (10절)

이 물들은 “경계”도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낮과 밤이 끝나서” 영원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곳은 태양계 내부와 같은 낮과 밤의 구분이 없다. 이 물들의 경계점은 영원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리고 다음 세 절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매 하늘의 기둥들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자신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두루 치시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욥26:11-13)

11절에서 욥이 말하는 “하늘”이란 지구 대기권의 하늘이 아니다. 또한 그 하늘과 동일한 문맥에서 “바다”도 언급됨을 주목하라. 그 뒤 13절에서는 “하늘들”이라는 복수형 명사가 “구부러진 뱀”과 함께 등장한다.

이 문맥에서 “구부러진 뱀”이 지표면의 물에서 사는 어느 평범한 파충류라고 생각할 바보가 과연 있겠는가? 여전히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면 7절을 보시라.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여기서 “북쪽”이란 하나님께서 계신 방향이며 셋째 하늘의 “북쪽”을 말한다. 사탄이 올라가서 도달하고 싶었던 목적지가 바로 그곳이었다.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였도다)” (사14:13)

“그러나 너희는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히12:22)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는 시온 산이다. 다시 말해 “산”에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heavenly)” 예루살렘이며 천사들이 있는 곳이다. 지금 지구의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차이를 분간하시겠는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북쪽”과 어떻게 연결시키시기를 보여 준다. 높이는 일이 어디서 오고 그분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라.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 시느니라.” (시75:6,7)

또한 성경은 주님께서 훗날 어느 방향에서 재림하시시지도 알려준다.

“내가 보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바람과 큰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불이 왔는데 그것의 주변에 광채가 있었으며 그것의 한가운데 곧 그 불의 한가운데로부터 호박색을 띤 것 같은 것이 나오고” (겔1:4)

건전한 크리스천이라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안다. 성경에서 하늘은 북쪽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바다”(욥26:12)라고 불리는 “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 바다는 계4:6에 언급되어 있다.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또 내가 보니 불 석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서” (계 15:2)

유리 바다는 셋째 하늘(계15:2)의 바닥인 동시에 “깊음”의 꼭대기 면이다. 하나님의 왕좌는 “북쪽”의 별 너머에 있으며(계14:13; 겔1:4), “깊음의 표면” 내지 간편하게 우주의 위에 있다(창1:2; 욥26:7-13; 37:9,10; 사57:15).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흰 서리는 누가 생기게 하였느냐?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욥 38:29,30)

“(리워야단이) 깊음을 솔이 꿰는 것 같이 꿰게 하며 바다를 향유 단지같이 만드느도다.

그가 자기 뒤에 길을 만들어 빛나게 하므로 사람이 깊음을 백발 같다고 생각하리라.” (욥41:31,32)

“유리 바다”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물에서 얼어붙은 꼭대기 부분을 말한다. 그리고 그 얼음 아래의 얼지 않은 물 속에 리워야단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깊음”이다.

“유리 바다”는 욥기에 나오는 엘리후의 다음 질문과도 관계가 있다.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욥 37:18) 이 구절은 성경 교정을 사칭하는 성경 변개자 내지 현대의 주석가들

이 모조리 걸려 넘어지는 구절들 중 하나이다.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이라는 문구는 하늘에 있는 “유리 바다”(계4:6; 15:2)와 유사하다. 욥37:18이 언급하는 “하늘(sky)”은 태양계에 있는 그 어떤 하늘과도 대응하지 않는다. 이것은 앞서 창1:6-8에서 언급된 “궁창”과 같은 맥락이다. 이로써 우리는 성경을 한 바퀴 돌아 창세기의 “깊음의 표면”(창1:2; 욥38:30)으로 무사히 되돌아왔다.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 진대” 요10:35)

욥37:18에서 “단단하다(strong)”는 것은 “꽝꽝 얼었다”는 뜻이다. “거울(looking glass)”도 재질이 “유리(glass)”이므로 계15:2와 단어가 동일하다. 이 주제를 이보다 더 상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리워야단의 생김새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시74:14)

1. “머리”가 복수형이라는 점을 주목하라. 리워야단은 머리가 여러 개 있다.

2. 그럼 머리가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계12:3을 보면 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일곱 개의 관이 있으며”

이 크고 붉은 용이 곧 리워야단이다. 이놈은 머리가 일곱 개 달린 초자연

적 괴물로, 놈을 보는 순간 당신은 그 기세에 압도당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기진하고 말 것이다. 리워야단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정도의 작은 힘 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능히 제압할 수 있다.

3. 놈은 베헤뭇에 대해 묘사된 것과 동일한 모양의 꼬리가 달려 있다.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에 함께 만든 베헤뭇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 느니라.” (욥40:15)

욥기 41장은 앞의 40장의 문맥이 그대로 이어지는 연장선이다. 베헤뭇과 리워야단은 본질적으로 서로 동일한 초자연적 존재이다. 특히 베헤뭇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외형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세하게 묘사해 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원어” 지식이 제아무리 뛰어난 학자라고 해도, 그리고 그 어떤 신학 노선(자유주의이든 정통이든 근본주의이든) 소속이라 해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나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를 자처한다면 지난 신약 교회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신학 문헌에서도, KJV 이전의 그 어떤 “원문” 필사본과 번역본으로부터도 이런 조명에 대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신학교에 있는 모든 교수들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자필 원문”이 짤 하고 나타난다고 해도 그들은 “베헤뭇”이라는 단어는 눈을 씻고 찾아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자신들이 눈 멀고 혼란에 빠진 근원지조차 파악을 못 할 것이다.

피터 릭크만 박사는 이 주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 ‘베헤뭇’ 이란 ‘짐승’ 또는 ‘가축’ 을 뜻하는 히브리어 ‘bahemah’

의 여성형 복수형이다. 즉, 베헤뭇은 본질적으로 여러 동물들이 모여 한 동물 몸통이를 구성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묘사와 일치한다. 물론 영어로 번역된 성경 기록 자체가 복합형 동물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굳이 히브리어가 반드시 나와야 할 필요는 없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원문이 권위역 킹 제임스 성경 역본의 진술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확증하는 보조 증거로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 권위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간주하고 단호히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어린양에 비유하셨다. 그런 것처럼 그분은 자신의 아들의 짝통을 표범에다가 비유하셨는데, 더 정확하게는 머리가 일곱 개(계 13:2)에다 사자와 곰과 표범이 합성된 짐승이다. 이 복합형 동물의 칭호가 바로 1611년도 영어 성경에 나오는 ‘베헤뭇’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때로는 벌레로(시22:6), 때로는 뱀으로(요3:14), 사자로(계5:5), 그리고 어린양으로(벧전1:19) 다양하게 비유하셨다. 그러니 멸망의 아들을 사자, 곰, 표범에다가 비유하지 못하실 이유도 없지 않겠는가?”

(성경 신자용 주석서 시리즈, 욥기)

베헤뭇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서 더 살펴보자.

“그가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며 그의 고환의 힘줄은 서로 얹혀 있고” (욥40:17)

꼬리라는 단서를 통해 베헤뭇과 크고 붉은 용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

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계12:4)

요한계시록에서 “용”이라는 단어는 13회 등장한다. 붉은 용은 그저 중국이나 그리스 신화에나 나오는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다. 그 붉은 용은 “깊음”이라는 곳에 있다. 이놈은 머리가 일곱 달린 괴물이며 사탄의 실제 모습이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성경 주석가, 근본주의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운운하는 자칭 성경 교정가, 철학자들은 리워야단이 악어, 하마, 코끼리, 공룡 따위의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는 헨리 모리스 같은 창조론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그들은 리워야단이 머리를 7개나 달고 있다고 계시를 주는 시74:14(KJV)는 전혀 안중에 없다. 사27:1과 계12:9도 다 같은 리워야단 얘기이다.

리워야단은 수중 생물이다. 그는 원래 천사가 아니라 그룹(겔28:14)이었으며, 창조된 존재였다(겔28:13). 그는 원래 다섯째 그룹이었는데 겔1:5와 10:14에서는 이미 제명된 상태였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5라는 숫자는 사망과 관계가 있다(창5:5, 행5:5). 리워야단은 하나님의 왕좌(계4:6,7) 앞에서 파충류와 수중 생물을 상징했다. 계4:6-8에 나오는 “네 짐승”은 겔1:6-10과 10:1-22에 나오는 “네 마리의 살아 있는 창조물”과 일맥상통하며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종류에 속하는 동물들을 나타낸다. 1) 가축(송아지 또는 황소), 2) 야생 맹수(사자), 3) 조류(독수리), 4) “사람”, 사탄은 여기에 덧붙여서 양서류와 파충류 동물들을 나타내었다. 계4:7에서 제5 그룹이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며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짐승(창3:1)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늘에는 수중 생물이나 파충류를 나타내는 짐승이 없는데, 이것은 처

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다(겔28:14). 그 역할을 하던 짐승은 나중에 타락해서 (사14:13) 자기 지위를 잃었을 뿐이다(창1:2; 3:1; 욥26:13; 겔28:14; 계12:9).

욥기 40장과 41장은 같이 따라다니며, 사탄의 삼위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2부작 다큐멘터리로 중계해 준다. “베헤못”은 아들 사탄에 해당하며 “리워야단”은 아버지 사탄이다. 삼위의 마지막 멤버는 계9:11에 나오는 부정한 영 “아바돈”이다.

리워야단은 일반 수중 생물을 가리킬 때도 있음

“거기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만드사 그 안에서 놀게 하신 저 리워야단이 있나이다.” (시104:26)

리워야단이 지구상의 평범한 동물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죽박죽 흔트려 놓는 구절이 성경에 있다. 위 구절에 나오는 “리워야단”은 욥41; 시74:14; 사27:1 등과는 달리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며, 단지 사탄을 예표하는 “고래”라는 바다 생물을 가리킨다. 고래는 창1:21에서 따로 구분되어 아주 특별하게 창조된 포유류 “물고기”이다(욥1:17. 마12:40 참고).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 무지한 성경 비평가들은 시104:26의 경우만을 일반화하여 욥기 41장의 “리워야단”까지 일반 수중 생물이라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했다. 그래서 시74:14와 사27:1 등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하는 마귀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시104:26의 리워야단은 계12:3에 나오는 머리 일곱 달린 초자연적인 “뱀”과도 무관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다양하게 확대 적용해 보자.

- 1.) 세상에 신들(gods)이 많이 있지만 참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성경의 하나님(God) 한 분뿐이다.
- 2.) 세상에 마귀들(devil)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우두머리인 마귀(Devil)라는 인격체는 하나이다.
- 3.) 천사들도 다수이지만 “주의 천사”는 단 한 분이다.
- 4.) “하나님의 아들들(sons of God)”은 다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Son of God)이다.
- 5.) 수많은 성경 역본들이 존재하지만 참 성경은 한 종류뿐이다.
- 6.) 여러 종류의 침례들이 존재하지만 구원의 증표로서의 침례는 단 한 종류뿐이다.
- 7.) 여러 용들이 존재하지만, 사탄이라 불리며 깊은 속에 있는 그 붉은 용은 하나뿐이다.
- 8.) 지구상에 많은 뱀들이 있지만(민21:6), 창세기 3장에서 이브를 속인 그 뱀은 여느 뱀들과는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 9.) 그리고 지구상의 물 속에는 머리가 하나뿐인 리워야단이 있지만 머리가 일곱 개나 달린 초자연적인 리워야단도 있다. 그놈이 바로 붉은 용이며 사탄이다.

리워야단에게 주어진 칭호

“그 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사27:1)

위의 구절은 성경에서 리워야단이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곳이다.

고래나 공룡이나 악어나 하마 같은 동물은 인간도 얼마든지 사냥할 수 있으며 그건 전혀 대단한 일이 아니다. 만약 리워야단이 그와 같은 급이라면 왜 주님께서 그걸 무슨 큰일인 것처럼 성경에다 기록하셨을까? 그것도 여느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까지 동원해서 말이다.

헨리 모리스나 켄트 호빈드 같은 무지한 근본주의자들은 오로지 공룡 얘기에만 극단적으로 치우친 나머지, 사탄의 정체를 밝혀 주는 신비로운 성경 구절들의 90%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대가를 치렀다. 창1:2에 나오는 전 우주적 홍수를 부정한 결과, 그 정도로 눈이 닫히고 오류에 빠진 것이다. 우리는 창1:2에서 “깊음의 표면”이라는 것을 접하는데 이것은 사27:1에 나오는 “바다”와 동일하다. 저들은 이 연결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한다.

리워야단에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칭호들이 주어져 있음을 주목하라.

- 1.) “꺾뚫는(piercing) 뱀”
- 2.) “구부러진(crooked) 뱀”
- 3.) “바다에 있는 용”

a. 꺾뚫는 뱀이란 창세기 3장에서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다가와 이브를 속인 그 “뱀”이다.

b. 사27:1 말고 성경 전체에서 “구부러진 뱀”이 또 언급되는 유일한 구절은 욥26:13이다. 그러니 사27:1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원문의 도움 없이도 무수히 많은 계시를 펼쳐 주는 “지식의 열쇠”(눅 11:52)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불문하고 수많은 성경 역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개(고후2:17)했다. 그래서 사27:1에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리워야단의 정체를 제대로 알 수 없게 했

다.

- c.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일곱 개의 관이 있으며 (계12:3)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계12:4)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계12:7)

저 동물이 지구상의 그저 평범한 동물이라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까지 나서서 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12:9)

리위야단이 지표면의 물이 아니라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계12:13)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계12:16)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계12:17)

인간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동물이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13:2)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계13:4)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계13:11)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계16:13)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 년 동

안 결박하여 (계20:2)

그럼 초자연적인 동물이 아니라 고래 같은 평범한 수중 동물에 대해서는 성경의 진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자.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1:21)

하나님은 육상 동물에 대해서도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창1:25)

이와 관련된 피터 릭크만 박사의 설명을 또 소개하겠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창1:6-8에서는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 말씀은 생략됐다. 엡6:10-13; 사24:21; 욥41:31,32를 읽어 보았다면 생략된 이유를 아주 분명히 알 수 있다. 둘째 하늘은 태양계, 은하, 성운, 성단, 별자리가 있는 우주 영역에 속하는데, 거기에는 마귀의 권세가 있고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도 있다. 옛날 콜럼버스 시대에 ‘과학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땅의 끝에 이런 ‘괴물’들의 통치 영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두려워했다.

그런 것이 지구상의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님이 입증되고 나자, 멍청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예 없고 실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극단에 빠졌다(보수·근본주의를 표방하는 크리스천들 중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음). 욥41:31,32에 나오는 ‘바다’란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바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서 말이다. 인간은 가서는 안 되는 영역(시115:16)으로 너무 확고하고 과감하게 나아가다 보니, 거기서 ‘이 세상의 신’을 대신 접견하게 된다.”

참고로 <타임>지에서 소개하는 정보에 따르면, 우리가 있는 태양계는 지름이 대략 73억 4천만 마일에 달할 거라고 한다(약 118억 km). 태양계 하나만이 말이다. 그런데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은하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 태양계는 “새 발의 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은하 안에는 1천억 개의 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걸로도 끝이 아니며 우리은하 역시 초은하단이라는 거대 집단에 속해 있는 2500여 개의 은하 중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우주 전체에는 초은하단 자체가 수백만 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고유명사로서 리워야단은 확실하게 사탄이요 마귀요, 붉은 용, 구부러진 뱀, 베헤못과 동일한 존재이다. 높은 속임수의 명수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천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이런 식으로 속아 넘어간 기독교계의 지식인·지도층들은(켄트 호빈드, 켄 햄, 헨리 모리스 등도 여기에 포함됨) 리워야단이 그저 이 작은 지구에 사는 평범한 동물일 뿐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데 일조했다. 이는 마귀의 계락을 은폐하는 천부당만부당한 말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이하는 것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일에서 게으름과 무지함과 경솔함만을 보일 뿐이다.

켄트 호빈드나 헨리 모리스,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많은 근본주의자들이 위의 주장을 지지하는 목적은 공룡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들은 유신론적 진화를 반박하는 것이 도가 지나쳐서 건전한 성경 교리까지 부정하게 되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기본 진리를 대하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사탄의 정체를 알려 주는 많은 구절들을 제거해 버렸다.

(역주: “성경에서 뭔가 서로 다른 두 개념이 나란히 나오면 우리는 둘 사이의 차이를 분간해 내야 한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세부 내역이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야기하곤 한다. ...”)

거짓증인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큰 방해가 된다. 차이를 잘 설명하려면 세세한 부분을 주목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창1:2의 “깊음”에서 벌써부터 발을 헛디뎈 버린 근본주의자들이 많다. 그들은 뒤로 넘어졌으며(사28:13) 그 뒤부터는 깊이와 리워야단을 논하는 건전한 교리가 나오면 배겨내지 못한다. 이 주제에 관한 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서 마귀가 자기 계락을 은폐하는 일에 같이 도움만 주고 있다. 마피아도 이렇게까지 땅 짚고 헤엄치지는 못할 것이다.

“깊음의 표면(face of the deep)”과 “지면(face of the ground)”의 차이

지금까지 리워야단에 대해 공부한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다. 리워야단은 머리가 일곱 개나 달린 거대하고 초자연적인 괴물이다. 이놈은 창1:2에서 타락했지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 있던 시기에 타락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동산에 두심으로써 ‘지금 있는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 아담은 종족 대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사탄은 자신과 함께 타락하고 옛 홍수까지 겪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동원하여 이브를 속였다. 이로써 이 세상에서도 자리를 하나 꿰찰 수 있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3:5에서는 “신들”이라고 묘사되었다. [5는 성경에서 죽음을 나타내는 수로 여겨지는데, 창3:5를 보면 공교롭게도 선악과에 대한 속임수가 들어있다. 그 다음 6은 사람의 수인데, 창3:6은 이브와 아담이 실제로 열매를 먹고 타락하는 장면이 나온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옛 홍수의 이전과 이후에 모두 존재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에 모두 존재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창6:4). 본서의 앞부분인 제2장에서는 “모든 것(every thing)”에 대해서 성구사전을 통해 용례까지 찾으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문구가 노아의 홍수 때 몇 번 반복되어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창6:17)

참고로,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출20:4)

하나님의 말씀이 “아래로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서로 엄연히 구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에 반해 “깊음의 표면”은 저 두 장소와는 완전히 무관한 별개이다.

또한 노아의 시대에 수중 생물들이 따로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도 살아남았듯이, 리워야단도 수중 생물 형태이므로 루시퍼의 홍수에서 생존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했음이 입증된다.

“모든 것”(창6:17)이라고 해서 언제나 ‘하나도 남김 없이 죄다 몽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예전에 살펴봤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 밖에 있던 생명체들이 말 그대로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죽지는 않았다. 방주에도 동물이란 동물이 죄다 들어간 게 아니며 하나님 역시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 방주에 들어간 것은 코로 공기를 호흡하는 육상 동물, 곤충과 조류뿐이었다. 고래, 어류, 양서류는 방주 밖에서도 충분히 많은 개체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루시퍼도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더불어 홍수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두 홍수 사건을 나란히 대조해 보면,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양서류들은 루시퍼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수중 괴물인 리워야단의 예표임을 알 수 있다.

이 관계가 여전히 감이 오지 않는 독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성경에서 “깊음의 표면”(창1:2; 욥38:30)과 “지면”을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란다. 전자는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거대한 물줄기와 관계가 있으며, 후자는 “땅”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땅은 코로 호흡하는 육상 생물과 관계가 있으며 첫째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도 관계가 있다. “지면 위에 있던 모든 생명체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날짐승이 멸망하였

더라. 그들이 땅에서 멸망하였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창7:23)

성경에는 “땅(the earth)”이 “지면(the face of the ground)”과 연결되어 등장하는 곳이 세 군데 있다(창2:6; 7:23; 8:13). “지면”은 풀어서 쓰면 땅 바닥의 표면 정도가 되는데, “깊음의 표면”(창1:2; 욥38:30)이나 “깊음의 표면”(잠8:27)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것들은 노아의 홍수 기간의 지구 표면과는 전혀 관계 없는 시간과 장소에 속한 물들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깊음의 표면”(잠8:27)은 하늘들에 있다.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분께서 깊음의 표면에 한계를 정하시고”

“지면”이라는 표현은 노아의 홍수라는 과거 사건과 관계가 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창1:2)에서 알 수 있듯, “깊음의 표면”은 노아의 홍수보다 훨씬 전부터 존재했으며 2010년대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왕좌 아래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현재형)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현재형).” (욥38:30) 이것은 노아의 홍수일 수가 없다. 노아의 홍수는 지난 과거의 일인 반면, “깊음의 표면”에 있는 물들은 우리의 머리 위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영원히 멸망해 버리기 전까지는 바로 거기가 리워야단의 처소이기 때문이다.

“깊음의 표면”은 성경에 기록된 상태 그대로 현재까지 존속 중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라고 불리는 그 거대한 물줄기를 나중에 완전히 제거해 버릴 것이다(계21:1). 만약 “깊음의 표면”이 과거의 사건이고 노아의 홍수 때 이 땅에 흘렀던 물과 관련이 있다면, 깊음의 표면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야 이치에 맞다. 그러나 성경은 욥기를 통해 깊음의 표면이 현재형

시제로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창조론자 친구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사실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날이 오면 루시퍼는 불 호수에서 영원히 불타게 될 것이다.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귀는 예전에는 새로운 창조 세계에 감히 끼어들어서(창1:2)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고후11:14) 이브를 속이기까지 했지만(창 3), 미래의 그 날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제16장

“깊음들” -- 성경적 우주론에 관한 연구

이번 장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우주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우주론이란 우주가 어떤 요소들로 이뤄져 있고 각각의 지리적 구조가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학문을 말한다.

1611년도 권위역 킹 제임스 성경은 “깊음”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용도로 가장 먼저 사용했다. 그럼 이에 대한 추가적인 단서가 필요한데, “성경 기록”을 해설하는 가장 좋은 주석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래 온 것처럼 성구사전을 지참하고, 어떤 단어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또 어떤 곳인가가 동일 단어의 다른 용례를 남겨 놓으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어려울 것이 전혀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상상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몹시 어려운 일이다. 마치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는 구원도 원래는 받기가 아주 쉬운 반면, 기본적인 복음에 담긴 진리를 거부하는 교만한 자는 받기 아주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이 아닌가?

“깊음의 표면(face of the deep)”은 창1:2에서 언급된 뒤 욥38:30에서 딱 한 번 더 나온다.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동일한 대상을 두고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했다.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분께서 깊음의 표면(face of the depth)에 한계를 정하시고” (잠8:27)

우리말로는 똑같이 ‘깊음’ 이어서 구분되지 않지만, 잠8:27에서는 “deep” 대신 “depth”라고 살짝 다른 단어가 쓰였다. 그래도 둘은 교리적으로나 우주론적으로나 서로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 하늘 위에 있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완전히 일치한다.

이 깊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리 위에 존재하는 물들을 묘사하는 욥기 26장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 26은 13의 2배수인데 13은 일단 반역의 수이다. 그리고 욥26:13은 “그 구부러진 뱀”을 거론한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판단은 각자 하시라.

욥기 26장은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보다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 5절부터 13절까지 한 구절씩 차근차근 살펴보자. 성경은 성경으로 자가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군더더기 코멘트를 최소화하였다.

5 죽은 것들은 물들 밑에서부터 형성되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다.

먼저 복수형으로 “물들”이 있는 것을 주목하자. 물들(복수형)의 밑에는 죽은 것들이 있다. 물 밑에 무언가가 일단 있다는 뜻인데(8절), 이에 대해서는 곧 더 살펴볼 것이다. 이 물들은 경계가 쳐져 있어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한다(10절).

6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이 가려지지 못하느니라.

그분은 물들을 통해 내려다보신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주 잘 보실 수 있다.

7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성경이 스스로 풀이를 하고 있으니 이 북쪽은 북극점 같은 지표면의 북쪽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성경은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한 쌍을 동일한 단어로 표현한 경우가 많다. 둘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예표요 상징임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북쪽(north)”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 보자.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158회 쓰였으며, 욥기에서의 이 용례는 하늘을 가리키는 위쪽 방향으로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북쪽이라는 방향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방향이다. 시75:6,7에서 하나님께서 “북쪽”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자.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순서상 “북쪽”이 나올 것 같은 곳에 “하나님”이 끼어 들어가 있다. “동쪽, 서쪽, 남쪽, 하나님”인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북쪽에 계신다고 믿었다. 당신이 성경 신자라면 이에 대한 결론 역시 명확하지 않겠는가?

이 구절에는 “북쪽”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들어있다. 바로 “수직으로 위쪽”이라는 뜻이다.

어린 꼬마들이 “언덕의 왕” 놀이를 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 꼬마가 언덕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지위를 방어하고, 반대로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를 꼭대기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말이다. 언덕의 왕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이다.

하늘 위의 물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단서를 주는 구절이 있다.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sides of the north)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사14:13-15)

사탄은 반역을 저지르면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고” 싶어했다. 북쪽의 옆면들이란 “별들의 위”에 있다고 언급되는데, 이것은 우주보다 위이며 “깊음의 표면”보다도 위이다.

그 장소는 플레이아데스나 오리온 같은 별(욥38:31)이 지구상의 장소가

아닌 것만큼이나 지구와는 관계가 없다. 그 장소는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
님께서 계신 “북쪽”과 관계가 있다.

다음으로, 위의 구절에서 언급된 “산”이 우주 전체에서 어디에 있는지
단서를 주는 구절을 보자.

“...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
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
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 (히12:21,22)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모든 가시적인 것들은
우리 위에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예표·상징이다. 히12:22에
따르면 “시온 산과 하늘 예루살렘”이 있다고 한다. 게다가 하늘의 시온 산은
“북쪽의 옆면들”에 있다고 성경이 말한다(시48:2). “시온 산은 아름답게 위
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들(sides of the north)에 있
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시48:2를 진지하고 꼼꼼하게 살피면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 보면, 여러
분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 1.) 이 예루살렘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일 수가 없
다.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에는 궁궐이 하나밖에 없었던 반면
(대상29:1), 이 예루살렘은 “궁궐(palaces)”이 복수형으로 다수가
있다고 3절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이 건물들을 “저택
(mantions)”이라고 일컬었다(요14:2). 물론 이 역시 복수형으로 말이

다.

- 2.) 땅의 예루살렘은 도시의 동부에 있지 “북쪽”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분명히 “북쪽의 옆면들”에 있다.

우주의 전체 그림

성경이 우주의 모양에 대해 말하는 것들을 전부 한데 종합한다 해도 이를 그림 한 장으로 명쾌하게 묘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을 어렴풋이 잡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절은 몇 군데 있다.

우주는 하나님의 신격(Godhead)만큼이나 삼분법적인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피라미드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피라미드의 옆면에 해당하는 것이 “북쪽의 옆면들”이다. 옆면들은 상부의 꼭대기에 해당하는 뾰족한 꼭지점에서 한데 만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셨다(마21:42).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표현을 주목하라. 피라미드 모양에서는 꼭대기에 모퉁이가 하나만 존재한다. 우주의 모양은 모든 옆면들이 모퉁잇돌로 향하는 피라미드와 같으며, 그 모퉁잇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또한 우주에는 세 종류의 층이 존재하는데, 이는 노아의 방주가 층이 세 개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창6:16).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꼭대기의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이 “깊음”이다. 표면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욥38:30) “유리 바다”라고도 불린다(계4:6; 15:2). 깊음은 방대한 양의 물줄기이기 때문에 물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언급되며, 다윗이 148:4에서 이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깊음”의 아래에는 “궁창”이 있다(창1:6,8). 궁창의 영어 단어 “firmament”는 “firm”에서 유래되었으며, 여기서 알 수 있듯 궁창은 견고하고 튼튼하다. 태양계가 있는 이 우주는 “깊음”을 구성하는 궁창 위의 물들이 우리가 있는 아래로 쏟아져 내리지 않게 붙들고 있다.

시48:2에는 “위대한 왕의 도시”가 나오는데, 그 왕은 산속에 있다. 물론 이 시편에서 5, 8, 11, 12, 13절은 땅의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다. 그러나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예루살렘은 명백히 “위에 있는 예루살렘”(갈4:26)을 말한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서 얘기가 나왔던 것들을 복습하자면, 이 “북쪽의 옆면들”은 사탄이 “올라가서”(사14:13) 도달하고 싶다고 말했던 곳이다. 그리고 “북쪽의 옆면들”은 “별들의 위에” 있다(사14:13).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단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에스겔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때 “북쪽”으로부터 시작된 회오리바람의 형태로 오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 분께서 위에서 내려오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내가 보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바람과 큰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불이 왔는데 그것의 주변에 광채가 있었으며 그것의 한가운데 곧 그 불의 한가운데로부터 호박색을 띤 것 같은 것이 나오고”(겔1:4)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실 때 위쪽인 북쪽으로 그대로 올라가셨다. 그러니 올라가셨던 방향으로부터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임을 논리적으

로 자연스럽게 수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욥기 26장은 우주의 “궁창”(창1:6-8) 위로 “북쪽”에 있는 거대한 물들에 대한 추가 계시를 제공한다.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기록 중에서 “깊음의 표면”이 나오는 구절이 창1:2 말고는 욥38:30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도 이미 아주 자세히 고찰한 바 있다.

욥38:29-32 본문을 간단히 복습해 보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흰 서리는 누가 생기게 하였느냐?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네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의 감미로운 영향력을 묶거나 오리온 별자리의 띠들을 풀 수 있느냐?

네가 마자루트를 그것의 철에 이끌어 낼 수 있느냐? 혹은 네가 악투루스 별을 그것의 아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깊음의 표면이란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것, 지표면이나 지구 대기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의의가 없을 것이다. 이 깊음의 표면은 우주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왕좌의 바로 아래에 있다.

욥38:29-32가 창1:2에 있는 모세의 기록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여기서 땅이 “왜”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는지를 모르시는 분도 이제 없을 것이다. 이는 렘4:26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때문이었다. 26절은 23절과 문맥을 공유하며, 그 23절은 창1:2의 참고 구절이다. 깊음의 윗부분은 얼어서 얼음이 덮여 있기 때문에 “표면”이 존재하며, 하나님의 영은 그 위를 움직이셨다.

그럼 욥기 26장으로 돌아와서 7절 이후를 계속 진행하겠다.

물들을 자신의 뻥뻥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욥26:8)

여기서도 복수형의 “물들”이 나오며, 이것은 뒤의 10절에서 언급되는 “물들”과 동일한 존재이다. 이 부분의 시점은 창1:6-8이 말하는 재창조 둘째 날이며, 장소는 둘째 하늘이다.

“...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궁창을 말한다(창1:6,7). “물들의 한가운데(둘째 하늘)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궁창) 물들에서(둘째 하늘) 물들을(첫째 하늘) 나누라.”인 것이다.

시148:4에 나오는 “물들”이란 첫째 하늘의 위에 둘째 하늘의 꼭대기, 그리고 셋째 하늘의 바로 앞에 있는 물을 말한다.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그러니 “물들”의 밑에서 찢어지지 않는다고 현재형 시제로 나오는 “그

구름”은 자연스럽게 “궁창”이 된다. 창1:6에서 물들을 위(깊음)와 아래(땅)로 나눠 주는 그 계층 말이다.

물들(깊음)은 “그 구름”에 싸매어진 채 담긴 덕분에 아래로 새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지구가 아닌 우주 이상의 차원임을 나타내는 다른 증거는 없을까? 아래 구절을 보자.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욥26:9)

이 역시 지구 지표면에 있는 왕좌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는 없는 문맥이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보다 1700년 가까이 전에 이런 말을 남긴 사람이다. 그리고 “가리다, 펴다”라는 동사는 모두 현재형 시제이다.

이 구절에 나오는 “자신의 구름”이란 지구 대기권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며, 머리 위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 아래에 있는 구름을 말한다. “자신의 왕좌”는 “깊음의 표면”의 위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다. 깊음이란 리워야단이 사는 거대한 물줄기이며 궁창이 아래에서 받쳐 주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믿기만 한다면 일이 아주 단순하고 논리정연해진다.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느니라. (욥26:10)

여기도 아직 둘째와 셋째 하늘 이야기이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들에 경계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과 영원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이기 때문이다. 물들의 경계 중 하나는 “낮과 밤이 끝나고” 영원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다.

영원이 있는 셋째 하늘에는 “낮”과 “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매 하늘의 기둥들이 떨며 놀라느니라. (욥26:11)

여전히 하늘 얘기가 계속된다. 지표면의 물과 아무 관계가 없는 문맥인 것은 변함없다.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자신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두루 치시느니라. (욥26:12)

여기에 나오는 물들은 뭔가 “나뉘진다고” 나온다. 그리고 나뉘진 뒤에는 그 안에 반드시 무언가가 존재한다. 다음 구절을 보면 여기서는 그 구부러진 뱀, 즉 마귀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주님은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물들을 나누셨다. 그분은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하여 사도행전 1장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물들을 나누시는 작업을 총 네 번 수행하셨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사건은(출15)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라고 불리는 물줄기를 가로질러 오시는 것에 대한 예표였다. 그분은 그 바다를 관통하여 재림하실 것이다. “주께서 주의 말들과 더불어 바다 곧 큰 물 더미를 지나며(through) 걸으셨나이다.” (합3:15)

우주적인 물에 대한 언급은 성경 전체에서 두루 발견할 수 있다. 시148:4도 그 중 하나이다.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거대한 물이 우주의 위를 두르고 있는 장면은 죄인의 위로 하나님의 진노가 둘러져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영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사 69:2; 88:6,7; 벰전3:20). 교리적 적용으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리 위에 있는 물에 “잠겨” 있다는 점을 떠올릴 수 있다.

솔로몬은 욥과 마찬가지로 하늘들(복수형)에 “깊음”이라고 불리는 물들이 있었음을 믿었다.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분께서 깊음의 표면에 한계를 정하시고” (잠8:27)

이 “깊음의 표면”(deep가 아닌 depth)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면”의 지형이 전혀 아님을 잊지 않으셨으면 한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는 계층은 첫째 하늘 아래의 지구 표면과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기 때문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연구하라”라는 명령에 순종만 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

예레미야 역시 모세, 솔로몬, 욥과 더불어 우리의 머리 위에 거대한 물줄기가 있다고(현재형 시제) 믿었다.

“그분께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의 끝에서 수증기가 오르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공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렘51:16)

주님이 이 물들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계신지에 대한 단서를 얻으려면 앞의 13절을 보자. 문맥은 모두 동일하다. “오 많은 물들 위에 거하며 보물이 풍부한 자여, 너의 끝 곧 너의 탐욕의 한계가 이르렀느니라.”

이 구절은 주님께서 “많은 물들의 위”에 계시며, 16절과 연계해서 생각

했을 때 그 물들은 “하늘들에”(복수형)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 여기의 물이 지표면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잘못된 해석이 틈탈 여지가 없다.

물론 램51:13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직접 말하는 구절은 아니다. 이것만으로 증거가 충분치 않아 보인다면 시29:3을 보도록 하자.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를 내시나니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이 정도면 완전히 눈을 가리고 성경을 읽지 않고서야 증거를 모르는 척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도 주님은 많은 물들의 위에 존재하고 계신다(현재형 시제). 또한 “많은 물들”은 10절을 보면 “큰물”, 즉 “홍수”라고 불리고 있다. “주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나니 ...”

여기서 합3:10과 계4:3-6이 연상될 것이다. 계시록 4장의 경우 하늘의 “왕좌”(4절), “번개와 천둥과 음성들”(5절)이 나오는데 시편 29편에서도 유사한 묘사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 뒤 계4:6에서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나오며, 이로써 우리는 성경을 한 바퀴 돈 뒤 창1:2의 홍수 사건과 “깊음의 표면”으로 되돌아간다.

다음 시편을 보자.

“땅과 거기의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큰물들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셨도다.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시 24:1-3)

이 시편에 따르면 “주의 산”과 “그분의 거룩한 곳”과 동등한 문맥에서 우리의 머리 위로 물이 있다. 그렇다. 이 땅에서도 시온이 “산” 위에 있는 것

이 사실이긴 하나(시2:6), 시24:3에서는 “누가 오르리요?”라는 의문문이 추가로 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문구가 똑같이 또 나오는 곳은 롬 10:6이 유일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문맥이다. “누가 하늘로 올라 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 시24:2를 통해 우리가 총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단서는 창1:1에 대한 추가 계시이다. 그 첫 창조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조명이 이런 구절에 담겨 있다. 루시퍼가 타락하자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곳**”의 바로 앞에서 대량의 물을 이용해 심판을 집행하셨다. 그 결과 땅은 창1:2처럼 “**형태가 없고 비계**” 되었고 되었다. 원래 땅은 벧후 3:5처럼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었는데,**” 나중에는 벧후 3:6처럼 “**물의 넘침으로 멸망**”해 버렸다. 성경은 참으로 대단한 책이지 않은가?

그럼, 읊기로 돌아온다.-

“**그분께서 ... 교만한 자를 두루 치시느니라.**”

여기서 “**교만한 자**”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그 구부러진 뱀**”, 즉 사탄과 연루가 되어 있는 특정 집단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집단에 대해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찾아본 적이 있으니(창6:2,4; 욥1:7; 2:1),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또한 “**교만한 자**”는 필연적으로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욥41:34)과도 관계가 있다.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그 구부러진 뱀”이 바로 다음에 나오니, 12절에서 나뉘어진 “바다”도 문맥상 지표면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바다임이 밝혀진다. 성경에서 13이라는 숫자 대부분의 경우 반역의 수이다. 문제의 다음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욥26:13)

사탄이 어쩌다가 지금의 사탄이 되었지에 대한 엄청난 특급 계시가 드러나 등장한다. 여기서 “자신의 손”이란 물론 하나님의 손을 말하며,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저런 형태가 된 것이다. 이는 훗날 이브와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 받았으며 영적으로는 즉시 죽었고 물리적으로는 언젠가 죽게 된 것과 같은 이치이다. 킹 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사탄은 “루시퍼”라고도 불린다(사14:12-14). 다른 “성서” 번역본들에는 이런 계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27:1도 구부러진 뱀에 대한 정보를 주므로 복습 차원에서 다시 소개하겠다. “그 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욥기 26장의 내용은 41장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그 구부러진 뱀”(13절)은 욥41:31이 말하는 우리 머리 위의 “바다”에서 산다. 그 바다는 “깊음”(욥41:32)이라고도 불린다. 욥41:31-34 내용을 살펴보자.

31 (그분께서) 깊음을 솔이 꿰는 것 같이 꿰게 하며 바다를 향유 단지같이 만드는데도다.

32 그가 자기 뒤에 길을 만들어 빛나게 하므로 사람이 깊음을 백발 같다고 생각하리라.

33 땅 위에는 것처럼 생긴 것이 없으니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34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전의 중세 시대에는 서쪽으로 끝까지 항해하면 바다가 더 나오지 않는 땅의 끝에 도달하고, 거기까지 간 사람은 거대한 붉은 용에게 잡아먹힌다는 가르침이 나돌았다고 한다.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끝까지 실제로 항해를 해 봄으로써 “땅의 끝”이나 “절벽”이나 “용”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콜럼버스가 그 오랜 미신을 불식시키고 나자 사람들은 이제 성경의 “깊음”이 대서양·태평양·인도양 같은 지구상의 바다와 여전히 관계가 없다는 사실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창1:2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깊음”을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뿐이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욥기 41장에 나오는 “바다”는 욥26:12에 나오는 바다와 동일한 바다이다. 이 바다를 구성하는 “물들”은 둘째 하늘의 위에 있으며(시148:4) 그 속에는 “구부러진 뱀”(욥26:13)이 산다. 그 뱀은 “용”(사27:1)인데 이 “크고 붉은 용”(계12:3,9)은 현재 영원히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의 “홍해”에 있다. 이 “홍해”(Red Sea)는 우리의 북쪽(욥 26:7), 즉 우리와 하나님(욥37:18)의 사이에 있다.

41장 34절에는 “그는 ...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다. 지구상의 어느 공룡이 이런 왕의 지위를 차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호빈드 형제는 이를 간파하는 복을 놓쳤다. 현대의 창조론자들은 근본 주의이전 보수주의이전 건전한 교리를 건디지 못한다(딤후4:3).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의 아래에는 “유리 바다”라고 불리는 물줄기가 있다고 추가 계시를 남겼다.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계4:6)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서” (계15:2)

그러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바다가 더 있지 아니하고”라고 진술한 것은 지구상의 바다가 아니라 우리 머리 위의 바다, 즉 깊음을 가리킨다. 이때는 궁창도 없어지며 하나님의 완벽한 빛이 비쳐서 만물이 절대적으로 밝아질 것이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이런 상태일 것이다.

깊음과 관련된 교리는 얼음 낚시를 하는 사람에다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다. 낚시꾼은 얼음에다 구멍을 낸 뒤, 갈고리를 그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당겨서 물고기를 밖으로 꺼낸다. 휴거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도 이와 같은 일을 겪을 것이다. 그분은 마치 얼음판 위에 서 있는 낚시꾼과 같다. 표면이 얼어 있는 낚시터는 물론 깊음이라는 물줄기이다. 휴거가 일어나면 셋째 하늘을 향해 구멍이 잠시 뚫리고, 그분은 그 구멍을 이용해 우리를 낚시줄로 “끌어올려서” 황금 “해변”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깊음에 대한 더 깊은 고찰

지금까지 논한 성경적 증거들이 여전히 미덥지 않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지 모르니 성경의 다른 곳에서 증거를 하나만 더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로써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대한 물줄기의 정체가 무엇이고 무엇과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이번에는 에베소서 3:16-19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크리스천들을 위해 한 기도이다. 19절은 18절과 한데 엮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하고...”라는 형태로 설교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다. 물론 성경 본문은 전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는 잘못된 인용이다. 18절과 19절은 서로 다른 서술어를 갖는 상이한 문장이다. 즉, 양 구절 사이에 엄연히 “나눔”과 분리가 존재한다. 앞의 18절은 성경적 우주론을 논하고 있다. 성경적 우주론이란 만물이 어디에 붙어 있고 우주가 무엇인지, 우주의 모양과 크기가 무엇인지 등을 다루는 학문이다. 우리가 성경적 우주론을 이해하길 바란다는 기도를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했을까? 이것이 진지하고 중요한 주

제이기 때문이다. “깊음”과 관련된 건전한 성경 교리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리워야단의 정체, 사탄의 타락 시기, 하나님께서 최초로 심판을 집행한 시기와 방법과 대상과 심판 사유 같은 주제를 엉뚱하게 왜곡하는 이단들이 있을 것임을 바울 역시 진작에 간파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제17장

“그 구부러진 뱀”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욥26:13)

깊음의 꼭대기에는 “물들”이 있다. 바다에 대해 다루는 다음 구절들을 눈여겨 보시라.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계4:6)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서” (계15:2)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 지어다.” (시148:4)

다음은 피터 렉크만 박사의 설명이다.

“사탄은 깊음 안에 있다. 그곳이 놈의 거주 영역이다. 이 깊음은 오리온 별 자리의 거대한 베이(Bay) 성운보다도 1억 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있다. 사탄은 모든 교만한 자녀들의 왕이다.”

성경에는 깊음에 있는 물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예표들이 들어 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부활 후 하늘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셋째 하늘에 있는 제단에다 피를 뿌리셨다. 그 피는 이동 과정에서 깊음 속의 물들을 통과했으며 그 결과 온 우주를 적시고 채웠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도 “붉은 바다”라고 불리는 홍해가 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물들을 쳐서 붉은 피, 시뻘건 피로 변하게 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홍해가 둘로 갈라졌으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를 도보로 건너서 반대편으로 이동했다. 이것은 하늘로 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표이다. 그들도 앞서 얼음 낚시 비유에 묘사되었던 것처럼 우주적인 바다를 가로질러 우주를 횡단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는 붉은 용 사탄이 죽임을 당하는 스타워즈 영화 실사판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 포경선 선원들이 지표면의 바다에서 고래를 사냥하듯이 사탄도 그런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엘리아는 물들을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또 다른 예표이다. 그는 요르단 강을 건너게 됐는데 그때 물의 흐름이 끊어지고 건너는 길이 생겼다. 휴거 때에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종류의 이적을 경험할

것이다. 그들은 머리 위에 있는 물들로 둘러싸인 튜브 같은 워프 공간을 통과할 것이다. 그리고 꼭대기에 있는 깊음의 표면까지 지나 올라감으로써 셋째 하늘에 도달할 것이다.

우리가 물속을 통과할 것이라는 법칙을 확인할 수 있는 곳 중 하나는 하박국서이다. 백성을 아예 물고기에다 비유한 곳이 있기 때문이다. 얼음 낚시를 하는 낚시꾼은 톱으로 얼음판에다 구멍을 낸 뒤, 그 구멍을 통해 물고기를 잡아서 꺼낸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낚시에 갓 잡힌 물고기처럼 깊음의 구멍 밖으로 끄집어져 나올 것이다. 하박국이 사람의 처지에 대해 무어라 말했는지를 살펴보자. “또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기어 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합1:14)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4:19)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로 제자로 선택하신 네 사람들은 다 직업이 어부였다.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물 아래에 있는 셈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 “호수”에서 최후를 맞이한다. 그들은 불로 이뤄진 호수에서 영원히 허우적거리면서 불타게 된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깊음이라는 물의 밖으로 끄집어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기 때문에 얼음판에 뚫은 자그마한 구멍으로 나오듯이 나올 것이다.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물에 대해 묘사하고 입증하는 성경 구절은 이것들 말고도 많이 있다. 지구 대기권 밖의 우주로 나가거나 나갔던 온 사람을 우주 비행사 또는 우주인이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astronaut라고 하는데, 앞부분 “astro”는 “별”이라는 뜻이고 뒷부분은 바다, 항해, 해상을 뜻하는 “nautical”에서 유래되었다.

배는 물 위를 다니는 교통수단이듯, 우주선을 뜻하는 spaceship은 우주의 안이나 위에 있는 물과 관계가 있다. 또한 심해 잠수부가 산소 탱크 없이 깊은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우주인들도 우주로 나가려면 산소를 반드시 별도로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유사점이 하나 더 있다. 물에는 파도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유체인 공기에도 물론 흐름과 파동이 존재한다. 사탄이 괜히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엡2:2)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욥기 26장으로 돌아가서 앞 장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다. 반복을 할 명분이 충분할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물들을 자신의 뻥뻥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욥26:8)

궁창의 위에는 물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 물들을 “깊음”(창1:2)이라고 부른다. 구름이 그 물들을 밑에서 받치고 있으나 그 구름은 “찢어지지 않는다.” 물이 아래로 쏟아져 내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구름을 성경에서 궁창이라고 하며, 궁창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깊음의 표면”은 궁창 위의 물의 윗부분에 있다(창1:2; 욥 38:30). 욥이 한 말은 창1:6-8에 나오는 모세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6일 (재)창조 중 둘째 날에는 다른 날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다. 루시퍼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그와 함께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깊음을 포함해 둘째 하늘에 있게 되었다. 이런 잔당들

이 하나님께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욥26:9)

주님께서 자신의 왕좌의 정면을 은폐하셔서 우리가 셋째 하늘의 모든 영광과 광채와 권능을 볼 수 없게 조치를 취하는 장면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해가 지고 나면 하늘이 온통 캄캄해지는 것이다. 우주를 덮고 있는 물은 너무 깊기 때문에 성경으로부터 계시를 얻지 않으면 우리는 물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도통 알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광활한 우주에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둠뿐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전13:12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느니라.(욥26:10)

지면의 모든 바다에는 육지와 경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 머리 위의 물들에도 경계들이 있다. 머리 위의 물들의 경계를 넘어서는 곳은 영원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욥은 여기서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라고 말한 것이다. 셋째 하늘에서는 낮과 밤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낮”을 둘째 하늘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밤과 구분하셨다. “...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창1:4)

여기서 다루는 것은 태양으로 인해 순환하는 지구의 낮과 밤이 아니다.

그런 것은 창1:14-19에서 넷째 날이 돼서야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낮과 밤이 순환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영원 속에서는 언제나 밝고 영광스러운 “낮”만이 존재한다. (영어로는 낮을 뜻하는 Day에서 첫 글자가 대문자이다.)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창1:5에 나오는 “낮(Day)”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했다. 창1:14에 나오는 지구상의 “낮(day)”과는 차이를 둔 것이다.

낮이 다 같은 낮이 아님을 입증하는 좋은 예는 사도 바울이 아그립바 왕의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장면이다.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렇게 증언했다.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및 나와 함께 걸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행26:13)

여러분은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시는가? 햇별이 가장 밝게 비치는 “정오”인데도 바울은 다른 종류의 빛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것도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고 한다.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낮과 밤[태양계 기준]이 끝나고” 영원이 시작되는 곳에는 이런 빛이 존재한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매 하늘의 기둥들이 떨며 놀라느니라.(욥26:11)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여 하늘에 기둥들을 몇 종류 창조하셨다. 이것의 정체는 확실치 않다.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면 잠9:1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일 수도 있다. 심지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둥들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으니 말이다.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갈2:9) 다만, 이런 영적 적용이 가능한 것은 하늘에 먼저 문자적인 기둥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자신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두루 치시느니라.(욥26:12)

이 구절에서 바다라고 일컬어진 그 물들은 나누어질 수가 있다. 이 물들의 안에는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한 괴물이 산다. 그 괴물은 “교만한 자”와 관련이 있으며 다음 구절에서는 “그 구부러진 뱀”이라고 불린다. 또한 욥40:19에서도 이렇게 언급된다.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뭇이거니와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댈 수 있느니라.”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댈 수 있다”라는 문구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검을 리워야단에게 들이댄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검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던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히4:12)

그리고 켄트 호빈드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공룡에게 휘둘러지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자그마한 지구에 있는 작디작은 동물 따위를 상대하려고 단 20초 남짓한 시간이라도 낭비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근본주의자들은 아직도 리워야단이 고래, 악어, 하마, 공룡 중 무엇인지를 규명하려 애쓴다. 이것은 꼬마들의 유치한 장난에 불과하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리워야단은 욥41:34에서도 언급된다.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높은 이 땅에 적그리스도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슥11:17). 놈을 상대하는 방법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이 말하는 겐(히4:12)을 동원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슥11:17을 보자. “그 양 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위의 구절에서 “칼”을 눈여겨보라. 성경은 한 곳에서는 “칼”이 리워야단을 향해 다가갈 것이라고 말한다(욥40:19).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칼”(문자적인)이 적그리스도, 즉 대환난 때 이 땅에 등장하는 리워야단(=사탄)의 하수인을 공격해서 팔을 다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슥11:17).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흥미롭지 않은가?

성경 교사임을 자처하면서도 성경의 이런 네트워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게 어떻게 저것과 연결되느냐? 어떻게 추가 계시가 되느냐?” 라고 반문하는 어린 친구들은(호빈드, Ham 등) 사탄의 행로를 은폐하는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과 같으며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욥26:13)

놈의 정체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마귀는 “깊음”이라고 불리는 우리 머리 위의 물줄기 속에 산다.

또한 번호와 관련하여 아주 흥미로운 점도 찾을 수 있다. 장 번호인 26은 13의 2배수이며, 그 뿐만이 아니라 절 번호는 13이다. 13은 성경에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반역의 수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완전히 최초로 반역

한 자는 바로 사탄이다.

하나님은 사탄의 반역의 책임을 물어, 창1:2의 시점에서 반역의 주동자를 구부러진 뱀의 형태로 만들었다. 2는 분리의 수이다. 그리고 창1:3에서 하나님은 재창조를 시작하셨다. 다음 4절에서는 셋째 하늘에 있는 것과 그 아래 둘째 하늘에 있는 것 사이의 “분리”가 발생했다.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분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분리를 의미했다.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리워야단에 대해 이렇게 추가로 말한다. “그 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사27:1)

이제 우리는 욥41:31-34에서 언급되는 “깊음의 표면”으로 돌아온다.

“깊음을 솔이 꿰는 것 같이 꿰게 하며 바다를 향유 단지같이 만드는도다.

그가 자기 뒤에 길을 만들어 빛나게 하므로 사람이 깊음을 백발 같다고 생각하리라.

땅 위에는 것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리워야단은 이 땅에 사는 여느 동물이 아니며 사탄, 붉은 용, 마귀라고 불리는 초자연적 존재이다. 알렉산드리아 이단에 속하는 똑똑한 학자들은 이 실존하는 짐승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성향이 보수주의나 복음주의를 불문하고 무엇이건). 그들은 리워야단이 고래, 하마, 코끼리, 곤충, 공룡 따위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평범한 동물 중에 하

나눔께서 자신의 검을(말씀의 검) 친히 뽑아서 잡으셔야 할 정도로 대단한
놈이 도대체 무엇이 있던 말인가?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
리석은 자가 된”(롬1:22)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의 기도 제목도 우리로 하여금 주변의 우주에 대해
서 잘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우주의 모양과 크
기는 무엇이고 왜 땅이 한때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창1:2
에서 무슨 이유로 인해 심판을 내리셨는지 같은 것을 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적 우주론 교리를 공부했으며 우리는 물속의 물고
기와 같은 처지라는 것까지 확인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언젠가 예수님은 물속
에 있던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
와 같이 나가게 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제18장

성경 해석에 관한 2와 3의 법칙

본서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어떤 본문을 설정한 뒤, 성구사전을 펴서 그 본문에 나오는 특정 단어나 문구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단 한 번만 더 등장하는 경우를 찾곤 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그 단어나 문구의 등장 빈도는 딱 2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단어들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 두 용례에 전부 담겨 있다는 뜻이 된다.

이때 우리는 두 용례 중 한 곳만 편파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해서 안 된다. 어떤 키워드에 대한 증언이 성립하려면 용례가 최소한 두 군데 이상 존재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될 때 바로 이것이 성경 본문에 대한 인간의 사적 해석과 하나님의 논리정연한 해설 사이에 차이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시를 충분히 남겨 놓으셨다. 그리고 각 구절들이 내용을 상호 보완하면서 계시와 해석이라는 전체 그림의 퍼즐 조각을 스스로 끼워 맞춘다. 이런 것에 성경을 읽는 묘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해석한 뒤,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면 된다.

1. 성경의 자가해설을 인간의 설명보다 언제나 우위에 두도록 하라. 이것은 큰 차이를 만든다.

인간은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창1:2)가 생산적인 창조와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의 자가해설은 렘4:23의 “동일 표현”을 근거로 하여, 창조가 아닌 “심판”과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럼 끝이다. 인간의 설명이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 내린 해설을 있는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의 성경에서 말씀들을 훑쳐 가려 하는 보수주의 도둑들로 인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라.

2. 어떤 증언이 확증되려면 최소한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공교롭게도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는 성경 말씀 자체도 성경에 “두 번” 나온다! 구약과 신약에 각각 한 군데씩 있다.

“... 두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신19:15)

“...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리라.” (고후13:1)

3. 기왕이면 증인이 둘보다는 세 명이 있는 것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 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4:9,12)

“**깊음의 표면(face of the deep)**”이 딱 이 법칙의 적용 대상이다. 성경에 총 3회 등장하기 때문이다(창1:2; 욥38:30; 잠8:27). 이것은 “**지면(face of the earth)**”(창2:6; 7:23; 8:13)과는 대조적으로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장소이다. 이를 입증하는 데는 성경의 구절 세 군데에 존재하는 문맥과 용례 정도면 충분하다. 창1:2; 욥38:30; 잠8:27에다가 또 더하거나, 이 셋에서 무엇을 빼지 말라. 이들은 충분히 자가해설이 가능하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도와 드리겠다” 의도로 거기에다가 뭔가 자기 생각을 털끝만큼이라도 첨가해서 자신의 새로운 교리를 입증하려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

Tabb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깊음”들은 이 땅의 표면에 흐르는 물이라고 아주 당당히 말했다. 그는 아주 절대적으로 틀렸다.

성경에서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라는 문구가 등장하는 곳은 두 곳, 단 두 군데이다(창1:2; 렘4:23). 그리고 둘째 용례가 첫 용례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 준다. 이것이 “**지식의 열쇠**”(눅11:52)이니 혼동 없으시기 바란다. 첫째 용례는 과거 시제이고 둘째 용례는 미래 시제이다. 첫째 용례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표가 과거 시제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렘4:23).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이상 다른 조명이 필요하지 않다. 거기서 빼지 말고 더

해 놓지 말라. 다른 형제가 무어라 말하든 개의치 말고 있는 그대로 믿기만 하시라.

“길에서 제거됨(taken out of the way)”

성경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다른 사례로는 소위 난해 구절로 알려진 살후2:7이 있다.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혹자는 이것이 교회 또는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정답이 전혀 아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성구사전을 펴서 이 표현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 딱 하나 욥24:24가 더 나올 것이다. “그들은 잠시 높아졌어도 사라지고 낮아졌으며 다른 모든 사람같이 그들도 길에서 제거되고(taken out of the way) 곡식 이삭의 끝처럼 잘렸느니라.”

그럼 참고 구절인 욥24:24를 차근차근 분해해 보자.

이 구절의 문맥은 사악한 자와 대환난이다. 장 전체를 읽어 보시기 바란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살후2:8)

- 1.) “잠시(a little while)”: 욥24:24는 대환난 문맥이다. ‘사악한 자’가 나오는 시37:10, 사10:25와 특히 요16:16-19를 같이 보시라. 이것들은 모두 대환난 문맥이다.
- 2.) “잘림, 끊이짐(cut off)”: 그들이 죽음을 당한다는 뜻이다. 동일한 표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한다(창9:11; 출9:15; 시37:9,28; 단9:26).

- 3.)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길에서 제거됨(taken out of the way)”과는 약간만 단어가 다른 “사악한 자를 제거하라(take away the wicked)”도 잠25:5에 있다.

욥24:24는 살후2:7을 제외하면 성경 전체에서 “길에서 제거됨(taken out of the way)”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유일한 구절이며, 그 의미도 비유가 아니라 명백히 문자적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살후2:7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단서를 맞은편 구절에 남겨 두셨음을 뜻한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우리는 논쟁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으면 된다. 그저 믿기만 하시라!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 A. 욥24:24는 살후 2:7의 계시를 여는 “지식의 열쇠”(눅11:52)이며
- B. 사7:2는 고전13:4에서 “vaunteth”라는 단어의 뜻을 계시하는 “지식의 열쇠”이듯이(14장 참고),
- C.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램 4:23은 비록 대환난 문맥이긴 하지만 25절과 더불어 창 1:2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계시를 여는 “지식의 열쇠”이다.

“북쪽의 옆면들”

“북쪽의 옆면들”도 성경 전체에서 단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으므로 이를 복습할 가치가 충분히 보인다.

“북쪽의 옆면들”이 “머리 위”와 관계가 있다면, “땅의 옆면들”(렘6:22)은 의미가 정반대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한 백성이 북쪽 나라에서 오며 한 큰 민족이 땅의 옆면들로부터 일어나리라.” (렘6:22)

“북쪽의 옆면들”이 땅에서의 어느 장소라는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으며 번지수를 잘못 짚은 엉뚱한 발상이다.

제19장

이 주제가 어려운 이유

본서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이야기들을 우리 형제들이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특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롬1:20)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영원한 진리에 대해 평이하게 말한다. “그분께 속한 비가시적인 것”들은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이다. 이로써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

나님 그분과 삼위일체 ‘신격(Godhead)’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건 받지 못했던 훗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과거에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존재하는 만물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성경적 사실들을 증언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다음은 여기에 속하는 몇 가지 예이다.

1. 우리는 머리 위의 셋째 하늘에도 왕좌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예루살렘에 문자적인 왕좌가 있었으며 훗날 천년왕국 때에도 다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만들었던 성막은 셋째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규격과 유사했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 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출25:9)

3. 모세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다 제단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궤의 양 옆에는 **그룹**(출25:18)의 형상이 있었다. 이것은 영락없이 셋째 하늘의 실상을 재현한 모습이지 않은가?

4.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자체에 예표적인 의미가 온통 가득하다. 파라오는 마귀의 예표이며 그의 부하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예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미래에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휴거되는 사건의 예표이다. 휴거된 성도들도 머리 위에 있는 물들을 순식간에 횡단하며 비행할 것이다. 다음 구절들도 참고할 만하다.

- 1.) “(구름 기둥이)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그것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출 14:20)

머리 위의 둘째 하늘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다. 그러나 셋째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빛만이 있다. 왜냐하면 분리의 수인 2에 해당하는 성경 전체의 둘째 구절(창1:2)부터는 이런 사건이 나오기 때문이다. “...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 2.)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출14:21,22)

여기서 성경은 의심의 여지 없이 휴거 때에 있을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다. “모세가”[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 때” 이것은 주님께서 머리 위에 있는 바다의 위에서도 정확하게 하실 행동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숨으로 “강한 동풍”을 일으켜서 “물들”을 갈라지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교회의 예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

리스도의 성도들에게도 해당된다. “마른 땅 위로 갔고” 물 한가운데에 있지만 전혀 젖지 않을 것이다.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그리스도의 몸의 휴거 말고는 신자가 뭔가 물속을 통과한다는 심상을 말하는 사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출14:19-31에 기록된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다. 이것은 미래에 재현될 역사이며, 따라서 “예언”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지만 한 게 아니라 휴거의 예표인 것이다. 성경이라는 책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돌고 돌며 반복되는 책이다.

5. 모세는 “산에서” 어떤 “양식(pattern)”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출 25:40). 이 역시 하늘에 있는 “실체”가 땅에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 가시적으로 실현되었던 사례이다. 우주는 땅에있는 “산”처럼 피라미드 모양이다. 그리고 산의 꼭대기(셋째 하늘의 예표)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분이 피라미드의 “머릿돌”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 본 적이 없느냐?” (마21:42) 이것은 다윗의 시편(시 118:22)을 인용한 것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인용되었으며 베드로 역시 구두(행 4:11)와 서면(벧전2:7)으로 각각 한 번씩 인용한 바 있다.

대단원

구원받고 깨끗하게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있는 곳에 타락한 자가 불쑥 침입해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 구성원들을 먼저 창조하신 뒤 다음에 땅의 기초를 놓았다(욥38:4-7; 골1:10-16). 하늘의 군대 구성원들은 타락할 여지가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나중에 하나님은 인간(창1:26-28)이라는 존재를 창조해서 창조 세계를 “재시작” 하셨는데, 앞서 타락해 있던 영적 존재들은 새 창조 세계까지 망쳐 놓을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이것도 실제로 그렇게 이뤘다. 마귀가 그렇게 자기 작전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새 하늘들과 새 땅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새 세상에서 영원토록 변성하게 될 새 백성들에게는 결코 “침입해 접근” 할 수 없을 것이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

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계22:15)

여기서 “개들”은 사람(벧후2:22)을 가리키며, 나머지 항목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적용된다고도 볼 수 있다. 마귀 자신이 거물급 마법사요, 음행을 일삼는 자요(고후11:3; 요일3:12; 시109:14), 살인자요(이브와 아담을 피어서 영적 자살을 저지르게 만들었음), 우상 숭배자(사14:13; 살후2:4)이기 때문이다. 또한 거짓말에는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전문가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창3:1)

거듭난 참된 신자들은 천사들을 심판하는 판사가 될 것이다(고전6:1-3). 전직 하늘의 군대 구성원들은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았으며 그 결과 불 호수로 던져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단지 있는 장소만 바뀐 채로 말이다. 그들은 그때에는 다시는 우리 거듭난 신자들에게 접근하여 우리를 피어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하 세계에 대해 알려 주신 원리와 비슷하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눅16:26)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계20:10)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계

20:14)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계20:15)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whatsoever)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 21:27)

1611년도 권위역 킹 제임스 성경은 계21:27에서 “무엇이든지(whatsoever)”이라는 단어를 이탤릭체 형태로 삽입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계시인가! 즉, 사람을 뜻하는 “누구든지(whosoever)”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whatsoever)”에 해당하는 것들이 죄다 그 도시에 들어가지 못한다. 유전자가 조작된 돌연변이 생물, 부정한 영, 타락한 천사, 짐승, “개들”, 사악한 하나님의 아들들, 거짓 대언자, 적그리스도 등 많기도 하다. 그들은 “새 하늘들(복수형)”과 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전체 역사 시간표에서 제3기에 속하는 하늘들(복수형)과 땅이 될 것이다.

복습하자면 제1기 하늘들(복수형)과 땅은 창1:1에서 1:2 사이에 해당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벧후3:5,6). 제2기 하늘들(복수형)은 창 1:3에서부터 계 20에 해당한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렇게 확증한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벧후3:7)

“지금 있는 하늘들(복수형)과 땅”은 하나님에 의해 멸망할 예정이다. 노아의 홍수 때는 이런 규모의 하늘들(복수형)의 파멸이 없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창1:2를 벨후2:5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와 혼동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서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오류이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거하는 새 하늘들(복수형)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벨후3:13)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전능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번성시켜서 무한한 우주 공간을 채우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려는 첫 시도는 영적 존재들의 반역으로 인해 창1:2에서 끝났다. 그 뒤에는 재창조가 행해졌고 사람에게[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 들어진] 동일한 임무가 다시 주어졌다. 둘째 시도는 창3:1-13에서 끝났다. 이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타락한 창조 세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래 세우신 경륜상의 계획을 반드시 완수하실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증하는 내용이다(계 20-22). 아멘, 과연 그리되기 바란다.

결 론

결론을 말하자면 성령님은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여러 분야의 교리를 “간극이라는 팩트”와 연계하여 설명해 놓으셨다. 하늘과 하늘들, 세대와 세대들, 창1:2와 욥38과 렘4, 루시퍼와 “하나님의 아들들”과 롬5:12의 관계, 리워야단의 정체, 깊음들과 성경적 우주론, 6일 창조의 이전부터 혼돈에 빠진 땅이 이미 존재했다는 성경 기록상의 증거 등이 본서에서 다뤄졌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흥미로운 주제가 많다. 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다.

“겨우 유신론적 진화론을 부정할 목적으로 소수의 크리스천 과학자들밖에 주장하지 않고 성경적인 관점도 지니고 있지 않은 없는 가설을 왜 지지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 성경이 말하는 더 큰 진리를 왜 부정해야 한단 말인가? 한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다른 진리를 부정해야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성경은 신나고 흥미로운 책이다. 성경은 자신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없는 순수한 사람에게는 아주 평이하게 진리를 가

르쳐 준다.”

‘창조론자’들은 공통의 존재를 증명하고 진화론(무신론적이든 유신론적이든)을 부정할 목적으로, 성경에 없는 자신만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건전한 기존 성경 교리까지 부정하는 과잉 대응을 해 왔다. “간극이 사실”이라는 성경적 증거는 본서에서 다뤄진 것보다도 더 많이 있다. 훨씬 더 많이 있지만 현대의 근본주의자들은 그걸 꿈에도 모를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골고루 탐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영적 소경이 만들어진다. 성경적으로는 “간극”을 부정한다는 것은 가히 일고의 가치가 없는 무모한 행동이다.

그 책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책은 여러분의 안에서도 효력 있게 일할 것이다(살전2:13). 필요한 곳에서는(창1:2,4 등) 적절한 구분과 나눔(딤후2:15)을 실천하라. 구절들을 서로 비교하고(고전2:13) 성경에서 뭔가 반복이 나오는 곳을 눈여겨보시라(사28:10,13). 성경 기록들을 연구할 때는 때로는 인내도 필요하다(롬15:4). 손에는 킹 제임스 성경을 쥐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 안에 있는 말씀들(words; 단어들)을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라. “... 네가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딤후1:13)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엡4:27) 심지어 마귀가 아주 ‘보수적인’ 크리스천의 탈을 쓰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더라도 말이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 두고” (딤후4:3)

부 록

부록 A

새로운 육신 혹은 변화된 육신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이라 불리는 장소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죄와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자 하심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옥과 반대되는 하늘이라는 장소와 연관시켜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이라는 시간의 대부분을 하늘에서 보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시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사실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흰왕좌 심판 이후에 그들은 불호수로 던져질 것이며 그 장소에서 영원을 보낼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장소는 변하기에 영원한 삶은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은 사람(person)에 대한 것이며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3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에 대해 우리는 찬송과 설교를 통해 하늘나라를 자주 언급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람이 아닌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곤 합니다. “당신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에 대한 이유는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신실한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한 목적지에 이르는 수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작 그분은 목적이라는 사실은 간과합니다(계22:13).

상급이나 혹은 더 큰 도시를 통치하는 권세를 얻고자 하는, 즉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관심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죄인인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시면 은혜로 구원받고 언젠가 하늘에 있는 대저택에 살 것이며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일날 그 불신자는 교회에 가서 아름다운 찬송을 듣게 됩니다. 성가대의 찬송은 황금으로 덮인 길에 대한 것입니다. 진주로 이루어진 문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설교자는 휴거가 오늘 일어날 수도 있으며 우리는 결코 병들지 않는 최고의 육체를 얻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만일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과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적다면, 세상의 남은 모든 것들이 어두운 장소라는 것이 이상할 이유가 있을까요?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벧전4:18).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기술하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딤후2:13-14). 우리의 복된 소망은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그 사역이 완성되어 죄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분과 같이 오는 것입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니”(빌1:23). 죽음이 다가오면서 바울이 소망하던 더 좋은 것은 하늘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있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 보는 것으로 견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후5:6-8). 성경은 우리가 하늘에 살도록 우리 육신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는 구세주와 우리가 같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에 대해 잘 알려진 성경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4:13-17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성경구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장소보다 더 중요함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새로운 육신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하거나 혹은 휴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더라도,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일어날 것이며 죽었던 그 육신의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유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빌3:20-21). 여기서 새로운 몸이나 다른 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육신은 변화되어 그분의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빌2:8), 그분의 육신은 그 안에 죄의 어떤 모습이나 흔적도 없었기에 영광스러우셨습니다. 죽음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 그 육신은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그 시점에, 단순한 육신의 변화가 아닌 죄가 더 이상 거하지 않는 육체로 바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우리가 일어났을 때 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두 번이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

룩된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그 육신은 죄의 모든 흔적과 영향으로부터 정결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은 모든 권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15:51-57). 그것은 새로운 육신이나 새로운 모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모습의 관점들, 즉 젊어진 다거나 혹은 키가 커진다거나 다른 인종이나 피부색깔 그리고 나이나 성이 바뀐다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 우리 육신 안에 거하던 죄와 사망에 대해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1-3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수없이 그들이 대저택을 가지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이미 우리가 거할 저택은 그곳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는 왜 그 처소와 대저택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람과 동물 그리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상과 질병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늘로 갈 때에는 피난의 장소를 소유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할 장소가 맨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구절에 기초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구원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항

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의 미래가 기쁨으로 넘치게 될 그 기초로 설명합니다.

우리들은 아마 한 번쯤은 박물관을 방문했거나 상당한 수준의 부와 아름다움이 진열되어 있는 전시회에 갔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의해 우리는 상당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좋더라도 것처럼 차갑고 생명이 없는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22장에서 설명하는 하늘의 위대함이 대단하더라도, 만일 그 도시에 생명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 그 장소가 황폐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과 혼을 만족시킬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이 아닌 그분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물질적인 것을 존중하는 데서 벗어나 영적인 것을 존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3:1-4은 이런 관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위에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그리고 그분처럼 변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말입니다!

부록 B

예수님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배우셨는가’ 라는 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 가운데서 인간으로 살면서 배우신 어떤 것이 인격(person)에 무엇인가를 더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음을 다음의 히브리서 성경구절은 말씀합니다.

최소한의 설명을 덧붙여 이 성경구절을 살펴봅시다.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히1:4).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마1:21). 그리고 그분에게 주어진 그 이름은 이 지상과 하늘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빌2:9).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 혹은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출생 시 그 이름이 주어졌을 뿐 아니라 그분이 사셨던 삶과 그분이 겪었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크게 높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에서 매우 독특한 점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2:9).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의 창조주였으나 약함과 의존과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바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즉 스스로 천사보다 낮

은 지위를 택하신 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될(made)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might)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히2:17).

그리고 그분은 ‘인간 같으셨다(like unto men)’ 기보다는 ‘인간들처럼 되었음(made)’ 이 분명하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바(히2:16) 많은 인간 가운데 한 인간으로 선택되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고 그분은 또한 이스라엘 왕(마22:43)인 다윗의 씨(롬1:3, 딤후2:8)에서 나셨습니다.

이 성경구절에서 우리는 그분은 “되었다(made)” 그리고 “되려고(might)” 라는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통해서 그분이 인간의 형태를 취하시기까지는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될 수 없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되게 하셨느니라.”(히5:5).

다시 한 번 우리는 그분께서 과거부터 영원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분의 승천 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히5:9).

우리는 이 성경구절을 이미 자세하게 다루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육

신으로 오시기 전에는 타락한 인간과 그 인간을 구속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과 사역의 일부가 완전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또한 그분이 항상 죄인들의 구세주이셨으나 그분은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는 용서 받았으나 깨끗케 된 것은 아닙니다(출34:7). 그들은 믿음 가운데 죽었으나 더 좋은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히11:40). 이것이 그들이 죽어서 아브라함 품(눅16:22) 혹은 낙원(눅23:43)에서 기다리며 아직 열려있지 않은(히9:8)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은 그 육신을 떠나는 순간 곧바로 주님과 같이 있게 됩니다(고후5:8).¹⁰⁾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히6:20).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그분께서 자신의 인성과 관련한 새로운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고 인간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히7:22).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새로운 언약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물론 신약

10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자의 저서 “세대주의 재고찰”을 참고하기 바란다.

은 주님이 수락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을 때의 예수님과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의 예수님은 다른 측면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히7:26).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께서는 그분의 모든 창조세계와 그 어떤 인간보다도 높이 되셨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지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성경구절을 통해 그분의 높은 지위는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히9:11).

다시 한 번 우리는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책무가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록 C

진리를 왜곡시키는 현대 성경들

올바른 성경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있지만, 현대 성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중요한 교리들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16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개역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없앴습니다.

개역성경: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누가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창세기 3:15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IT)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현대 성서들은 예수님의 육신에 대한 내용을 없애고 그분의 영원하신 존재에 대한 교리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개역성경: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¹¹⁾

이사야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개역성경: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¹²⁾

누가복음 1:35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THAT HOLY THING)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개역성경: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¹³⁾

11) 역자주: 대부분의 영미권 현대 성서들 (NIV, RSV, NASV)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의 “IT”을 “He”로 대체하였다.

12) 역자주: 개역성경에는 ‘처녀’로 올바르게 번역되어있으나 영미권 현대 성경들, 예를 들어 RSV에서는 그 단어가 “젊은 여인(a young woman)”으로 표시되어 있다. 히브리어 10:6에서 이것은 몸이므로 ‘자(one)’가 아니라 ‘것(thing)’이 되어야 한다.

13) 역자주: 개역성경에 발견되는 ‘거룩한 자’는 영어로는 “holy one”으로 해석될 수 있음. 영미권 현대 성서들의 경우, 예를 들어 NASV에서는 “holy Child” NIV에서는 “holy one” 그리고 RSV에서는 “child”로 표기되어 있다.

진리를 감추는 것은 진리를 없애거나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악한 것입니다.

부록 D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son of man)이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님을 보여주는데 구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민 23:19).

사람의 아들은 가장 낮은 창조물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으며 따라서 다른 타락한 존재에 도움이나 해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분에게는 해를 끼치거나 유익하게 할 수 없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하니라.”(욥25:6). “그대의 사악함은 그대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요, 그대의 의는 사람의 아들이나 유익하게 하리라.”(욥35:8).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다른 창조물보다 매우 낮은 지위에 있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경이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시8:4).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혹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중히 여기시나이까!”(시144:3).

가장 최선의 상태에 있는 인간조차도 믿을 수 없으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시146:3).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거늘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느냐?”(사51:12).

주님은 인간이 성취한 모든 것을 일순간에 파괴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이웃 도시들이 멸망한 것 같이 아무도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사람의 아들이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리라.”(렘49:18; 49:33; 50-40; 51:43).

창세기로부터 예레미야 애가에 이르는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son of man)을 부정적이지 않는 관점에서 기술한 구절은 단 한군데뿐이다. 이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합시다.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흥미롭게도 그 예언자에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무려 9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에 대한 생각을 바꾸신 것일까요? 아니면 에스겔이 앞으로 오실 그분(One)의 모형이신 것일까요? 에스겔서에서 사용된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우리의 마음속에 경이로운 모습을 순서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에스겔은 일어서서(겔2:1) 반역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겔2:3).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말을 거부하고 반역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겔2:6-8).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겔3:1, 3, 4, 10)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를(겔3:17) 주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결박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겔3:25).

그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였고(겔4:1, 16; 5:1), 그들을 대적하여 대언하였으며(겔6:2), 짐승의 형상(겔8장)과 성전에서의 가증한 행위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겔11장).

그는 반역하는 집 가운데 거할 것이며(겔12:2), 죄인들 가운데 먹고 마시는 고통을 받게 되며(겔12:8) 그리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겔12:27; 13:2; 13:17). 그는 그들에게 불법의 걸림돌에 넘어질 것이라(겔14:3) 말하였으며 하나님의 율법(겔14:13)과 포도나무가 더럽혀질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겔15:2).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며(겔17:2), 그들의 기도는 헛되며(겔20:3) 그리고 그가 그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겔20:4). 그 이유는 그들이 조상의 죄들을 의의 길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겔20:27).

에스겔이 거룩한 처소들의 상태를 바라보고 있을 때(겔21:2), 그는 매우 비통해했습니다

(겔12:6). 그 이유는 바벨론 왕으로부터 칼(겔21:9)과 고통과 죽음(겔21:12, 14, 19, 28)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집이 황폐하게(겔22:18)되며, 그들의 땅은 더럽게(겔22:24)되며, 그들의 동맹들은 가증한 일을(겔23:36)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고통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 경고 받았습니다(겔24장).

이러한 경고들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은 불의한 이방인들에 대해 대적하는 대언도 하였습니다(겔24-32장).

어리석은 자들의 혼에 대해 파수꾼 역할을(겔33:7) 한 사람의 아들의 이런 명확한 설교(겔33:2)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찢림 받고 구원을 찾게 되었습니다(겔33:10). 그들이 많은 죄로부터 돌이키고(겔33:12)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안전하리라는 상상을 멈춘다면(겔33:24), 그들의 죄가 용서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온 많은 사람들은 적들이었고, 그들은 그

의 등 뒤에서 혈뜰는 말을 하였습니다(겔33:30). 이것은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목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동되었습니다(겔34:2). 에스겔은 그들이 주님의 길이 아닌 자신들의 길로 걸었으므로 더럽혀졌다고 말했습니다(겔36:17).

그때 사람의 아들이 나와서 그 민족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회복될 것이라 선포하였고 또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서(겔37장) 회복된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시 통합될 것이라(겔37:16)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때 곡과 마곡 땅이 파괴되어(겔38장) 그 민족이 자신들의 땅에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겔39장).

이 대언자는 자신에게 보여준 것들을 행하며 진리를 선포하기에 하나님께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겔40:4).

에스겔 대언자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과 영원히 거하며 모든 불의가 끝날 것이라(겔43:7)며 말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악함은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겔43:10-12).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지켜질 것이며(겔43:18-27),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겔44:5).

마지막 구절은 사람의 아들이 거하는 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깨끗한 강줄기에 대한 언급입니다(겔47:6).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이 전개되는 과정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경이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혹은 인간이 만든 소설일 수가 없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부정적이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 칭호를 가지고 등장하였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사역에 대한 말씀과 삶 그리고 예언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다시 보십시오. 경이롭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 와서는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선 28번 언급하지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무려 81번이나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마태복음에서 13번, 마가복음에서 14번, 누가복음에서 26번, 요한복음에서 11번).

첫 번째로(연대기적 순서라기보다는 문맥상) 예수님은 자신의 이 칭호를 인간의 고통과 친숙해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가난과 관련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마8:20).

이 칭호는 그분이 인간과 같은 형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먹고 마시며(마11:19), 비난 받으며 (마12:32), 복음을 선포하며(마13:37)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음을 보게 됩니다(눅7:34). 우리는 그분이 고통 받았으며(마17:12), 배반당하며(마17:22; 26:2), 입맞춤으로 배신당하시며(눅22:48),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셨음을 봅니다(눅9:22). 그분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셨으며(막10:33) 그리고 죽음으로 정죄당하셨습니다(마20:18). 그분은 죽으셨습니다(마12:40). 이 모든 것은 구약의 예언과 일치되도록 이루어진 것입니다(눅18:31).

우리는 또한 사람의 아들이 신성(Divine)을 지니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신성에 근거해 그분은 병자를 치유하시고(마9:6) 그리고 안식일의 주가 되셨습니다(마12:8).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고(마20:28), 그분이 의도했던 바와 같이(마17:9, 막9:31)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고(마12:38-40)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셨습니다(마18:11). 그분은 하늘에 이르는 길이며(요1:51, 창세기 28:12을 찾아 보십시오), 단순한 믿음으로(요3:14-15) 그분을 영접한(요6:53) 사람들에게 영

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요6:27).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 오른편으로 올라가셨고(마26:64, 요6:62, 행7:56) 그분은 인간으로 오시기(요3:13) 전부터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계1:13-20).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그분은 둘째 하늘로 내려오셔서 정사와 권능들로부터 그 통치권을 취하십니다(단7:13-14). 그리고 천사들의 주로서 그분의 왕국을 깨끗케 하실 것입니다(마13:41). 그분이 영광 가운데(마16:27)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눅9:26)으로 지상에 다시 오실 때(마10:23; 24:27), 자신의 적들을 벌하시고 영광의 관을 쓴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계14:14). 그분은 사악한 자들을 파멸시키려 다시 오시며(마19:28)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권위로(요5:27)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마25:31).

아들하나님은 약속된 왕국을 이 지상에서 통치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다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이런 시각은 에스겔서 이전 구약에서 사람의 아들을 바라보는 유일한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80:1-19를 살펴보겠습니다. “오 요셉을 양 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는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여, 주는 빛을 비추소서.” 하늘에 왕좌로 계시며 지상 양떼의 목자이신 분이십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일으키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분은 자신이 거주하는 처소를 떠나 인간이 거주하는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오 하나님이며,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분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눈물의 빵으로 먹이시며 그들에게 많은 눈물을 주사 마시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자

기들끼리 웃나이다.” 그분의 민족은 그분의 진노 아래서 고통 받고 있으며 그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것 앞에 터를 준비하시고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채웠으며 작은 산들이 그것의 그늘에 덮이고 그것의 가지들은 좋은 백향목같이 되었나이다. 그녀가 자기 줄기들을 바다까지 내보내었고 자기 가지들을 강까지 내보내었거늘” 이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풍요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녀의 울타리를 허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녀를 따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그것을 피폐하게 하고 들의 들짐승이 그것을 먹어치우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 되시기를 그치시고 그들을 피폐하게 하셨습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며, 우리가 주께 간청하오니 돌아오소서. 하늘로부터 내려다보시고 살피사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그것은 주의 오른손이 심으신 포도원이요,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에 타고 베이며 그들이 주의 얼굴의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나이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했으며 이를 통해 지나간 시절의 기쁨을 알고자 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곧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것은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율법 이전과 이후 견지해 온 여호와와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오히려 현재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계신 그 사람을 통해서만 그들이 하나님

과 화해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분을 신뢰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의 권능을 우리 모두 송축할지어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별책부록 124면)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우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우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우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와 '야호' 커넥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냐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
71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22종과 소책자 40종 등 62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2015년 10월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①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①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Perry Demopoulos는 무디 성경 신학원과 하일스 앤더슨 대학교와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을 졸업하고(신학 학·석사), 캐롤라이나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2년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저서를 남겼다. 또한 그는 킹 제임스 성경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발의하고 참여하기도 했다.

저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http://harvestukraine.org>

E-mail : pdkjv1611@gmail.com 으로

연락하기 바란다.

- * 카이스트 졸업
- * 연세대 대학원 박사과정중
- * 진리침례교회 성도
- * 역서소개 : 영원히 살려면,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장1-2절의 연구,

